

0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정책 연구

arts change the world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사업

강화 방안 연구

2010. 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사업 강화 방안 연구

2010년 11월 인쇄
2010년 11월 발행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편 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52-05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6-1번지
전화 02-760-4500, 600
팩스 02-760-4706
홈페이지 www.arko.or.kr
이메일 arko@arko.or.kr

본 보고서는 무단전제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사업 강화방안 연구

/ 2010. 11

제 출 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하

본 보고서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사업 강화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년 11월 일

주 관 기관 : (주)유피디아 전략그룹

연구책임자 : 김재준(국민대학교)

연 구 원 : 공용택(성균관대학교)

김재범(성균관대학교)

이수희(런던대학교)

김세원(고려대학교)

신혜린(스탠포드대학교)

김혜리(중앙대학교)

안지연(성균관대학교)

허정인(성균관대학교)

한송이(성균관대학교)

목 차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 연구의 배경 및 방향	18
	제2절 : 연구의 범위	19
	제3절 : 연구의 의의	19
	제4절 : 기대효과	19
제2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 교류 현상 분석	
	제1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개요	22
	1. 개괄	22
	2. 설립목적	22
	3. ARKO VISION 2015	23
	4. 조직도	24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산 및 재정 현황	24
	제2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 교류의 현황 및 특징	26
	1. 기본방향	26
	2. 국제교류 지원 사업 내용	27
	3. 국제교류 지원 사업 현황 및 문제점	30
	제3절 : 시사점 및 기회 점 도출	37
	1.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의 효율성	37
	2. 국내공연의 해외진출 문제점	39
	3. 해외공연의 국내 유치 문제점	40

제3장 국내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제1절 : 정부 부처

1. 문화관광체육부	44
2. 외교통상부(문화외교국)	56

제2절 : 기관

1. 예술경영지원센터	61
2. 국제교류재단	72
3. UNESCO 한국위원회	78
4. 한-ASEAN CENTER	79
5.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교육원	84
6. 영화진흥위원회	86

제3절 : 지역 재단

1. 서울문화재단	100
2. 경기문화재단	109

제4절 : 시사점 및 기회점 도출

114

제4장 해외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제1절 : 영국의 주요 기관 및 활동

1. 영국 문화미디어 체육부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120
2. 영국 예술위원회 (Arts Council England, ACE)	121
3. 비지팅 아트 (Visiting Arts)	123
4. 영국문화원 (British Council)	127
5. 영국, 북아일랜드 국제예술위원회	128
6. 시사점 및 기회점 도출	129

제2절 : 프랑스의 주요 기관 및 활동

1. 문화커뮤니케이션부	131
2. ‘세계 문화의 집’의 프로그램 쿠랑	131
3. 외무부	132
4. 프랑스예술진흥협회AFAA(컬튀르 프랑스)	133
5. 시사점 및 기회점 도출	141

제3절 : 일본의 주요 기관 및 활동

1. 외무성	144
2. 문부과학성	145
3. 국제교류기금	146
4. 시사점 및 기회점 도출	149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제1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지원 사업의 실증 분석	
1.	국제교류 및 국내지원의 실증 분석	152
2.	국제교류 지원의 실증적 분석(인바운드 vs 아웃바운드)	159
3.	국제교류지원의 지원액 분석	171
4.	국제교류 지원의 지역별/국가별 분석	178
제2절 :	새로운 예술위 역할과 국제교류사업 강화 목표 및 전략	
1.	목표	202
2.	전략	203
제3절 :	전략적 제안 프로그램	
1.	인/아웃 바운드(IN/OUT BOUND) 체계화 프로그램	204
2.	아시아 강화 프로그램 개발	208
3.	다양한 장르 프로그램 개발	210
제3절 :	사업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1.	조직의 국제화 수준에 대한 기준	212
2.	국제교류 부문에서의 기준	213
제6장	결론	217
	참고문헌	225

표 목차

〈표 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08~2010년 예산 변화	25
〈표 2-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유럽/북미 국제교류협력 (레지던스 프로그램 중심)	29
〈표 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몽골과의 국제교류협력	29
〈표 2-4〉 2009년 대륙 별 국제교류 건수	38
〈표 3-1〉 해외 한국문화원 현황(2009)	45
〈표 3-2〉 해외 한국문화원 운영 현황(2009)	47
〈표 3-3〉 주요 문화원 사업추진 현황(2008~2009)	48
〈표 3-4〉 해외문화원 예산 현황(2008~2009)	49
〈표 3-5〉 2010~2012년 문화교류 집중 주요계기	51
〈표 3-6〉 주요문화행사 추진현황(2007~2009)	52
〈표 3-7〉 문화체육관광부 최근 5년간 부문별 재정추이	54
〈표 3-8〉 문화체육관광부 최근 5년간 정부재정대비 재정추이	54
〈표 3-9〉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교류업무 지출추이(2009~2010)	55
〈표 3-10〉 글로벌 코리아 구현을 위한 외교통상부의 9개 과제	57
〈표 3-11〉 Center Stage Korea in Latin America 관련 기관 및 역할	62
〈표 3-12〉 Center Stage Korea in Georgia 관련 기관 및 역할	63
〈표 3-13〉 공연예술작품 해외전락거점 진출지원 현황(2008~2010)	63
〈표 3-14〉 전통예술 해외진출사업 주요 지원 시장	65
〈표 3-15〉 전통예술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협력기관	66
〈표 3-16〉 서울아트마켓 프로그램 개요	70
〈표 3-17〉 2005~2010년 서울아트마켓 개최개요	71
〈표 3-18〉 국제교류재단 설립 목적 및 세부내용	73
〈표 3-19〉 2007년 해외박물관 관련 사업	74
〈표 3-20〉 2008년 해외박물관 관련 사업	75
〈표 3-21〉 2009년 해외박물관 관련 사업	76
〈표 3-22〉 해외박물관 큐레이터 워크숍 개요(1999~2010)	77
〈표 3-23〉 한-아세안 센터의 문화 관광 프로그램	80
〈표 3-24〉 Tourist arrivals in ASEAN	81
〈표 3-25〉 한국입국 관광객들의 국적	82
〈표 3-26〉 한국인의 해외여행 국가/지역	82
〈표 3-27〉 영화진흥위원회 연혁	87
〈표 3-28〉 국제영화제 관련 사업 및 활동내역	91
〈표 3-29〉 한국영화 해외극장 개봉 지원	92
〈표 3-30〉 한국영화 해외홍보 사업	94
〈표 3-31〉 온라인 비즈니스센터(KOBIZ) 구축	95
〈표 3-32〉 영화진흥위원회의 국제공동제작 활성화 사업	97
〈표 3-33〉 1차 전문 공연예술 활동 지원 사업유형 및 지원금 규모	110

〈표 3-34〉 1차 전문전통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유형 및 지원금 규모	111
〈표 4-1〉 레지던스 제공을 위한 연간 일정	126
〈표 4-2〉 비지팅 아츠 지원 내역	126
〈표 5-1〉 장르별 사업포기 건수	152
〈표 5-2〉 장르별 지원건수 및 전체에서의 비중	153
〈표 5-3〉 연도별 장르별 지원횟수	156
〈표 5-4〉 장르별 지원받은 개인/단체의 우편번호 소재지	157
〈표 5-5〉 장르별 지원사업이 실제 일어난 장소의 분포	158
〈표 5-6〉 장르별 국내사업과 국제사업의 비중	159
〈표 5-7〉 문화일반의 국제화 분포	160
〈표 5-8〉 시각, 공연예술, 전통예술 등의 국제화 분포	160
〈표 5-9〉 장르별 국제사업중 인바운드(inbound)와 아웃바운드(outbound)의 비중	161
〈표 5-10〉 문화일반 outbound 수혜단체(총 76건 중 2회 이상 수혜자)	161
〈표 5-11〉 문화일반 인바운드 수혜단체(총 157건 중 2회 이상 수혜자)*	161
〈표 5-12〉 아웃바운드 지원 받은 장르예술 단체 (3회 이상 수혜단체 명단)	163
〈표 5-13〉 인바운드 지원 받은 장르예술 단체 (3회 이상 수혜단체 명단)	165
〈표 5-14〉 국제사업의 코드별 장르별 지원횟수의 분포	166
〈표 5-15〉 국제사업의 장르별 지원횟수의 분포*	166
〈표 5-16〉 장르별 사업기간별 지원횟수의 분포	169
〈표 5-17〉 국제사업 전체의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지원횟수	169
〈표 5-18〉 다원예술의 인바운드 대 아웃바운드 지원횟수(국제사업)	169
〈표 5-19〉 무용의 Inbound versus Outbound 지원횟수(국제사업)	170
〈표 5-20〉 문학의 인바운드 대 아웃바운드 지원횟수(국제사업)	170
〈표 5-21〉 문화일반의 인바운드 대 아웃바운드 지원횟수(국제사업)	170
〈표 5-22〉 시각예술의 인바운드 대 아웃바운드 지원횟수(국제사업)	170
〈표 5-23〉 연극의 인바운드 대 아웃바운드 지원횟수(국제사업)	170
〈표 5-24〉 음악의 인바운드 대 아웃바운드 지원횟수(국제사업)	171
〈표 5-25〉 국내지원과 국제지원의 평균지원액수	171
〈표 5-26〉 장르별 지원액수	172
〈표 5-27〉 연도별 공연예술과 시각예술의 평균지원액수	172
〈표 5-28〉 서울과 지방의 평균지원액수 (국제사업)	173
〈표 5-29〉 아웃바운드 사업의 경우 서울과 지방의 평균지원 액수	173
〈표 5-30〉 인바운드 사업의 경우 서울과 지방의 평균지원 액수	174
〈표 5-31〉 시각예술에서 국제사업의 연도별 서울과 지방의 평균지원 액수	174
〈표 5-32〉 공연예술 분야에서 국제사업의 연도별 서울과 지방의 평균지원 액수	175
〈표 5-33〉 사업주체별 장르별 회귀분석 결과	175
〈표 5-34〉 국제 변수에 따른 회귀 분석 결과	176
〈표 5-35〉 지방 변수가 들어간 회귀분석 결과	177
〈표 5-36〉 문화예술위원회 지원의 지역별 분포	178
〈표 5-37〉 예술장르별 지역분포	179

〈표 5-38〉 유럽/북미 지역과 기타지역의 기간별 지원 비교	179
〈표 5-39〉 유럽지역 지원 국가별 비교	180
〈표 5-40〉 아시아 지역의 장르별 아웃바운드 국가	181
〈표 5-41〉 북미 지역의 장르별 국가 분포	182
〈표 5-42〉 남미의 장르별 국가 분포	182
〈표 5-43〉 아프리카의 장르별 국가 분포	183
〈표 5-44〉 대양주의 장르별 국가 분포	183
〈표 5-45〉 유럽의 국가별 분포 (공연예술 시각예술별)	184
〈표 5-46〉 아시아의 국가별 분포 (공연예술 시각예술별)	185
〈표 5-47〉 북미지역의 국가별 분포 (공연예술 시각예술별)	186
〈표 5-48〉 남미의 국가별 분포 (공연예술 시각예술별)	187
〈표 5-49〉 아프리카의 국가별 분포 (공연예술 시각예술별)	187
〈표 5-50〉 대양주의 국가별 분포 (공연예술 시각예술별)	188
〈표 5-51〉 유럽국가의 예산 지원 총액	188
〈표 5-52〉 아시아 국가의 예산 지원 총액	189
〈표 5-53〉 북미 국가의 예산 지원 총액	190
〈표 5-54〉 남미 국가의 예산 지원 총액	191
〈표 5-55〉 아프리카 국가의 예산 지원 총액	191
〈표 5-56〉 대양주 국가의 예산 지원 총액	191
〈표 5-57〉 유럽국가의 예산 지원 평균	192
〈표 5-58〉 아시아 국가의 예산 지원 평균	193
〈표 5-59〉 북미 국가의 예산 지원 평균	194
〈표 5-60〉 남미 국가의 예산 지원 평균액	194
〈표 5-61〉 아프리카 국가의 예산 지원 평균	195
〈표 5-62〉 대양주 국가의 예산 지원 평균	195
〈표 5-63〉 아웃바운드 사업의 유럽/북미와 기타 지역에 대한 지원횟수와 평균지원액수 (시각예술 + 공연예술)	195
〈표 5-64〉 선진지역에서의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의 아웃바운드 지원 횟수와 평균 지원 액수	196
〈표 5-65〉 아시아지역에서의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의 아웃바운드 지원 횟수와 평균 지원 액수	196
〈표 5-66〉 장르별 회귀분석 결과	197
〈표 5-67〉 지역별 회귀분석 결과 I	198
〈표 5-68〉 지역별 회귀분석 결과 II	200
〈표 5-69〉 지역별 회귀분석 결과	200

그림목차

〈그림 2-1〉 ARKO Vision 2015	23
〈그림 2-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직도	24
〈그림 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별 지원현황 (횟수, 2008~2009)	30
〈그림 2-4〉 2008년~2009년 문화예술위원회 주 사업지역별 현황	31
〈그림 2-5〉 해외지원프로그램 대륙 별 현황 (2008년~2009년)	32
〈그림 2-6〉 아시아지역 내 중국 및 일본 지역의 비율 (2008년~2009년)	33
〈그림 2-7〉 장르별 지원횟수 (2008년~2009년)	33
〈그림 2-8〉 장르별 지원 현황 (2008년~2009년) (%)	34
〈그림 2-9〉 장르별 지원 금액 (2008년~2009년)	35
〈그림 2-10〉 프로그램 및 장르별 지원횟수 (2008년)	35
〈그림 3-1〉 해외 한국문화원 현황	47
〈그림 3-2〉 문화외교 환경변화	56
〈그림 3-3〉 공연예술작품 해외전략거점 진출지원	64
〈그림 3-4〉 공연예술작품 해외전략거점 진출지원	66
〈그림 3-5〉 The APRO 국내의 협력기관	69
〈그림 3-6〉 장르별 팬스 초이스 개수(2005~2009)	72
〈그림 3-7〉 주한 아세아인 등록자 변화(2000년과 2008년)	83
〈그림 4-1〉 프랑스 문화커뮤니케이션부	131
〈그림 4-2〉 외무성 조직 구성도	144
〈그림 5-1〉 영역별 평균지원액	153
〈그림 5-2〉 국제 및 국내 분야 총지원액	154
〈그림 5-3〉 인바운드의 총지원액	154
〈그림 5-4〉 문화일반 인바운드 vs 기타 국제	155
〈그림 5-5〉 시각예술 인바운드 vs 기타 국제	155
〈그림 5-6〉 무용 인바운드 vs 기타 국제	156
〈그림 5-7〉 연도별 평균지원액	157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 연구의 배경 및 방향

제2절 : 연구의 범위

제3절 : 연구의 의의

제4절 : 기대효과

제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방향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을 통한 품격 있는 국가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이를 위한 국가차원의 거시적 노력과 조직 및 개인 차원의 미시적 노력이 중요해졌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의 문화적 노력의 일환으로서 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중요해졌다.

하지만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한 한류의 확산, 국내 문화 콘텐츠의 활발한 발굴 등 우리나라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증대와 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국제 교류는 발전가능성 및 잠재력에 비하여 다소 정체되어 있거나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국제 문화교류에서 첨병 역할을 했던 한류 문화는 험한류라는 돌발 변수에 부딪히게 되었고 장르 또한 드라마, 가요 등 대중문화 측면에 편중되어 있다는 한계점도 노출되게 되었다.

그 동안 한류에 대한 진지한 발전 방안이 모색되지 못한 채 한국문화예술을 해외로 밀어내는 일방적인 측면과 드라마, 가요 등 대중문화 위주의 편중된 문화교류는 문화예술의 국제교류에 있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하고 입체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한류의 확산 방안을 포함한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의 전략방향을 제시하는데 큰 목표를 두고자 한다.

한류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대국 상황을 고려한 상호 존중의 상호 소통형으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문화 교류는 대중문화 편중에서 고급예술, 전통예술로 확산되어야 할 상황으로서 이러한 당면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국제화와 국가의 문화마케팅을 위한 국제 교류 전략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새로운 발상과 접근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류에 있어서는 우리의 대중문화를 외국 현지와 상호 교감할 수 있는 소통형 문화를 적극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적 교류의 범위를 넓히고 질을 높여야 할 것이며 기존의 대중문화 중심의 해외 교류 위주에서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로의 확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본질적 전통문화에 대한 문화콘텐츠 개발 접근과 국악, 무용, 공연 등 우리의 고유한 고급 문화예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발전 방안을 수립하

제1장 연구 개요

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교류사업 강화를 위해 국내외 문화예술 국제교류사업 관련 기관 현황 및 환경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예술위의 국제교류사업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본다. 이어 한국국제교류재단(외교통상부 산하 법인), 문화관광체육부 문화교류과, 예술경영지원센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국정홍보처등 국내의 주요한 문화예술 국제교류기관들의 사업 및 구조 현황을 비교 분석한다. 이어 해외의 벤치마킹 사례로서, 영국의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등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문화예술국제교류사업 및 기관, 활동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상기한 제 분석들을 바탕으로 예술위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을 장기 및 단기적 관점에서의 전략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목적과 특징은 현재 처해있는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국제 교류의 현상을 철저히 분석하는 데서 시작하여 분명한 문제점 도출을 통한 실질적인 개선 및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내외 문화예술 및 문화마케팅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인력 구축 및 국내외 국제 교류 현황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현실 가능한 밀도 있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 관점에서 제시한다. 본 연구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문화 해석과 고급예술 측면에서의 개발 활성화, 그리고 대중문화의 지속적 확산에 이르기까지 상호 유기적인 시스템을 통해 선순환 구조로 발전할 수 있는 현실적이며 지속 가능한 제안과 국제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제안을 한다는 데에 실질적 의의를 갖는다.

제4절 기대효과

본 연구의 결과물은 기존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함으로써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자생력을 신장시키고, 예술 창조를 견인

제장 연구 개요

하며, 예술적 융성과 사회생산력의 신장을 동시에 발전시켜 예술시장의 생산력을 확보 하려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다양하고 우수한 문화예술의 활발한 국제를 통한 국가와 국민의 자긍심 고취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문화 콘텐츠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다소 일방적이고 창의성의 한계가 나타나는 대중문화 편중에서 탈피하여 한국적 전통 문화와 고급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콘텐츠의 창출과 교류가 가능해 질 것이다. 또한 문화의 국제교류가 일시적, 단기적 현상이 아닌 우리나라의 예술적 전통문화에서 상업적 대중문화에 이르기 까지 지속적, 중장기적 안목에서 정책 제안들을 하려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문화 예술의 활성화 및 확산은 물론 문화예술위원회가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리드하는 예술 컨설팅 전문기관, 문화예술행정 대표기관, 문화예술 국제 네트워크 중추기관, 문화 확산 선도 기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혁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일조 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 교류 현상 분석

제1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개요

제2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 교류의 현황 및 특징

제3절 : 시사점 및 기회 점 도출

제2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 교류 현상 분석

제1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개요

1. 개괄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05.8.26 발족)는 문화예술진흥법(1972.8.14 제정)에 의해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1973.3.30 설립)을 모태로 하는, 문화예술 관련 특수 법인이다.

예술위는 문학·시각·공연·전통·다원 등 다양한 예술분야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예술창작 및 발표공간을 지원하여, 예술가의 창조역량을 강화하고 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며, 예술의 국제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펴나가고 있다. 위원회는 특히, 예술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하거나,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체결함으로써 예술창작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

예술위는 예술의 자생력을 신장시키고 예술 창조를 견인하며, 예술적 융성과 사회 생산력의 신장을 동시에 발전시켜 예술시장의 생산력을 확보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이 주는 창조적 기쁨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2. 설립목적

예술위의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사진·건축·어문·출판·대중문화 등 여러 분야의 창작·연구·보급 지원
- 민족 고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지원
- 문화예술인의 국제교류 사업
- 문화예술단체나 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 등 창작환경 조성 사업
- 사랑티켓 발행, 각종 문예강좌 개설 등 국민의 문화예술 향수 사업
- 지역문예진흥사업 등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 문화예술 전문인력 연수 사업
- 아르코 미술관, 아르코 예술극장,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 아르코 예술정보관 등 지원시설 운영

제2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 교류 현상 분석

- 문화예술 정보망 구축, 문화예술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정보 제공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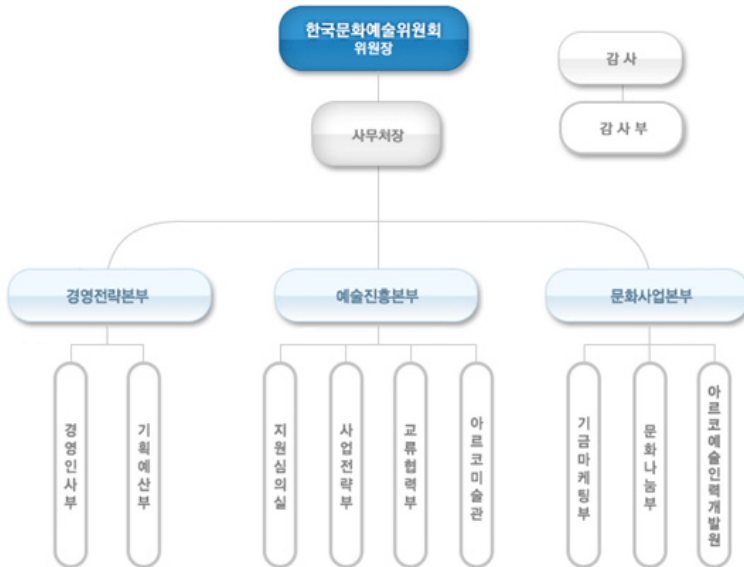
3. ARKO VISION 2015



제2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 교류 현상 분석

4. 조직도

〈그림 2-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직도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산 및 재정 현황

예술위의 국제교류 활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예술위의 예산과 재정을 살펴봄으로써, 예술위의 현재 규모와 활동을 이해하는 데 일조하고, 더 나아가 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재정

예술위의 2009년도 총 예산은 4,024억 1,195만원으로 전년대비 5.3% 감소하였고,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20.6% 감소하였다. 정부 내부수입은 복권기금 218억원이 전입되어 전년대비 10.1% 증가하였다. 지출예산에서는 경상사업비가 전년대비 17.1% 감소한 738억 632만원, 기금운용비는 전년대비 0.9% 감소한 109억 154만원이다.

2009년도 경상사업비를 살펴보면, 서울에 편중된 창작활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2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 교류 현상 분석

2008년도부터 도입한 지역협력형 사업에 전년대비 85억원 증가된 183억을 지원하였고, 예술지원 4대원칙을 반영한 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창작 현장에 지원하였다.

〈표 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08-2010년 예산 변화

구분		'08 예산	'09 예산 (A)	'10 예산 (B)	증감 (B-A)
사업명	국제예술교류지원	4,052	4,077	3,349	▼ 728
	국제예술교류기반조성	1,060	1,113	1,128	▲ 15
	공연예술국제행사지원	-	-	1,900	▲ 1900
세출예산비목	운영비(201)	330	387	376	▼ 11
	여비(220)	143	208	200	▼ 8
	사업추진비(240)	42	48	47	▼ 1
	민간경상보조(320)	4,442	4,547	5,754	▲ 1,207

(단위: 백만원)

2009년 예술위의 전체 예산 대비 국제교류업무 예산은 약 13%를 차지한다. 이 중 국제예술교류지원이 전체 국제교류업무 예산의 약 78%를 차지한다.

상기한 비율은 2010년도 예산에서도 큰 변화가 없는데, 주목할 점은 국제예술교류 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비하여, 국제예술교류기반조성 예산이 소폭 증가함으로써 예술위가 교류에 앞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에 중요성을 두고자 한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없던 공연예술국제행사 지원 예산을 마련한 것을 통하여 아웃바운드(outbound) 중심의 지원사업에서 벗어나 인바운드(inbound) 차원의 지원사업의 비중 또한 높아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2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 교류 현상 분석

제2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 교류의 현황 및 특징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교류현황의 기본방향은 권역별 해외교류기관 확대를 통한 국제교류 인프라 구축, 국내외 협력기관과의 공동사업 등을 통한 교류사업 다각화, 수요자 요구(Demands)에 부응하는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기본방향

가. 권역별 해외교류기관 확대를 통한 국제교류 인프라 구축

예술위는 기존의 support방식의 지원에서 탈피하여 해외국가 및 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민간예술단체 해외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였다. 예술위는 이를 위하여 IFACAA 세계총회에 참석하여 세계 각국의 국립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부, 문화기구 등 문화 관련 종사자들과 최신이슈 및 예술정보를 공유하였으며, 꾸준한 노력을 통하여 현재 12개국 15개 기관과 교류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예술위는 해외기관과의 교류를 위하여 해외의 기관이나 총회, 학회/세미나 등을 방문/참석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출장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내부에서 공유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출장 결과를 가능한 외부에도 공시하도록 하여, 출장 결과 얻어진 지식과 경험이 외부적으로도 공유되면 좋을 것이다.

예술위는 아시아 지역에 집중하여 아시아 권역의 인프라 확충 및 사업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여, 향후 아시아창작거점사업(ACB, Asia Creative Belt)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국, 몽골,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의 대표단 초청 및 MOU체결 등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약속함으로써 국제교류를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였다.

나. 국내외 협력기관 공동사업 등을 통한 교류사업 다각화

예술위는 2009년 외교통상부와 협력하여 “글로벌 이슈-기후변화협약”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기후변화를 테마로 한 다양한 장르의 예술작품을 소개하는 등 협력기관과의 공동사업 또한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예술위는 상기한 해외 협력사업 외에도 독일의 베타니엔 스튜디오, 네덜란드의 라익스 아카데미등 해외 주요 레지던스 운영기관과의 약정을 기반으로 하여 교류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제2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 교류 현상 분석

또한 예술위는 몽골과 노마딕 레지던스(nomadic residence) 예술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양국 작가들 간의 예술적 교류를 확대하고 양국간 국제적 파트너십 구축을 강화하는 등 향후 몽골을 레지던스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레지던스 사업의 경우, 선진국과의 레지던스 사업과 후진국과의 레지던스 사업은 그 성격이 다르고, 따라서 그 지원 방식 및 지원 범위 등에서 차이가 나게 되므로 문화예술위원회는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수요자 요구(Demands)에 부응하는 맞춤형 사업 추진

예술위는 국내의 다양한 유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주요 문화행정기관 종사자들에게 한국과 한국의 문화예술을 소개하여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문화중주국으로서의 한국 및 위원회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문화동반자 문화행정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 연수 프로그램에는 홍콩, 자메이카, 필리핀, 방글라데시 4개국의 문화행정가가 참가하였고, 본 프로그램은 한국어 및 한국문화예술 체험 및 문화행정 세미나 등으로 구성되었다. 상기한 연수를 통해 참가자들의 한국 및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왔으며, 연수자와 연계하여 상대국과 MOU를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예술위는 기존에 연 1회 정기공모로 지원이 결정되었던 국제교류지원의 한계점을 인식하여 국제교류 추가공모지원을 실시하여, 지원기회 확대를 통해 예술인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시의성 있는 지원 사업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어 홈페이지 리뉴얼(renewal)을 통해 정보 제공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국제교류 전문인력 인턴 2인을 활용하여 예산 측면에서의 효율성도 높였다. 그러나 인턴 두 명이 전문 인력이라 분류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외국대학에 재학중이라 하더라도 학부 학생을 전문인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2. 국제교류 지원 사업 내용

예술위의 국제교류사업은 크게 국제교류 지원사업과 국제교류 기반조성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2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 교류 현상 분석

가. 국제교류지원사업

예술위의 국제교류지원사업은 국내 및 해외에서 개최되는 민간 차원의 국제 및 남북 문화예술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해외 개최 국제 및 남북 교류지원, 해외의 주요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을 초청하여 전시·공연교류·세미나 개최 및 워크숍 등을 기획하여 국내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 국제교류를 지원하는 국내 개최 국제 및 남북교류 지원사업 및 예술인의 해외 창작스튜디오 (Artist in residence) 프로그램 참가를 지원하는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 지원으로 구성된다.

상기한 지원사업은 예술위가 전통적으로 진행해오던 사업이다. 하지만 연 1회의 정기 공모로 진행됨에 따라 지원의 적시성 부족 및 예술가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위원회는 기존의 연 1회 정기공모 외에도 추가 공모를 1회 더 실시함으로써 시장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예술위는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문화동반자 행정연수’ 프로그램 및 사할린 전통예술강사 파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해외 주요 문화행정 기관 종사자 및 재외동포들에게 한국과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상기 프로그램은 한국어 연수, 한국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및 국제행사 방문, 문화 예술기관 방문 및 문화행정세미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 홍콩, 자메이카, 필리핀, 방글라데시 4개국에서 참여해 호평을 받았다.

이는 예술위의 독자적 프로그램이 아닌, 예술위의 주도 하에 국내외 유수의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

나. 국제교류기반조성 사업

국제교류기반조성 사업은 예술가의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교류지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활동 등을 포함한다.

이는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에 중점이 맞춰져 있었던 과거의 간접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국가간 문화예술 교류를 주도함으로써 우리 예술을 외국에 알리고 국내 예술가들의 창작역량강화를 위한 직접 지원 방식으로 변환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예술위의 이러한 사업은 예술가들이 개인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전략적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예술가들의 창작역량강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 교류 현상 분석

예술위는 〈ARKO VISION 2012〉를 통해 문화예술 국제교류에 있어서 문화예술행정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적 파트너십 및 국제교류 인프라 확충 등의 거점 마련을 위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예술위는 협력관계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먼저 ‘국제 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구 연합(IFACC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에 한국 대표 기관으로 참여하여 총 12개국 15개 기관과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또한 유럽/북미/아시아 권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주요 지역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유럽/북미 국제교류협력 (레지던스 프로그램 중심)

교류기관	베타니엔스튜디오	라익스아카데미	아이오와주립대
장소	독일 베를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미국 아이오와 주
분야	시각예술	시각예술	문학
협력내용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매년 1인씩 작가 파견 지원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한국작가 선정시 2년간 지원(최대 2명/연간)	문학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매년 1인씩 작가 파견
파견작가	최수정 (설치작가)	임고은 (설치, 영상)	강영숙 (소설가)
파견기간	‘09.3월 ~ ‘10.3월	‘08년 ~ ‘09년	‘09.8월~11월
주요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 시각예술 및 문학의 거점 국가의 명망 있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한국 예술가들을 파견하여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한국 문화예술을 소개함 - 해외 네트워크 확대 및 한국 문화예술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함 		

〈표 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몽골과의 국제교류협력

교류기관	몽골 노마딕 레지던스
분야	시각예술분야
참가작가	한국작가 및 몽골작가 12인
일정	‘09.9.8~9.18 (11일간)
장소	몽골 달란자드가드 및 울란바타르

제2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 교류 현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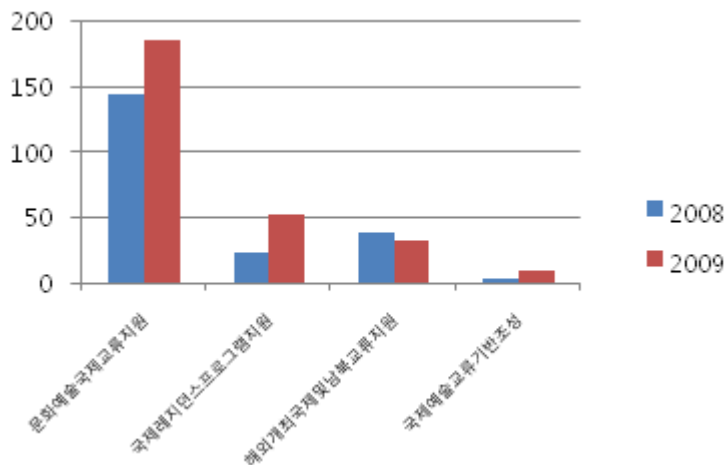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전시회 및 프리젠테이션 : 달란자드가드 시박물관 (몽골 현지주민, 지역 커뮤니티 참여) 최종 프리젠테이션 : 울란바타르 레드게르아트갤러리 (몽골 예술위 위원장, 주몽골 한국대사, 몽골예술인 등 40여명 참석)
주요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국 작가들의 예술적 교류 확대 한/몽 기관간 국제교류 파트너십 구축 강화 몽골 지역민 대상 예술 향수권 신장 참가작가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작가 창작역량강화에 기여 향후 아시아창작거점사업(ACB, Asia Creative Belt) 추진 시 몽골을 레지던스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3. 국제교류 지원 사업 현황 및 문제점

예술위의 2008년과 2009년 2년간의 사업별, 지역별, 장르별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주요 사업별 현황

〈그림 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별 지원현황 (횟수, 2008~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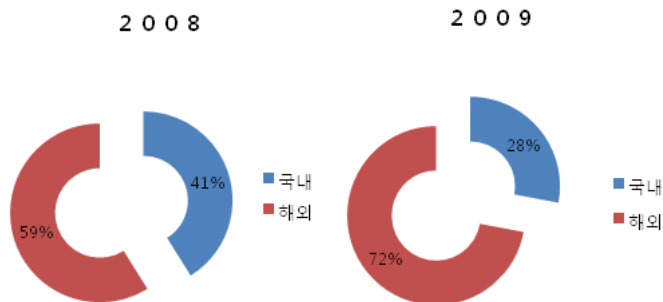
제2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 교류 현상 분석

위의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술위의 국제교류지원사업은 주로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프로그램에 치중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교류행사지원’ 과 ‘국제예술기구활동지원’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국제교류행사지원’ 에 대부분의 지원이 치중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의 문화예술인 또는 단체가 해외로 국제교류사업을 하는 경우,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다른 의미로는 예술위의 지원 사업이 주로 아웃바운드(Outbound) 사업 지원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2009년 예술위의 지원사업의 주 사업지역별 현황을 <그림 2-4>에서 살펴보면, 국내에서 진행된 행사는 전체 행사의 30~40%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2008년의 경우, 국내의 비중이 41%였으나, 2009년에는 국내의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28%로 줄어들었다.

<그림 2-4> 2008년~2009년 문화예술위원회 주 사업지역별 현황



나. 세부 사업지역 별 현황

예술위의 지원 방향은 아웃바운드중에서도 특히,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비율이 높으며, 아시아 지역 중에서는 특히 ‘일본’ 과 ‘중국’ 지역에 치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지원프로그램의 약 80%는 유럽과 아시아에 치중해 있으며, 아시아지역 중에서 중국 및 일본 지역이 약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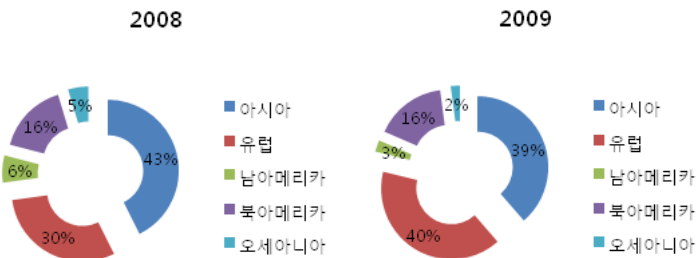
예술위가 수행한 지원 사업의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의 경우, 지역별 비중의 측면에서, 아시아가 43%, 유럽이 30%, 그리고 북미가 16%를 차지하였다. 기타, 남아메리카가 6%, 그리고 오세아니아가 5%를 차지하였다. 2009년의 경우,

제2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 교류 현상 분석

아시아와 유럽이 비중이 가장 큰 것은 2008년과 동일하지만, 2008년과 2009년간의 차이점은 아시아의 비중이 43%에서 39%로 줄어들었다는 점과 유럽의 비중이 30%에서 40%로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 2009년의 경우, 그 비중이 전년대비 33%나 증가하여 아시아를 제치고 가장 비중이 큰 지역이 되었다. 북미의 경우, 비중에 있어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남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는 그 비중이 3%와 2%로서 전년대비 그 비중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비중의 변화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예술위의 해외지원프로그램의 지역별 비중에 있어, 유럽과 아시아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며, 특히 유럽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반면, 남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의 비중은 더욱 감소하였다.

〈그림 2-5〉 해외지원프로그램 대륙 별 현황 (2008년-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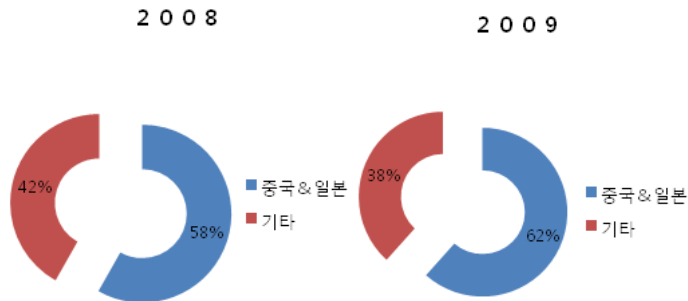


한편, 아시아 지역내에서의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8년의 경우, 중국과 일본의 비중이 58%였고, 기타 지역의 비중이 42%였다. 다른 모든 지역을 기타로 분류하여 기존의 자료만으로는 그 이상의 분석이 어려웠다. 2009년의 경우, 중국과 일본의 비중이 62%로 지역별 편중이 더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중국과 일본은 그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지역들이므로 양국의 비중을 나누어서 보여주었다라면 보다 유의한 분석이 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예술위의 보고 자료 발간시에는 중국과 일본의 비중을 각각 표시하고 아시아 기타 지역 중에서도 비중이 큰 지역들은 개별적으로 표시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럽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아시아만이 아니라 유럽지역에 대하여도 주요국가별 비중을 보여주는 그림이나 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제2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 교류 현상 분석

〈그림 2-6〉 아시아지역 내 중국 및 일본 지역의 비율 (2008년~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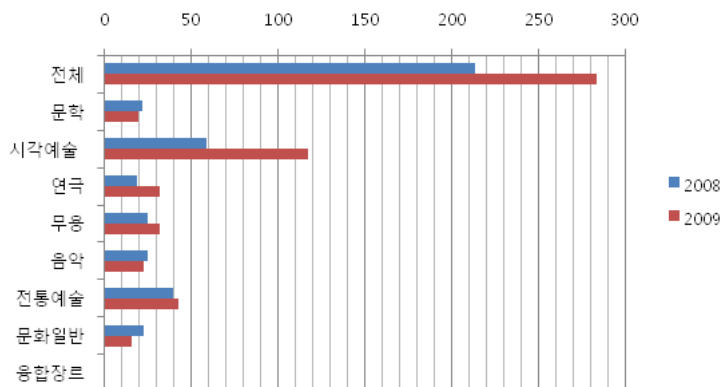
다. 장르별 현황

예술위의 지원은 2008년의 경우 장르별로 균등하게 분포되었으나, 2009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각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이 현저하게 크다. 특히, 2009년의 경우, 시각예술에 대한 지원은 42%로서 2008년의 27%에 비하여 증가율이 50%를 넘는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원사업별로도 다소의 차이를 보이는데,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 및 국제 레지던스 지원 사업은 시각예술 장르 지원이 가장 많다. 반면, 해외개최 국제 및 남북 교류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전통예술장르가 가장 많다는 특징을 가진다.

각각의 장르별 지원 횟수 및 금액, 장르 및 사업별 지원현황은 〈그림 2-7〉과 같다.

〈그림 2-7〉 장르별 지원횟수 (2008년~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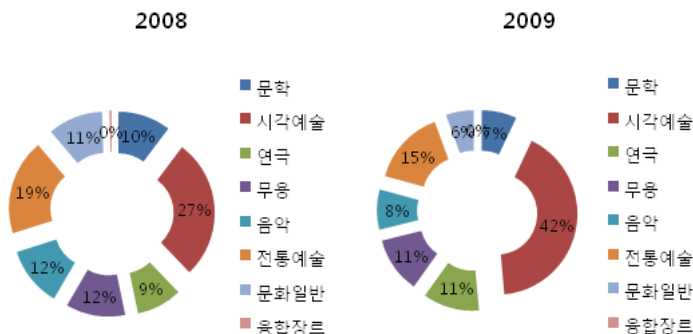
제2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 교류 현상 분석

〈그림 2-7〉을 통하여 장르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의 경우, 전년에 비하여 지원횟수 및 금액면에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8년의 경우 210건을 약간 상회하였으나, 2009년의 경우, 280건을 상회하여 지원횟수가 전년대비 30% 증가하였다. 장르별 지원횟수를 살펴보면, 시각예술의 경우, 2008년 60건에서 2009년에는 거의 120건으로 지원횟수면에서 거의 두 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연극이나 무용 전통예술등도 2008년도에 비하여 2009년에 지원 회수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음악과 문화일반, 그리고 문학의 경우 2008년에 비하여 2009년에 지원 회수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9〉를 통하여 장르별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008년에 비하여 2009년의 지원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장르별로는 시각예술이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연극도 전체지원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전통예술은 소폭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무용은 전년대비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음악과 문화일반, 그리고 문학은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특히 문학과 문화일반의 경우, 매우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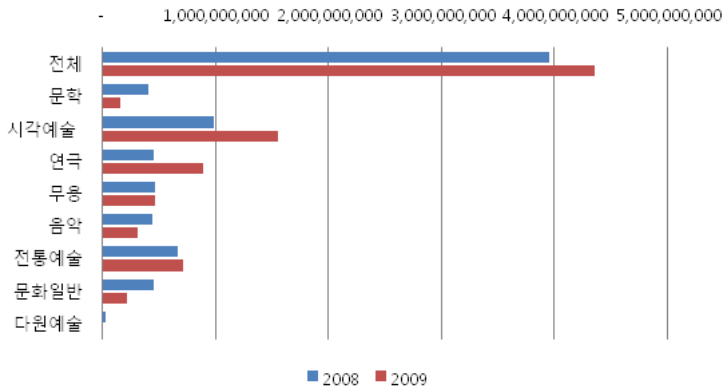
지원횟수와 지원금액을 통하여 장르별 지원을 분석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지원회수와 지원금액 모두 증가하였으나 2009년 지원 횟수의 증가율이 2009년 지원 건수의 증가율보다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2009년에 지원 횟수당 평균 지원금액이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림 2-8〉 장르별 지원 현황 (2008년~2009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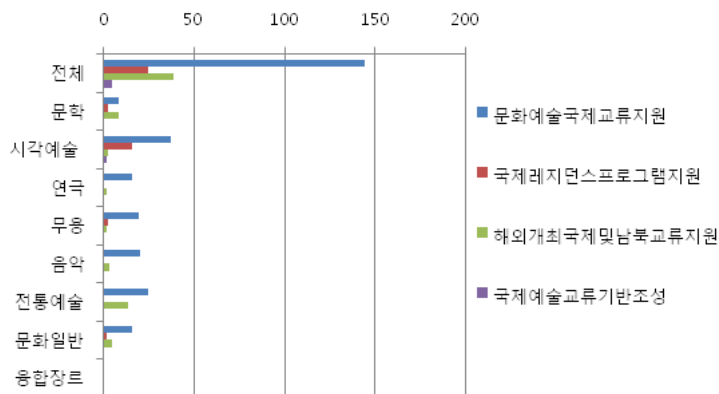


제2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 교류 현상 분석

〈그림 2-9〉 장르별 지원 금액 (2008년~2009년)



〈그림 2-10〉 프로그램 및 장르별 지원횟수 (2008년)



장르별로 예술위의 지원회수와 지원금액을 비교 분석해 보면, 가장 비중이 큰 시각 예술 분야의 경우, 지원회수와 지원금액 양면에서 증가율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시각 예술의 비중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자료를 통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연극의 경우, 지원회수와 지원 금액 양면에서 2009년에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연극은 지원 회수면에는 전통예술보다 적지만 지원금액면에서는 전통예술을 제치고 시각예술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통예술의 경우, 지원 회수와 금액 양면에서 모두 소폭

제2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 교류 현상 분석

증가하여 2009년에는 지원금액면에서 연극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상대적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 음악의 경우, 지원회수와 지원 금액 모두 감소하였다. 문화일반과 문학의 경우, 지원회수와 금액면에서 기존의 비중 자체도 전혀 크지 않은 상황에서, 2009년에 특히 지원금액면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문학의 경우, 2009년 지원금액이 충격적이라고 할 정도로 저년대비 감소하였는데 그 원인에 대하여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융합장르의 경우, 지원실적이 거의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원 프로그램별로도 차이를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큼을 알 수 있다. 해외개최 국제 및 남북 교류 지원사업 및 국제레지던스 지원사업이 큰 격차를 보이며 그 뒤를 따르며, 국제예술교류기반조성사업의 경우, 그 비중은 미미하다.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사업의 경우, 시각예술의 비중이 제일 크고, 전통예술이 그 다음으로 비중이 크며, 음악, 무용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해외개최 국제 및 남북 교류 지원 사업에서는 전통예술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며, 문학이 큰 차이를 보이며 그 뒤를 잇고 있다. 국제레지던스 지원사업의 경우, 시각예술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며, 다른 장르들의 경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처럼 예술위의 국제교류 지원 사업은 방향으로 볼 때에는 인바운드(Inbound)보다는 아웃바운드(Outbound)의 비중이 높으며, 아웃바운드 중에서도 특히 유럽과 아시아의 비중이 특히 높다.

장르별로 살펴보면, 시각예술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으며, 문학등에 대한 지원이 크게 감소하였고, 융합장르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융합장르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다른 장르와 함께 융합장르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제2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 교류 현상 분석

제3절 시사점 및 기회점 도출

1.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의 효율성

국내의 문화재단을 살펴본 결과, 아직도 정확한 구분이 어려운 '산발적' 국제 교류가 예술위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재단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상기한 점을 단기/중기/장기로 구분지어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계획한다면 2차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뿐더러 파급효과도 클 것이라고 생각된다.

서울문화재단과 경기문화재단을 간략하게 비교하면, 서울문화재단은 현재 문화와 긴밀한 협력을 맺고 있는 재단으로서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에서 문화정책들과 사업방향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었다.

경기문화재단은 서울문화재단과 비교하여 볼 때,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을 많이 두고 있었으며, 그에 따른 예산조정이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국제교류 실태들을 살펴보면 하기한 표들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국제교류현황은 유럽과 아시아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교류현황에서 유럽과 아시아에 집중되어있는데 유럽은 아웃바운드에 비하여 인바운드가 현저히 부족하였다. 이에 반하여, 아시아는 오히려 아웃바운드가 인바운드에 비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유럽과 대비하여 본다면 유럽의 인바운드는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유럽권의 문화시장에 막연한 기대감과 환상으로 문화시장에서도 수출보다는 수입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 시장 및 미래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볼 때 아시아지역은 문화교류의 이점이 많은, 효율성이 높은 지역이다.

반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등 기존에 교류가 미진한 지역들에서도 좀 더 활발한 국제교류가 '교류' 적 측면에서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 문화 교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2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 교류 현상 분석

〈표 2-4〉 2009년 대륙 별 국제교류 건수

구분	국내 ⇒ 해외					해외 ⇒ 국내				
	국가수 (개)	단체수 (개)	공연 건수 (건)	단체당 평균 공연건 수 (건)	공연 비율 (%)	국가수 (개)	단체수 (개)	공연 건수 (건)	단체당 평균 공연건 수 (건)	공연 비율 (%)
전체	72	246	413	1.63	100	73	769	1,356	1.76	100
유럽	23	79	131	1.66	31.7	31	360	701	1.95	51.7
아시아	28	96	161	1.68	39.0	20	205	311	1.52	22.9
남아메리카	5	9	15	1.67	3.6	8	24	30	1.25	2.2
북아메리카	7	46	80	1.74	19.4	6	128	215	1.68	15.9
아프리카	8	8	16	2	3.9	6	7	7	1	0.5
오세아니아	1	8	10	1.25	2.4	1	16	32	2	2.4
다국적	-	-	-	-	-	1	29	60	2.07	4.4

출처: 2009 문화예술 국제교류현황

가. 인바운드로 ‘벽제 공연예술 창작센터’ 제안

- 예술 현장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직/간접 자원이 뒷받침 되고 있는 바, 간접 자원의 측면에서 예술인력개발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벽제는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 을 중심으로 간접적 차원에서의 지원 뿐 아니라, 공연예술 창작센터 기반을 형성하여 갈 수 있고, 예술 인력 개발원을 시작으로 이전의 ‘화장터’ 이미지로 국한된 벽제가 더 이상 ‘벽제 장묘 문화센터’ 만이 아닌 ‘벽제 공연예술 창작촌’ 으로의 이미지 변화를 기대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 교류 현상 분석

나. IN-BOUND로 ‘구로 아시아 미술작가 창작촌’ 발전 안

□ 문화도시 재생도시

창조도시와 문화도시는 문화를 도시경영의 원리로 인식하여 문화를 중심으로 도시를 활성화하고 재생한다는 점에서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문화도시 모형이 문화 자산의 상품화와 브랜딩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주안점을 둔다면, 창조도시 모형은 도시공동체 구성원들의 문화적 역량과 가치에 근거한 창조적 문제해결 방식을 강조한다.

이에 많은 예술창작촌을 문화도시 및 재생도시의 활성화 방안으로 도입하고 있다. 문래예술공장이나 금천예술공장이 그 예들일 것이다.

연장선상에서 문화도시 재생도시로 구로의 문화적 특성인 아시아중심 다문화, 및 작가촌 발전을 융합해 ‘구로 아시아 미술작가 창작촌’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내공연의 해외진출 문제점.

우리가 간과 하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해외시장과의 네트워킹이다. 이미 문화 선진국 대열에 있는 국가에는 국제 문화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이 조성되어 있다. 예컨대, 국내의 A공연장이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초청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어떠한 통로를 통하여 가장 좋은 조건으로 이 단체를 섭외하며, 기획폭을 제고하고, 항공료 운송비의 분담여부, 적합한 극장과 감독의 파악, 또 이들 개인/기관들과의 긴밀하고 조직적인 협력여부등이 국제 네트워킹을 설명하는 예일 것이다.

해외 공연장, 페스티벌과의 공동지원,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고급화된 통로를 통한 해외진출과 국제적 수준의 예술 형식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동지원(co-commissioning)과 공동제작(co-producing)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이미 해외에서 널리 행하여지고 있는 작품 지원 및 제작 방식으로서, 하나의 공연 프로그램에 대하여 여러 제작자 등이 공동으로 지원하고 제작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제작자는 국가, 기구, 극장, 제작사, 등 여러 형태로 참여한다. 후술할 영화진흥위원회의 국제공동제작 활성화 방안은 문화예술위원회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다.

공동 제작 사례 가운데〈바다궁전〉프로젝트를 살펴보면, 〈바다궁전〉은 2003년 에

제2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 교류 현상 분석

초연된 대규모 음악극으로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유럽, 싱가포르의 공동지원을 통하여 제작된 작품이다. 고대 한국의 해모수 신화와 전설을 모티브로 한국 전통북춤과 서양의 현대 예술형식을 표현하고자 하는 작품은 아시아와 서양의 현대 예술 양식의 교차점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한국 안무가와 무용단이 주가 되어 창작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이미 에스플레네드(싱가포르), 멜버른 페스티벌 (오스트레일리아), 바비칸센터(영국)에서 제작지원을 하였으며, 한국의 S극장이 제작지원을 고려하였다. 제작지원에 참여한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한국은 총 제작비를 분담하게 되고 모두 작품의 제작자가 된다.

상기한 기획방식을 통한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적인 극장, 페스티벌을 공동제작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하여 세계적 가치를 같이 꿈꿀 수 있다. 둘째, 국내의 제작자들이 링컨센터 아바논 페스티벌과 같은 세계적 수준의 제작자들과 함께 공동제작자로서 크레딧 갖게 됨으로 해외 국내 극장과 페스티벌의 위상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다. 셋째, 해외제작자들의 전문적인 마케팅과 그들의 네트워크의 적극 활용성이 다. 마지막으로 제작국의 수만큼 제작비를 분담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반대로 제작국의 수에 비례하여 시장을 확대 할 수 있다.

3. 해외공연의 국내 유치 문제점

□ 단발적인 공연수입, 자체 제작의 부재

국내 시장에서 해외공연의 기획은 대부분 직접 초청공연이 주를 이룬다. 다시 말해, 해외의 유명공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입하는 기획이 주가 되고 해외작품을 자체 제작하는 기획이 드물다는 것이다. 감상 기회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이런 것은 단발적인 기획으로 지속적인 교류의 측면에선 별다른 소득을 기회하기 어렵다.

□ 국제협력을 위한 방안 국제협력 제작 장려와 지원

한국과 싱가포르가 공동 제작한 작품 〈언덕 위 나무위의 여인〉의 사례는 새로운 국제 협력의 방안을 제시한다. 싱가포르 아트 페스티벌은 2001년 이 작품의 공동제작을 한국측에 제의한다. 이는 한국과의 공동제작을 통해 한국 예술가를 참여시키고, 제작비 부담을 줄이면서, 다국적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그리하여 싱가포르 아트 페스티벌은 〈언덕위의 나무위의 여인〉을 2001년 의 개막공연 작품으로 초청했고, 그를

제2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 교류 현상 분석

위해 제작비의 3분의2를 지원했다. 반면 한국측은 국내 음악가들을 참가시킴과 동시에 제작비의 3분의 1을 지원하며 공동제작자가 되었다.

국제협력 제작방식의 장점은 다수의 공동 제작자들의 참여로 예산확보, 타국의 문화이해로 문화적 국제교류, 다국적 작품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프레스 마케팅 및 해외 시장 섭외 극대화이다.

제3장

국내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제1절 : 정부부처

제2절 : 기관

제3절 : 지역 재단

제4절 : 시사점 및 기회점 도출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제1절 정부부처

1. 문화체육관광부

가. 개괄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의 문화교류사업이 일방적·일회적·단발적이며, 대부분 국립단체 중심의 전통공연에 치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2010~2012년 국제교류계획’을 통해 ①상호주의적 쌍방향 교류 추진 ②다양한 문화권에 대한 이해 수준 제고 지향 ③ 수교행사 등 계기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적 문화행사 지향이라는 3가지 기본방향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권역별·계기별 문화교류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제교류를 통해 문화교류의 양적 및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나. 주요 특색 사업

1 _ 한국문화원

□ 재외 문화원 현황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의 문화홍보원을 문화원으로 개편하고 4개소를 신설하여, 2010년 현재 LA, 파리, 뉴욕, 중국 등 총 16개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문화원은 한국 문화 강좌·강연, 전통공연·전시 및 행사, 한국어 보급·한국 문화 홍보 자료 발간 및 배포, 한국영화제 개최를 통한 한국 영화 시사회, 도서관 운영 등으로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현지 사회에 널리 홍보한다. 또한 한국인의 열과 정신을 현지인들에게 각인시키는 등 한국 문화 홍보의 해외 전진 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9년 해외문화원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원 총 방문자수는 307,233명이며, 2009년 말 4개의 해외문화원이 늘어남에 따라 방문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외문화원은 ‘찾아가는 한국문화’ 및 ‘지방 순회 문화제’ 등 문화원 주재국 지방도시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현지 체험형 특화사업을 실시하여 체계적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인 우리문화홍보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현재 재외 한국문화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1〉 해외 한국문화원 현황(2009)

문화원		개원일	인력수		위치	소유 형태	규모
			문화 원장	현지 직원			
기 존 문 화 원	동경	1979.5.10 1995.3 이전 2009.6.18 코리아센터 개편	1명 (고위)	5급 1/12명	4-4-10 Yotsuya, Shinjuku, Tokyo	소유	8,349m ²
	뉴욕	1979.12.5	1명 (고위)	5급 1/9명	460 Park Avenue 6th, F1 New York, N.Y.	임차	813m ²
	LA	1980.4.11 2006.9 코리아센터 개편	2명 (고위1, 4급1)	9명	5505 Wilshire Boulevard, Los Angeles, California	소유	2,540m ²
	파리	1980.12.16	1명 (고위)	5급 1/8명	2 Avenue D'lena, 75116, Paris	소유	809m ²
이 관 문 화 원	중국 (북경)	1993.12.14 2006.2 문화부 이관 2007.3 코리아센터 개편	1명 (고위)	6급 1/11명	No.1 Guanghua Xili, Guanghua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소유	6,301m ²
	독일	1994.11.8 2000.2 이전 2006.2 문화부 이관 2009.11 이전	1명 (고위)	6명	Leipziger Platz 3 10117 Berlin		
	러시아	1995.10.16 2004.2 이전 2006.2 문화부 이관 2009.1 이전	1명 (4급)	7명	st. Zemlyanniy Val 34A, Moscow		
	오사카	1999.3.17 2006.2 문화부 이관 2007.11 이전	1명 (4급)	7명	4th FL, Mindan Bldg. 2-4-2 Nakazaki, Kita-ku, Osaka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신 설 문 화 원	영국	2008.1.30	1명 (고위)	6명	Unit E&F, Grand Buildings, Northumberland Avenue, London		
	베트남	2006.11.18	1명 (4급)	6급 1/9명	49 Nguyen Du Street, Hai Ba Trung District, Hanoi		
	상하이	2007.7.12 (코리아센터)	1명 (4급)	12명	Room 501, Huizhi Building, No.396 North Caoxi Rd. Shanghai		
	아르헨 티나	2006.11.30	1명 (4급)	5명	Diaz 2884, Cap. Fed. 1425, Buenos Aires		
	폴란드	2009.12	-	3명	Nordic Park Building, 8 Kruczkowskiego, Warsaw		
	카자흐 스탄	2009.12	1명 (4급)	3명	010000 Nur Saulet-2 Business Center, Imanow St. 12Astana		
	워싱턴	2009.12	1명 (고공 1, 5급 1)	4명	237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08		
	나이지 리아	2010.02	1명 (4급)	2명	Rivers State Building, 83 Abuja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그림 3-1〉 해외 한국문화원 현황



〈표 3-2〉 해외 한국문화원 운영 현황(2009)

지역	방문자(명)	공연(회)	전시(회)	영화(회)	한국어강좌(회)	문화강좌(회)
동경	43,184	41	17	25	400	162
오사카	23,527	15	9	18	864	142
북경	60,034	3	19	49	539	199
상해	28,908	20	22	6	650	161
베트남	14,111	5	2	40	471	43
뉴욕	10,572	6	11	17	—	36
LA	43,269	12	12	24	40	19
아르헨티나	5,934	4	8	65	34	80
프랑스	31,335	—	20	22	360	135
독일	4,703	4	6	11	158	66
영국	27,078	18	11	25	134	13
러시아	14,578	6	10	28	125	89
계	307,233	134	147	330	3,775	1,145

□ 주요 문화원 사업추진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가장 먼저 개원한 기존문화원(동경, 뉴욕, LA)의 2008~2009년 주요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3장 국내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표 3-3〉 주요 문화원 사업추진 현황(2008~2009)

	2008년	2009년
동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보급 '말해 보자 한국어' 행사 : 도쿄, 오사카 등 6개 지역 및 고교생 대회 개최 - 韓 스타일 2008 한국가요콘테스트(9.26) - 한국어교사 연수(8.11~16) 및 고등학교 한국어 교육세미나(8.17~18) - 사물놀이 탄생 30주년 기념 공연 (7.4, 메르파르크홀 동경) - 오페라 '춘향전' 개최 (뉴서울오페라단 공동 개최 / 2.6~9) - KOREA CINEMA WEEK 2008 - 한국 문화관광 주간 행사 (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설날' 세시풍속 소개 및 체험행사 (1.26~27) - '말해 보자 한국어' 전국 10개 대회 개최 (2월~12월) - 韓스타일 2009 한국가요 콘테스트 (7월~10월) - 한국음식 보급사업 지원 (2월~12월, 전국 각 지역) - 일본 JET 프로그램 참가 한국 교류원의 문화활동 연수회(11월) - 대한민국 축제 한마당 2009 개최 지원 (9.19~21, 도쿄) - 한일 문화교류의 모임 행사 (공연·귀빈초청 등, 12월) - 일본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한국문화관광 주간 (6월, 삿포로) - 태권도 홍보 및 시범행사 등 개최(태권도 교실 운영, 태권도 대회 지원 등) - "세종학당" 설립, 한국어 강좌 전문화 (연간 400회, 6코스 10개 반, 150명)
뉴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음식행사 'Taste of Korea 2008' (9.20~10.4) - 뉴욕타임즈 기사집 'The Korean Wave' 발간(4월) - 'The Korean Wave' 출간 기념 한류 신포지움(4.4) - 태권도 공립학교 정규과정 채택 홍보, 매사추세츠주 공립학교 교장단 초청 워크숍(7.16) - 동해 고지도/독도 사진 전시회 (9.26~10.2) - 한옥 특별전 '한옥에 들어서며' 전 (10.6~17) - 공모 당선작가 전시 '우연한 결집' (4.30~5.21) - 한국미술품 UN 설치(2.22~09.2.14) / 17점 - Roswell Rudd Quartet 재즈 공연 (10.31) - 현대미술 특강(3.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립교향악단 뉴욕 데뷔 콘서트 (6.5) - 뉴욕 아시안 영화제:뉴욕한국문화원 개원 30주년 기념 - 2009년 대 뉴욕 지구 태권도 정기 워크숍(7.2) - 공모 당선작가 전시 '현대의 신화' 전 (4.8~5.1) - 한국의 옛 그림 교실 강좌(3.31~5.26) - 뉴욕타임즈 기사집 'The Korean Wave' 발간(5월)
L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영화 상영, 한국영화제 개최 지원 및 공동참여 - 미술 공모전 등 전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교사 대상 한국역사·문화 강좌 (8.3~7, 5회) - 한국 대중 문화 강좌: 라스트 포원과 함께하는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전통 문화 · 예술 공연 - 미국 내 초 · 중 · 고교 대상 견학 프로그램 제공 -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 사업(5개 사업) - 미주 태권도 클럽 선수권 대회 및 지도자 세미나(5.24~25) - 세계 태권도 한마당(7.16~20)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보이 워크숍(8.19) - LA 한인 예술가 대상 미국예술지원제도 워크숍(7.15) - 한국어 강좌(40주, 주당 5개 반) - 2009 Los Angeles Film Festival 한국영화상영 지원 - 미국 여성화가 협회: 여성화가가 본 이민생활 전시회 - 미네소타 한국문화주간 "Passport to Korea" 행사 주관 - 한국공연예술 쇼케이스를 통해 문화홍보 설날맞이 우리 국악 한마당(1.23), 한국의 노래(2.6), Soul of Korea(4.30), 비보이 배틀(7.31) 등 -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동포응원전 지원(3.15~23) - LA 세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동포응원전 지원(3.23~29)
---------------------------------------------------------------------------------------------------------------------------------------------------------------------------------------------------------------------------------	------------------------------------------------------------------------------------------------------------------------------------------------------------------------------------------------------------------------------------------------------------------------------------------------------------------------------------------------------------------------------------------------------------------------------------------------------------------------------------------

□ 해외문화원 예산현황

2009년도 세입예산은 35,500천원이 편성되었다. 세입액은 기타 경상이전수입 275,410천원과 간행물 판매 및 기타 잡수입 50,037천원으로 예산비 대비 776%가 징수되었다. 이러한 세입액의 증가는 2009년 5월 해외문화원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국외 지출경비 잔액 등이 반납되었기 때문이다. 세출예산은 해외문화원 운영 예산이 이용되어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 대비 173억이 증가되었으며, 관광기금은 354억 원이 순증되었다. 세출예산 집행액은 일반회계 33,547,642천원으로서 집행율은 98%이고 불용액은 604,896천원이며, 관광기금은 30,275,000천원이 집행되어 집행율은 85.6%이고, 불용액은 5,097,000천원이다.

〈표 3-4〉 해외문화원 예산 현황(2008~2009)

(단위:천원)

구분		'08 예산	'09 예산	증 감	증감률 %
세입	합계	25,500	35,500	▲ 10,000	39.2
	경상이전수입	20,000	30,000	▲ 10,000	50.0
	기타 잡수입	5,500	5,500	-	-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세입징수	합계	15,980	275,410	▲ 111,357	696.9
	경상이전수입	11,658	225,373	▲ 115,158	987.8
	기타 접수입	4,322	50,037	▲ 45,715	86.3
세출	합계	16,883,641	69,585,862	52,702,271	312.1
	일반회계	16,883,641	34,213,862	▲ 17,330,221	102.6
	관광기금	-	35,372,000	▲ 35,372,000	순증

□ 코리아센터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원 운영과 함께, 다양한 한국문화 수요에 맞춰 새로운 개념의 ‘코리아센터’를 추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문화원을 확대·개편하고 그 주변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등을 입주시켜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다.

최초의 해외 코리아센터인 ‘동경코리아센터’가 2009년 6월에 개원하였다. 동센터는 신주쿠 대로변에 위치해 있으며, 300석 규모의 공연장과 다목적 전시실, 도서관, 사랑방과 전통정원 등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문화예술·관광·문화콘텐츠 및 체육교류 등의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연장 및 체험실, 강의실, 창작스튜디오 등의 시설이 마련된 ‘뉴욕코리아센터’를 2012년에 개원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코리아센터는 LA(2006.9), 북경(2007.3), 상해(2007.7), 동경(2009.6) 등 총4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한류의 지속 확산을 위한 해외진출을 기본으로 하면서, 동시에 전통·민족문화의 세계화·韓스타일 해외진출 및 온라인 정보서비스 강화를 집중 추진하여 기존 문화원 운영보다 한 단계 높은 고객지향의 문화관광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2 _ 계기별, 권역별 문화교류

1) 일회적·획일적 문화교류 탈피

문화체육관광부는 그 동안의 문화교류사업이 일회적·단발적으로 추진될 뿐만 아니라, 내용적 측면에서도 국립단체 중심의 전통공연이 대부분이라는 대외적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되는 종합적인 문화행사를

제3장 국내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교류업무에 관한 규정」(2008.11.13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8호)를 제정하여 단 년도 회계주의의 한계로 인한 교류업무 관행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해외 유수의 공연·전시장에서 치밀하게 준비된 문화교류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최소 2~3년 전에 업무가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는 예산이 확정되는 당해 연도 초에 사업이 준비되다 보니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고 집중적인 문화소개행사가 이루어지기도 힘들었다.

동 규정에서는 문화교류방향, 권역별 문화교류 중점사항을 제시한 「문화교류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기관에서 3년 단위의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이를 국제교류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각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이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기적, 내용적 측면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3년간의 문화교류사업에 대해 사전에 장소대관, 아티스트 섭외 및 홍보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2010~2012년 국제교류계획

□ 기본방향

- 상호주의적 쌍방향 교류 추진 (양국 합의에 의한 추진)
- 다양한 문화권에 대한 이해수준 제고 지향 (문화 수용적 프로그램 확대)
- 수교행사 등 계기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적 문화행사(예술, 체육, 관광 등) 지향

〈표 3-5〉 2010~2012년 문화교류 집중 주요계기

연도	주요계기
2010	- 수교기념: 러시아(20주년), 말련(50주년), 스페인(60주년), 나이지리아(30주년) - 국제행사: 남아공(월드컵, 문화원)
2011	- 수교기념: 네덜란드, 호주(50주년) - 국제행사: 미국(뉴욕 코리아센터 개원), 멕시코(세르반티노 페스티벌 주빈국)
2012	- 수교기념: 이스라엘·모로코·사우디(50주년), 베트남(20주년)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 권역별 기본방향

- 유럽·미주지역: 선택과 집중 (6개월 내 프로그램 집중배치)
 - 전 세계 문화교류의 중심지역인 서유럽, 북미지역은 일회적·산발적 행사로 문화홍보 효과 제고에 한계 ⇒ 주요계기 관련 특정국가에서 6개월 이내 종합적인 프로그램 구성 및 홍보
- 중동·아프리카: 점진적 교류확대를 통한 기반 확보
 -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교류협력 기반이 취약하여 상호이해가 부족했던 지역 ⇒ 동 지역문화의 능동적 수용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제고하고, 문화를 통한 우호증진 기반 마련
 - 그 동안의 교류가 미흡했고, 전통 있는 현지 문화를 감안하여 단계별로 상호 호혜적인 문화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
- 동남아 지역: 상호주의에 입각한 쌍방향 문화교류
 - 가요, 드라마, 영화 등의 수요확산에 따른 일방적 문화홍보로 일부 반한감정 야기 등 문제 발생 ⇒ ASEAN+3, 동남아 주요국과의 수교기념을 계기로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쌍방향 문화교류 프로그램 대폭 확충
- 동북아(중국·일본): 상시적 문화교류협력 체계 구축
 - 오랜 교류의 역사와 지리적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 등 일부분에 한정 ⇒ 한·중·일 문화(관광)회의 중심으로 문화교류의 양질의 폭 확대

〈표 3-6〉 주요문화행사 추진현황(2007~2009)

연도	행사명	주요내용
2007	2007 한·중 교류의 해	- 양국간 교환문화프로그램 - 합동문화공연 개최 - 한국 '청' / 중국 '백사' 교환공연 - 15개의 공연·전시 교환 사업
	'한·터키 우정의 해'	- 양국의 국립극장에서 양국의 대표 문화행사 진행(3.8) - 앙카라국제영화제(4.12~22), 전주국제영화제(4.26~5.4) 상호참가 - 미술 교류전시 및 패션교류전 - 이스탄불 세계 시인 축전(5.14~21)

제3장 국내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 보드룸 국제 무용 페스티벌(8.17)
2008	‘2008 북경에서 만나요 (Meet in Beijing)’ - ‘한국공연주간’	- ‘한국 전통음악과 춤’(국립국악원) - ‘천생연분’, ‘공길전’(국립오페라단) - 현대연극: ‘청춘예찬’, ‘보이책’, ‘레이디맥베스’ - 베이징 올림픽 공식 문화행사 초청작 ‘천무’
	‘벨기에 한국 페스티벌’ (10.8~2009.2.28)	- ‘네줄기 강물이 흐르네’(국립관현악단) - 불교미술특별전 - 백남준 ‘백팔번뇌’, 김수자 ‘연등’, 배병우 ‘불교건축 사진전 및 소나무전’ - ‘종묘제례악’(국립국악원), ‘무형문화재공연’ (문화재청) 등
2009	‘한일축제 한마당’ (9.19~21)	- 서울·동경 동시 개최 - ‘한국김치 페스티벌’ - 한·일 합동 문화공연 - 한·일 비보이배틀 등
	‘한국-베트남 주간(Vietnam-Korea Week)’ (10.18~25)	- ‘한-베 우정 페스티벌’(10.18) - ‘한국영화제’(10.18~21) - ‘한-베트남 우정의 사진전’(10.19~24) - 한국학 도서기증식(10.19) - 축구 친선경기(10.22) - 난타·비보이 댄스 공연(10.22,24)

다. 재정

지난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예산+기금)은 2005년 2조 1,016억원에서 2009년 2조 8,491억원으로 연평균 7.9% 증가하였다. 이중 예산은 2005년 1조 1,665억원에서 2009년 1조 6,665억원으로 9.3%, 기금은 2005년 9,351억원에서 2009년 1조 1,826억원으로 6.0% 증가하였다.

2009년 재정의 세부내용을 보면 문화예술부문은 2008년도에 비해 526억 원(5.2%) 증가한 1조 1,271억 원이며, 이는 주로 문화콘텐츠진흥,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연구개발), 부산영상센터 건립, 기무사 부지매입,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국가브랜드위원회 신설 및 운영,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건립, 문화 중심도시 조성 기반사업 등이 증가한데 기인하였다.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관광부문은 2008년도에 비해 1,182억원(15.2%) 증가한 8,948억 원이며, 주로 문화 관광자원 개발,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지리산권 관광개발,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관광안내체계구축 지원,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등의 사업이 증가하였다.

체육부문은 2008년도 대비 872억원(16.4%) 증가한 6,176억원으로 주로 2011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지원,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지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주경기장 진출입로 확충, 학교기반 체육시설 조성, 지방체육시설 지원 등이 증가하였다.

〈표 3-7〉 문화체육관광부 최근 5년간 부문별 재정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평균 증가율
합계(지출규모)	21,016	23,073	22,660	26,354	28,491	7.9
- 예산	11,665	12,948	12,681	15,136	16,665	9.3
- 기금	9,351	10,125	9,979	11,218	11,826	6.0
문화체육관광부소관	21,016	23,073	22,660	26,354	28,491	7.9
- 문화예술부문	9,479	10,552	9,440	10,709	11,271	4.4
- 관광부문	6,297	6,381	6,649	7,766	8,948	9.2
- 체육부문	3,376	4,090	4,419	5,304	6,176	16.3
- 문화 및 관광 일반부문	1,864	2,050	2,152	2,575	2,096	3.0

2000년대 들어서면서 주40시간 근무제 및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여가수요 팽창에 따라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 및 사회문화서비스 확대 등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나, 정부예산대비 점유율은 1%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8〉 문화체육관광부 최근 5년간 정부재정대비 재정추이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평균 증가율
점유율(A/B)	1.00	0.98	0.97	1.02	0.94	-

제3장 국내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문화체육관광부 재정(A)	21,016	23,073	22,660	26,354	28,491	7.9
정부재정(B)	2,095,980	2,347,066	2,336,745	2,571,658	3,017,527	9.5

(단위: 억원, %)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지출 중, 국제교류업무를 위한 지출 내용은 ①해외문화원 운영 및 사업비 ②국가브랜드 및 이미지 홍보 ③계기별 수교기념행사 등이 있다.

이러한 사업별 지출은 2009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0년도 전체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대비 점유율은 1%도 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각각의 사업의 지출추이는 다음과 같다.

〈표 3-9〉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교류업무 지출추이(2009~2010)

(단위: 억원, %)

사업내용	2009	2010	증감	2010년 점유율
해외문화원 운영 및 사업비 : 기존 16개 문화원 운영 및 4개소 신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호주, 필리핀 or 스페인)	179	247	▲ 68	0.87
국가브랜드 및 이미지 홍보	74	119	▲ 45	0.42
계기별 수교기념 행사	16	33	▲ 17	0.12

- 한-러 수교 20주년 기념 문화행사: 19억원
- 공식 개막식(4.5억원), 양국 합동공연·오케스트라공연·연극제 등 약 15개 문화행사(12억원), 홍보비(1억원), 기타 체재비 등(1.5억원)
- 한-스페인 수교 60주년 기념 문화행사: 4억원
- 한-말레이시아 수교 60주년 기념 문화행사: 4억원
- 한-나이지리아 수교 30주년 기념 문화행사: 3억원
- 한-몽골 수교 20주년 기념 문화행사: 3억원

UNESCO 협력	3	0	▼ 3	0
2010 유네스코예술교육세계대회 개최	5	20	▲ 15	0.07
문화동반자사업	10	10	-	0.04

- 문화동반자 초청 연수 및 공동 창작 활동: 8억원
- 사업 통합 관리 운영 지원 및 홈페이지 운영: 2억원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2. 외교통상부(문화외교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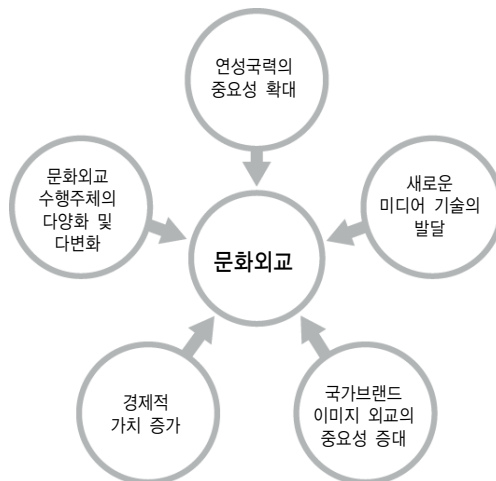
가. 개괄

20세기의 외교는 이른바 하드 파워(Hard Power)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외교의 주축이 정무, 경제, 안보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무, 경제와 함께 ‘문화’ 또한 중요한 외교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21세기에서는 전통적인 하드파워 중심의 정무외교, 경제외교만으로는 더 이상 우리의 외교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소프트파워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외교가 새로운 축이 될 것이다.

‘문화외교’란 정부기구 혹은 정부기구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 다른 나라의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예술·지식·정보·언어 및 제도 등을 수단으로 하여 상호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자국의 국가이미지 제고 등 소프트 파워를 높이기 위한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21세기에는 특히, 다양한 환경변화에 의해 문화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는데,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3-2>와 같다.

〈그림 3-2〉 문화외교 환경변화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나. 비전과 과제

□ 비전

외교통상부의 문화외교의 목표는 ‘성숙한 세계국가, 글로벌 코리아(Global Korea)’ 구현을 통한 연성국력 제고이다. 이를 위한 외교통상부 소관 9개 과제는 <표3-10>과 같다.

〈표 3-10〉 글로벌 코리아 구현을 위한 외교통상부의 9개 과제

비전	목표	추진전략	분야	과제명
배려하고 사랑받는 대한민국	OECD 평균수준의 국가브랜드 파워 달성	국가브랜드 실체 개선	국제사회 역할확대	글로벌코리아(ODA, PKO, 재외공관 국 가 브랜드 거점화)
				해외봉사단 통합브랜드
				중장기 자문단 파견
		매력적인 문화관광		해외박물관 한국관 설치 (문화부, 국제교류재단)
				해외도서관 한국자료보급 (문화부, 국제교류재단)
		이미지제고 커뮤니케이션 강화	네트워크 강화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
				한국바로알리기(교과부, 국제교류재단)
				해외주요인사초청(국제교류재단)
			글로벌 이벤트활용	‘테마형’ 문화외교사업

□ 2010년 문화외교 중점 추진 과제

- 국가브랜드 가치제고

- 재외공관의 국가브랜드 거점화
- 대(對) UNESCO 외교 강화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문화외교
 - ‘테마형’ 문화외교사업
 - 쌍방향 문화교류사업 시행
 - 그린코리아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
- 문화경쟁력 강화
 - 문화콘텐츠 수출 지원
 - 한식의 세계화
- 스포츠 외교
 - 2011 대구 육상선수권대회, 2014 인천 하계 아시안게임, 2015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지원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2020 부산 하계올림픽, 2022 FIFA 월드컵 유치 지원
 - 태권도의 세계화 지원
- 민간부분 글로벌 역량 강화
 - 외교부-지자체간 협력 강화 및 지방의 국제화 역량 강화 지원
 - 민간 외교 추진을 위한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지원
- 신아시아 외교 추진
 -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는 문화외교 강화
 - 아시아 국가와의 미래지향적 문화·학문·인적교류 확대
- 문화교류 사업의 효율성 제고
 - 문화외교 수행체제 개편
 - 외교통상부의 허브·조정 역할 강화

다. 기능과 주요 업무

□ 기능

- 문화, 체육, 관광, 청소년, 교육 분야 대외정책 수립 및 시행
- 해외 정부기관(재외공관 156개, 문화원 12개)과 국내 유관 부처간 허브로서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유기적 협조 및 조정역할 수행

□ 주요 업무

- 양자간 문화협정 체결 및 문화공동위 운영
 - 총 97개국과의 문화협정 체결
 - 2~3년 단위로 양자간 문화공동위 운영(총 34개국)
- 다자간(UNESCO 등) 문화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지원(조선왕릉 및 동의보감 등)
 - 집행이사회, 총회 등 유네스코 정규 회의 참석
 -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추진
- 문화·예술교류 지원
 - 수교기념행사 등 주요 계기별 문화행사
 - 민간 문화예술단체 해외공연 지원
 - 한류 확산 지원
- 교육 및 학술교류 지원
 - 정부초청 장학생 사업
 - 해외 한국학 및 한국어 진흥 지원
- 체육교류 지원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 유치 지원
 - 태권도 시범단 파견 협조 등
- 관광진흥 지원
 - 정부간 관광협력협정 체결 지원
 - 세계관광기구(UNWTO) 총회 참가 등 활동 지원
- 청소년교류 지원
 - 한·일 대학생 교류 사업 지원 등
 - 정부간 청소년교류약정(MOU) 체결지원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 지자체 국제화 업무
 -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 외교통상부 주관 문화행사의 지자체 개최 확대
- 한국국제교류재단 관리·감동
 - 사업 및 예산 승인, 임원 임명, 정기감사 실시 등
- 해외사적지 및 참전시설 관리
 - 국가보훈처 활동 및 해외 주요사적지 보존·관리 사업 지원
-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등록 인가·관리
 - 2010.1월 현재 비영리법인 427개(사단법인 368개, 재단법인 59개) 및 민간단체 95개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제2절 기관

1. 예술경영지원센터

가. 개괄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담당업무를 이관하여 설립한 기관으로서 주로 ‘공연예술’ 분야에 집중하여, 민간 공연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의 해외진출 사업을 위한 거점 마련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이 주된 업무이다.

이러한 지원 업무는 크게 ①전략기획, ②직접지원, ③간접지원의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먼저 ‘전략기획’이란 해외진출 거점별 권역개발, 해외주요 축제, 공연장, 기관, 마켓과의 MOU체결, 한국특집 프로그램 기획 등 국내공연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주를 이루고 있다. 둘째로 ‘직접지원’이란 항공비 및 화물비 등을 지원해주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간접지원’이라 프로모션 행사 개최, 국제행사 내 학술 행사 개최, 사전 현지 홍보 마케팅, 통합 홍보물 제작, 국제교류 컨설팅 지원 등과 같은 성격의 지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원은 대부분 일회적 성격을 띠며,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에 한정되어 있다.

나. 예술경영지원센터 사업내용

1 _ 해외진출 지원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크게 ①공연예술작품 해외전략거점 진출지원, ②전통예술 해외아트마켓 및 해외진출지원 ③전통예술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공연예술작품의 해외전략거점 지출지원

- 지원 절차 : 전략수립(권역별 리서치) → MOU체결(권역별 제휴 및 협력) → 공모 및 방문선정 → 사전지원(항공료 지원, 교육 컨설팅, 홍보 마케팅) → 현장지원(프로모션, 리셉션 및 학술행사)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이는 Center Stage Korea 통합 브랜드로 연중 진행된다.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Center Stage Korea은 한국 공연 3작품을 선정, 협력을 맺은 2~3개의 해외공연장에서 쇼케이스 공연을 올려 한국공연을 보다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실질적인 해외진출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10년에는 Center Stage Korea in Latin America, Center Stage Korea in Georgia의 지원 사업이 공모되었는데, 그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Center Stage Korea in Latin America

- 지원 신청 자격: 무용, 비언어연극 분야의 한국공연예술단체
- 지원 규모 및 선정 혜택

〈표 3-11〉 Center Stage Korea in Latin America관련 기관 및 역할

기관	역할	
예술경영 지원센터	직접 지원	· 항공료 지원 : 단체별 15,000천원~40,000천원 차등지원 (항공, 화물 우선 지원 원칙)
	간접 지원	· 홍보마케팅 지원: 언론매체 홍보, 온라인 홍보 등 · 컨설팅 지원: 교섭·계약, 진출전략 수립 등 · 프로모션 지원: 협력기관과의 공동 프로모션 행사를 통한 중남미 프리젠테이터들과의 네트워킹 도모 및 교섭성과 확보 · 행정지원: 지원확인서(비자발급 시), 법률, 행정 등
콜롬비아 내셔널극장 외 해외파트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료 · 공연장 및 기술 지원 · 숙박, 일비, 현지교통 · 현지 언론 노출 및 홍보 지원 · 현지 관객 개발/ 행사 지원 	
선정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 관객과의 대화, 워크숍 등 부대행사 참가 · 기술스태프 및 투어매니저 동반 	

— Center Stage Korea in Georgia

- 지원 신청 자격: 연극, 무용 분야의 한국공연예술단체
- 지원 규모 및 선정 혜택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표 3-12〉 Center Stage Korea in Georgia 관련 기관 및 역할

기관	역할	
예술경영 지원센터	직접 지원	· 항공료 지원: 단체별 10,000천원~30,000천원 차등지원 (국제선 항공, 화물 지원 원칙)
	간접 지원	· 홍보마케팅 지원: 언론매체 홍보, 온라인 홍보 등 · 컨설팅 지원: 교섭·계약, 진출전략 수립 등 · 프로모션 지원: 협력기관과의 공동 프로모션 행사를 통하여 해외 공연예술관계자 네트워킹 도모 및 교섭성과 확보 · 행정지원: 지원확인서(비자발급 시), 법률, 행정 등
트빌리시 국제연극제	· 공연료 · 공연장 및 기술 지원 · 숙박, 일비, 현지교통 · 현지 언론 노출 및 홍보 지원 · 현지 관객 개발/ 행사 지원 * 상기 지원내역의 세부조건은 트빌리시국제연극제와 선정단체 간 직접 협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선정단체	· 공연 · 관객과의 대화, 워크숍 등 부대행사 참가 · 기술스태프 및 투어매니저 동반	

• 지원 현황

: 2008년~2010년간의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13〉 공연예술작품 해외전락거점 진출지원 현황(2008~2010)

연도	권역	행사명
2008년	북미	APAP 쇼케이스 (JS 협력 한국 무용 쇼케이스, UTR 협력 영국 쇼케이스, AS 협력 음악 쇼케이스)
	중남미	산티아고 아이일 페스티벌
	유럽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 진출 지원
2008년	북미	APAP 쇼케이스 (JS 협력 한국 무용 쇼케이스, 라미아 협력 한국 연극 쇼케이스) 링컨 아웃 오브 도어즈 페스티벌 한국 무용 진출
	중남미	브라질 현대 무용 주간
	유럽	그루지아 트빌리시 국제연극제 진출지원
2010년	북미	Center Stage Korea in USA
	중남미	Center Stage Korea in Latin America (콜롬비아, 메데진, 브라질)
	호주	Center Stage Korea in Australia (시드니, 멜버른, 아들레이드, 다윈)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2) 전통예술 해외아트마켓 및 해외진출지원사업

전통예술 해외아트마켓 및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크게 ①주요 공연예술마켓 및 국제 음악마켓 참가지원 ②주요 공연장 및 페스티벌 진출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지원의 내용과 과정은 마켓의 성격 및 협력관계, 지원자의 성격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 주요 공연예술마켓 및 국제음악마켓 참가지원

- 지원 절차는 참가자 지원과 쇼케이스 지원에 따라 다르다.

〈그림 3-3〉 공연예술작품 해외전략거점 진출지원



• 지원 자격

해외투어가 가능한 공연예술작품 레퍼토리를 보유한 단체 소속 또는 개인 기획자/프로듀서를 대상으로 한다. 당해연도 프로그램에 따라 세부 지원 자격이 정해진다. 2010학년도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 _ 주요 공연예술마켓: 연극·무용·복합장르
- _ 국제음악마켓: 전통 및 전통에 기반을 둔 현대 음악

• 지원 현황

2010년 현재, 주요 참가지원 마켓은 〈표3-14〉와 같다.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표 3-14〉 전통예술 해외진출사업 주요 지원 시장

지역	전략거점	비고
캐나다	시나르 (CINARS, Commerce international des arts de la scene)	작수년 11월, 캐나다 개최
일본	동경아트마켓(TPAM)	매해 3월 개최
싱가포르 호주	컨버스아시아인(ConversAsians)	작수년 6월 개최
	라이브 싱가포르(Live Singapore)	매해 6월 개최
	호주 공연예술 마켓 (APAM : Australian Performing Arts Market)	작수년 개최
	호주 · 아시아 월드뮤직 엑스포 (AWME, Australasian World Music Expo)	매년 11월 개최
러시아	러시아 아트마켓 프로페이드르(PRO · TEATR)	매년 4월 개최
미국	공연예술 프리젠테이션 협회(APAP)	매년 1월 개최
미국	미국 서부 예술동맹 (WAA, Western Arts Alliance)	매년 8월 개최
유럽	월드뮤직엑스포(WOMEX, World Music Expo)	매년 10월 개최
독일	독일 국제 무용박람회(international tanzmesse nrw)	작수년 8월 개최
	재즈이헤드(Jazzhead)	매년 4월 개최
프랑스	바벨 음악 마켓(Babel Med Music)	매년 3월 개최 쇼케이스 중심의 월드뮤직 축제
브라질	메르카도 문화(Mercado Cultural)	매년 12월 개최

□ 주요 공연장 및 페스티벌 진출지원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전통예술의 전략적 해외진출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 협력기관을 중심으로 전통공연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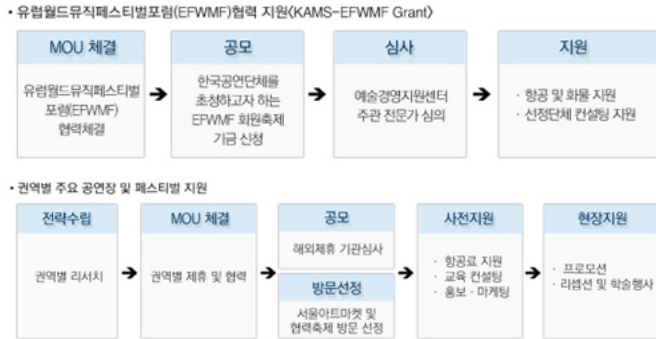
특히 2010년도부터 유럽월드뮤직페스티벌포럼(European Forum of Worldwide Music Festivals)간 협력으로 운영되는 KAMS-EFWMF Grant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KAMS-EFWMF Grant의 신청 대상은 한국 전통음악단체의 초청 교섭을 확정된 유럽월드뮤직페스티벌포럼(European Forum of Worldwide Music Festivals) 회원 사(페스티벌)이며, 지원이 확정될 경우 각 페스티벌로부터 초청을 받은 한국 공연예술 단체(예술가)에게 항공 및 화물운송비가 지원된다.

- 지원 절차는 유럽월드뮤직페스티벌포럼 협력 지원과 권역별 주요 공연장 및 페스티벌 지원에 따라 다르다.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그림 3-4〉 공연예술작품 해외전락거점 진출지원



3) 전통예술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전통예술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프로그램은 전통예술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우수한 전통예술의 해외 보급 및 확산하고 전통예술 전문가에게 해외문화 체험 및 예술 활동 기회 제공함으로써 우수 전통예술 전문가 육성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이다.

□ 지원 절차

:전략수립(권역별 리서치) → MOU체결 (권역별 제휴 및 협력) → 공모(해외심사) → 사전지원(항공비 및 체재비) → 평가 및 사후관리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다른 사업과는 달리 사후평가가 진행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또한 세부지원내용은 지원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가지며, 현재 협력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15〉 전통예술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협력기관

지역	협력기관
대만 (타이베이)	타이베이 아티스트 빌리지, 타이베이 국립예술대학
독일 (베를린)	우파브릭, 글로벌 뮤직 아카데미
브라질 (상파울로 외)	메르까도 쿨트랄, Auditorio Ibirapuera, Santander Cultural, Casa do Nucleo, Bongar
미국 (뉴욕)	월드뮤직 인스티튜트, 북미권역 9개 대학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2 _ 글로벌 역량강화

글로벌역량강화는 공연예술계의 국제협력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외 주요 공연예술 조직과의 협력 사업을 개발·발굴 지원하여, 우리 공연예술계의 국제 기획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분야별 해외 관련기관과의 안정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 교류를 통한 공연예술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은 크게 ①국제협력 우수프로젝트 발굴·지원사업 ②해외 기관 공동 협력 사업(Connections)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각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제협력 우수프로젝트 발굴·지원 사업

□ 페스티벌 봄, The KVS(벨기에)

: 〈KVS-벨기에 왕립극장과 페스티벌 봄의 장기적 쌍방 교류의 틀 짜기〉

□ 극단 사다리, Unicorn Theatre(영국), KIJIMUNA FESTA(일본)

: 〈한-영-일 Baby Drama 국제협력 프로젝트〉

□ 서울국제공연예술제, Inter-University Center for Dance Berlin(독일), Int'l Center for Danced and Movement Art(독일)

: 〈신진 무용가 발굴육성을 위한 국제예술교류프로젝트〉

2) Connections: 해외 기관 공동 협력 사업

□ 2010 Korea-UK Connection

본 사업은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영국의 비지팅 아츠(Visiting Arts) 공동 주관 사업으로 양국 공연예술 프로듀서의 국제협력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에 필요한 리서치 연구 등을 지원한다.

- 일정별 사업내용

- 2010년 5월~7월: 한-영 참가 프로듀서 10인 공모과정을 통해 선정 (기관 공동심사)
- 2010년 8월: 영국 리서치 프로그램 진행,

제3장 국내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 한국 프로듀서 5인들의 영국 리서치 통해 사업 파트너 물색
- 2010년 10월: 한국리서치 프로그램 진행,
- 영국 프로듀서 5인들의 한국 리서치 통해 사업 파트너 물색
- 2010년 11월~12월: 후속지원(참가자의 제안 프로젝트 중 우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기획개발비, 프로젝트 실행비 등 추가 지원)
- 지원내용: 리서치 비용(항공비, 체재비, 리서치운영비 등)및 리서치 컨설팅

□ 2010 Korea-Finland Connection

이 사업은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핀란드 댄스인포의 공동 주관 사업으로 양국 무용기반 공연예술 전문가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협력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에 필요한 리서치 연구 등을 지원한다.

- 일정별 사업내용
 - 2010년 6월~7월: 공모를 통해 한-핀 참가자 14인 선정 (기관 공동심사)
 - 2010년 8월~9월: 한-핀 참가자 1:1 매칭 멘토링 및 온라인 사전 교류
 - 2010년 10월: 교류 프로그램 진행(핀란드 참가자의 한국 방문 기간 중 상호 교류 및 리서치 진행)
 - 2010년 11월~12월: 후속지원(참가자의 제안 프로젝트 중 우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기획개발비, 프로젝트 실행비 등 추가 지원)
- 지원내용: 리서치 비용(항공비, 체재비, 리서치운영비 등)및 리서치 컨설팅

□ 2010 Korea-USA Connection

본 사업은 예술경영지원센터와 미국의 전미공연예술네트워크 주관 사업으로 양국 공연예술 창작공간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 개발 사업이다. 2010년도에는 사업 1단계로서 한-미 공연예술에 대한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글로벌 기획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창작공간 간 리서치 수행을 지원한다.

- 일정별 사업내용
 - 2010년 5 ~7월: 한국 사업실행위원회 구성

제3장 국내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 2010년 10월: 미국 코디네이터 한국 방문 리서치
- 2010년 12월: 한국 코디네이터 미국 방문 리서치
- 2010년 12월~2월: 사업 후속 방안 논의

3 _ 지식정보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2010년에 오픈한 포털사이트 '더아프로' <http://theApro.kr>'는 공연예술 국제교류를 위한 온라인 아카이브이자 플랫폼이다. 본 사이트는 국제교류에 관심이 있는 한국의 공연예술 관계자들을 위하여 해외 공연예술 정보로 구성된 국문사이트, 한국 공연예술에 관심 있는 해외 관계자들을 위하여 한국 공연예술을 소개하는 영문 사이트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센터는 최신의 정보와 양질의 콘텐츠 제공을 위하여 국내외 예술관련 기관, 매체들과 협력하고 있는데, 그 협력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5〉 The APRO 국내외 협력기관



4 _ 지식정보서울아트마켓 (PAMS)

□ 목적 및 기획방향

서울아트마켓(PAMS)은 국내외 공연예술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상호간의 비전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및 정보를 교류하여, 한국 공연예술의 국내외 교류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이다.

200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창설 및 개최된 이래 매년 10월 서울 시내 공연장에서 개최되며, 쇼케이스 및 부스전시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공연예술 작품과 기관, 단체를 홍보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 프로그램

서울아트마켓은 일본의 동경예술견본시를 모델로 삼은 쇼케이스형 아트마켓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른 쇼케이스형 아트마켓의 기본 형태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은 크게 국내외 쇼케이스, 부스전시, 학술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네트워킹 행사, PAMS OFF, 부대행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각각의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설명한 표이다.

〈표 3-16〉 서울아트마켓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명	세 부 내 용	
쇼케이스	국내	PAMS Choice 국내에서 창작 발표된 작품 중 매년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우수 작품의 공식 쇼케이스
	해외	International Showcase 해외 주요 아트마켓 및 해외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추천된 해외 공연예술 작품의 쇼케이스
부스전시	국내외 공연예술단체 홍보 마케팅 부스전시	
학술 및 정보제공	테마세션: 창작에서 유통까지 - 주제포럼 - PT-LIP(Looking for International Partners, 국제협력 파트너 찾기)	
	포커스세션 - 2006 아시아, 2007 유럽, 2008 중남미, 2009 북미, 2010 노르딕	
네트워킹행사	스피드데이팅: 국내외 주요 델리게이트와의 1:1 미팅 (공연장, 축제, 기획·제작사)	
	라운드테이블: 권역(국가)별 델리게이트와의 간담회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중남미)	
	런치미팅 및 PAMS Night	
	한국·해외 공연예술전문가 네트워크 및 교육 프로그램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PAMS OFF	팸스초이스 외에 다양한 한국 공연예술의 흐름을 소개하기 위한 오프 쇼케이스(Off Showcase)
부대행사	전야리셉션, 개막식 및 개막리셉션, 폐막리셉션 등

□ 성과분석 및 정리

- 서울아트마켓은 2005년 1회 개최 이후, 국내외 참가자 및 해외진출 교섭 성과 등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 특히, 제1회 아트마켓에서 국내참가자의 7%정도에 불과하던 해외참가자의 비율은 2009년 10%가 넘었으며, 해외진출 선정작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 이러한 흐름을 통해, 서울아트마켓이 단기간 국제아트마켓으로서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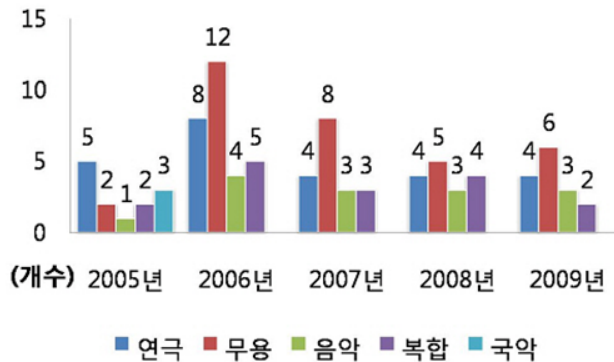
〈표 3-17〉 2005~2010년 서울아트마켓 개최개요

	2005년 (1회)	2006년 (2회)	2007년 (3회)	2008년 (4회)	2009년 (5회)	2010년 (6회, 예정)
기간	10.6~8 (3일간)	10.11~14 (4일간)	10.9~14 (6일간)	10.7~10 (4일간)	10.12~16 (5일간)	10.11~15 (5일간)
장소	국립극장	아르코미술관, 아르코예술극장	한국국제교류재단 단문화센터, 아르코예술극장, 국립중앙박물관	세종문화회관, 명동아트센터, KT아트홀	국립극장	국립극장
PAMS Choice	13개	29개	18개	16개	15개	15개 내외
부스참가	53개	82개	79개	78개	85개	80개 내외
총 참가자	총 1,452명	총 1,696명	총 1,821명	총 1,840명	총 1,505명	총 1,500명
국내참가자	1,358명	1,585명	1,691명	1,696명	1,359명	1,350여명
해외참가자 (국가)	94명 (22개국)	111명 (29개국)	130명 (36개국)	144명 (42개국)	146명 (44개국)	150여명
PAMS Choice 해외진출 교섭성과	-	10작품 14건 (05~06년 선정작 42개)	26작품 86개 (05~07년 선정작 60개)	34작품 78건 (05년~08년 선정작 76개)	28작품 106건 (05~09년 선정작 91개)	-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팝스 초이스 또한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장르에 균형이 맞춰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2005년~2010년(예정) 서울아트마켓의 개요 및 장르별 팝스 초이스 개수이다.

〈그림 3-6〉 장르별 팝스 초이스 개수(2005~2009)



2. 국제교류재단

가. 개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외교통상부 산하기간으로서 외교통상부의 국제교류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국제교류재단은 문화예술의 국제교류를 통해 한국과 외국간의 이해 및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교류사업을 주관 또는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특히, 수교기념 등 국가간 계기성 사업과 교류가 미진했던 지역과의 문화교류를 더욱 활발히 추진하였고, 정부의 외교활동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문화외교 행사를 기획·개최하였다.

또한, 재외공관과 협력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예술인을 활용한 문화사업을 신설하고, 국내외 민간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다양한 문화교류활동을 지원하는 등 한국문화의 세계적 확산과 문화한국으로서 이미지 강화에 기여하였다.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나. 주요사업

1 _ 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

국제교류재단은 우리 국민과 주한 외국인들이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를 설립하였다. 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의 설립목적은 크게 ①우리 국민의 다양한 문화교류 증대 ②외국인들에게 한국문화 이해 제고 ③쌍방향 문화 교류를 통한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 제고로 나눌 수 있다. 각 목적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 3-18〉 국제교류재단 설립 목적 및 세부내용

설립 목적	우리 국민의 다양한 문화교류 증대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화 이해 제고	쌍방향 문화 교류를 통한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 제고
세부 내용	타 문화 소개를 통한 우리 국민들의 국제 이해 증진	외국인들의 한국문화 이해를 위한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 제공	대표적인 쌍방향 국제문화 교류기관으로 국제사회에서 협력증진 기여
	한국 내 자체 문화원이 없는 국가들의 문화소개 활성화 기여	외국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문화 다양성 인식 제고를 통한 국제 우호 증진 기여

2 _ 해외박물관 지원

□ 해외박물관 한국실 설치지원 및 한국문화 소개활동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한국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알리는 항구적인 공간을 마련하고자 세계 유수의 박물관을 대상으로 한국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실 설치 지원 사업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관련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2009년 기준, 한국문화교류재단의 지원 하에 해외 박물관에 설치된 한국실은 7개국 19개처이다. 〈표3-19〉, 〈표3-20〉, 〈표3-21〉은 2007년도 이후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통해 개최된 각종 사업을 나타내는 표들이다.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표 3-19〉 2007년 해외박물관 관련 사업

번호	사업명	개요
1	미국 미시간대 박물관 한국관 설치지원	내용: 미시간대학교 박물관 한국실 설치 2차년도 지원 한국실규모: 약 120m ² 한국실개관: 2009년
2	미국 미스소니언 국립자연사박물관 한국실 개관	내용: 스미소니언 국립자연사박물관 한국실 개관(6월 8일) 기념 공식 개관식, 개관 기념 강연, 어린이 그림축제 지원 기간: 2007.5.5~6.7 주최: 스미소니언 국립자연사박물관 등 한국실규모: 약 93m ²
3	미국 스미소니언 프리어갤러리 한국영화축제	내용: 한국영화 상영, 한국감독 초청 강연 지원 기간: 2007.5.4~6.28 장소: 프리어갤러리, AR Silver Theater 등 주최: 프리어갤러리
4	미국 휴스턴미술관 한국실 개관	내용: 휴스턴미술관 한국실 개관(12월 8일) 기념 인숙선 공연단 공연 지원 기간: 2007.12.7 주최: 휴스턴미술관 한국실규모: 210m ²
5	그리스 국립아시아미술 박물관 한국미술전	내용: 그리스 국립아시아미술박물관에서 고려대 박물관 소장 한국회화 26점 대여 전시 개최 기간: 2007.4.1~8.31 장소: 그리스 국립아시아미술박물관 주최: 한국국제교류재단, 그리스 국립아시아미술박물관, 고려대 박물관
6	체코 국립미술관 한국미술전	내용: 체코 국립미술관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국유물 102점 및 자체 한국유물 20여점 전시 개최 기간: 2007.6.16~2009.5.17 장소: 체코 국립미술관 주최: 한국국제교류재단, 체코 국립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7	도미니카 국립기념관 한국공간 설치지원	내용: 도미니카 콜럼버스 국립기념관 한국유물 전시공간 개선 및 확충 (재개관 9월 13일) 기간: 2006년~2007년 규모: 약 33m ²
8	러시아 동방학연구소 박물관 한국공간 설치지원	내용: 러시아 상티페테르부르크 동방학연구소 박물관 한국코너 설치 지원 규모: 약 0.59m ² 개관예정일: 2008년

제3장 국내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9	황병기 공연단 미국박물관 순회공연	내용: 황병기 공연단의 미국 지역 주요박물관 순회공연 기간: 2007.5.30~6.7 장소: 보스턴박물관,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스미소니언 프리어갤러리, 국립자연사박물관 주최: 한국국제교류재단, Korea Society, 각 박물관
---	--------------------------	----------------------------------------------------------------------------------------------------------------------------------------------

〈표 3-20〉 2008년 해외박물관 관련 사업

번호	사업명	개요
1	해외박물관 한국실 현황조사	내용: 해외박물관 중 한국실 설치 검토가 필요하거나, 한국 유물 관련 전시 등 한국프로그램을 시행하려는 박물관을 대상으로 현황조사 2008년: 미국 클리브랜드 미술관, 미네소타주립대학박물관, 피츠버그대 국가관
2	중국 최치원 기념관 지원	내용: 중국 양주시 최치원 기념관 건립을 계기로 한국자료관 설치 등 지원 기간: 2009년~2011년 수혜처: 양주시 최치원 기념관 건립 준비위원회
3	LACMA 한국실 리노베이션 (아모레퍼시픽 지정기부)	내용: LACMA 한국실 리노베이션, 특히 한국전통 양식 건축을 포함한 여성관 설치에 사용하기 위하여 아모레퍼시픽의 지정기부금(US\$300,000) 전달 기부자: (주)아모레퍼시픽 수혜처: 미국 로스앤젤레스카운티 박물관(LACMA)
4	미국 스미소니언 프리어갤러리 한국영화축제	내용: 한국영화 상영, 한국감독 초청 강연 지원 기간: 2008.4.4~6.12 장소: 프리어갤러리, AFI Silver Teater 등 주최: 프리어갤러리
5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 한국섬유미술전	내용: 한국작가 6명의 섬유미술작품 전시 기간: 2008.3.18~11.24 장소: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 한국실 주최: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
6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 한복행사개최	내용: 샌프란시스코 동양박물관에서 한복패션쇼 및 전통혼례절차 시연회 기간: 2009.10.8~10.9 장소: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박물관
7	일본민예관 초청 싯대박물관	내용: 한국의 열쇄패, 빗장, 전통자물쇠 및 목가구 등을 전시 기간: 2009.9.9~11.20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소장유물전	장소: 일본 동경 민예관 주최: 재단법인 일본민예관, 싯대박물관
--	-------	----------------------------------------

〈표 3-21〉 2009년 해외박물관 관련 사업

번호	사업명	개요
1	미국 클리블랜드 미술관 한국실 신규 설치	내용: 새로 확장하는 박물관 2층에 130m ² 규모로 한국실 신규 설치 개관예정: 2013년
2	미국 버지니아미술관 한국실 신규 설치	내용: 박물관 동아시아갤러리 확장 · 개보수의 일환으로 상설 한국실 설치 추진 개관예정: 2010년
3	러시아 국립동양박물관 한국실 개보수	내용: 1990년에 설치한 한국실 개보수 지원 개관예정: 2010년
4	스웨덴 동아시아박물관 한국실 설치 지원	내용: 박물관내 독립한국실 설치 지원 개관예정: 2011년
5	이탈리아 국립동양예술박물관 한국실 설치 지원	내용: 동아시아실 확대 계기에 독립 한국실 설치를 위한 전시대 제작비용 지원 개관예정: 2010년
6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조선전기 미술전	내용: 15-16세기 조선 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회화, 불교미술, 도자, 금속공예, 칠기, 조각 등 해외 및 국내기관 소장품 44점을 선보여 해외에 조선 전기 미술을 집중적으로 소개 기간: 2009.3.17~6.21
7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미술관 · 휴스턴미술관 한국현대미술전	내용: 8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한국현대미술가 12명(박이소, 최정화, 김홍석, 전준호, 김범, 김수자, 구정아, 임민욱, 서도호, 박주연, 양혜규, 장영혜 중공업)을 통해 한국 현대미술의 역량과 성과를 해외 주요 미술관을 통해 본격적으로 소개 기간(장소): 2009.6.28~9.20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미술관) 2009.11.22~2010.2.14 (휴스턴미술관)
8	미국 스미소니언 프리어새클러 갤러리 한국영화축제	내용: 다양한 장르와 시대를 넘나드는 우리 영화 19편을 엄선 · 상영 하였고,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의 임순례 감독, “미쓰 홍당무”의 이경미 감독 등을 초청하여 토론회 개최 기간: 2009.4.17~6.9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9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아트갤러리 조선후기회화전	내용: 이우환 화백이 프랑스 기메박물관에 기탁한 수준 높은 17-18세기 조선 회화 · 병풍 작품 40여점을 시드니 현지에서 소개 기간: 2009.3.5~6.8
10	체코국립미술관 한국미술전 연장 개최	내용: 2010년 양국 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2007-2009년 추진한 체코 국립미술관 한국미술전 기간을 연장.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여한 우리 유물 30건 57점을 시내중심부로 이전하는 새 아시아관에서 전시 기간(장소): 2007.6~2009.6 (즈브라슬라브성) 2010.6~2011.5 (킨스키궁) 주최: 한국국제교류재단, 체코국립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 해외박물관 큐레이터에 대한 지원

해외박물관의 한국실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안내할 수 있는 큐레이터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해외미술관에서는 중국실, 일본실 또는 아시아실을 담당하는 큐레이터가 한국실을 겸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외박물관의 한국실을 통해 한국의 올바른 문화와 전통을 전파하고 한국실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1999년부터 해외박물관 한국실 담당 큐레이터를 초청,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표3-22〉는 1999년 이후에 열린 ‘해외박물관 큐레이터 워크숍’의 간략한 개요들이다.

〈표 3-22〉 해외박물관 큐레이터 워크숍 개요(1999-2010)

개최년도	주제	기간	참가자	비고
1999 (1회)	한국의 고미술	9.6~9.17 (11박 12일)	9개국 23명	한국미술의 전반을 소개하는 개론적인 성격
2000 (2회)	한국의 회화	8.28~9.8 (11박 12일)	11개국 28명	한국미술의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
2001 (3회)	한국의 도자기	9.10~22 (12박 13일)	12개국 34명	
2002 (4회)	한국의 불교미술	9.3~13 (10박 11일)	7개국 22명	

제3장 국내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2003 (5회)	한국의 공예	10.22~11.1 (10박 11일)	9개국 27명	
2004 (6회)	한국의 고분출토 유물	10.4~14 (10박 11일)	12개국 30명	
2005 (7회)	한국의 건축	10.17~28 (11박 12일)	11개국 29명	
2006 (8회)	한국의 민속	10.10~20 (10박 11일)	11개국 27명	
2007 (9회)	한국 근현대 미술	10.4~12 (8박 9일)	12개국 34명	
2008 (10회)	한국의 왕실문화	9.21~10.2 (11박 12일)	15개국 42명	
2009 (11회)	한·중·일 교류 속의 한국회화	10.26~11.4 (9박 10일)	12개국 36명	
2010(예정) (12회)	동아시아에 있어서 한국 불교미술의 정체성	10.26~11.4 (9박 10일)	40여명	

3. UNESCO 한국위원회

가. 주요업무

유네스코는 문화 다양성 증진 및 문화유산 보호와 진흥 및 지속 가능한 관광사업 등을 위해 여러 국제기구, NGO 및 관련단체들과 다양한 형태의 사업협력 및 정보교류 활동을 한다. 이러한 교류활동은 OECD, DAC 등과 같은 해외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문화재청,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 ICOMOS 한국위원회 등 국내의 다양한 문화 분야 기관 및 단체와도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UNESCO 한국위원회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첫째, 우리의 전통문화를 유네스코 지정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세계화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 둘째로, 문화예술교육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5월, ‘제2회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나.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UNESCO 한국위원회는 문화예술교육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0년 5월 25일-28일에 서울 코엑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 주최로 '제2회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를 개최하였다.

□ 대회의 의의

제2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는 제1차 리스본 대회의 정신과 성과를 계승하는 한편, 예술교육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기여'를 강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문화적 다양성, 평화의 공존 등 예술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를 다룬 학술 행사이자 문화행사였다.

이번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를 통해 한국의 정책 우수사례가 세계 각국에 소개되었고 예술교육 발전에 있어 한국의 기여를 국제사회에 알림으로써 선도적 위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며, 문화국가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대회 주요 성과

- 본 대회에는 국제적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대규모 학술대회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 본 대회는 「서울 아젠다」를 채택하여 제2차 세계 대회의 역사성을 확보하였다.
-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는 본 대회를 통하여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및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 본 대회는 다양한 전문가들을 발굴하고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였다.
- 본 대회는 학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품격 있는 행사였다.

4. 한-ASEAN CENTER

가. 개괄

한-아세안 센터는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 회원국 간 무역확대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및 투자촉진,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를 통한 한국과 아세안간의 교류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2009년 3월에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한-아세안 센터 회원국은 한국과 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실 'ASEAN HALL'에서 ASEAN의 무역상품 전시 및 사회, 문화, 예술 및 관광을 소개하는 전시, 세미나, 강좌 등 ASEAN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나. 주요사업

한-아세안 센터의 업무는 크게 ①무역 및 투자 사업(Trade and Investment), ②문화 관광 사업(Culture and Tourism), 센터 내에서의 ③홍보 및 정보제공서비스 사업(Public Relations and Information Service)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업무 중 ②문화 관광 사업에 집중하여, 세부 업무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한-아세안 센터의 문화 관광 사업은 ASEAN Tourism Promotion, Technical Cooperation/Capacity Building, Cultural Exchanges로 세분화 할 수 있는데, 각각의 사업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 3-23〉 한-아세안 센터의 문화 관광 프로그램

주요 사업	세부 프로그램
ASEAN Tourism Promo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EAN Culture and Tourism Fair - Publication of ASEAN Tourism Booklets - Lecture Series: Backpacking in ASEAN - Buying Mission to ASEAN Tourism Forum
Technical Cooperation/ Capacity Buil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EAN Tourism HRD Program
Cultural Exchang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EAN-Korea Contemporary Photo and Media Exhibition - ASEAN Awareness Program (School Tour) - Cultural Program Bravo! ASEAN in Korea Jump Performance

제3장 국내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다. 주요현황

한-아세안센터의 주요 교류 업무는 무역 및 투자와 문화 관광 사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각각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기회와 한계점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 무역 및 투자사업

한국과 ASEAN의 무역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타 지역/국가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 유럽, 중국, 일본에 치중되어 있던 무역이 ASEAN 그리고 그 외의 국가와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이 한-ASEAN 센터의 설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2000년대 이후, 현저하게 변화했다는 측면에서 한-ASEAN 센터 회원국 간의 무역에 있어 센터의 영향력 및 역할에 대해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이다.

□ 문화 관광 사업

한-ASEAN센터의 문화 관광사업은 특히 관광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센터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 한국과 ASEAN 국가 간의 상호 이해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관광사업의 증진을 꾀하고자 한다.

관광사업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24〉 Tourist arrivals in ASEAN

(단위:천명)

국가	2006			2007			2008		
	Intra-ASEAN	Extra-ASEAN	총계	Intra-ASEAN	Extra-ASEAN	총계	Intra-ASEAN	Extra-ASEAN	총계
Brunei Darussalam	69	89	158	85	94	179	98	128	226
Cambodia	329	1372	1700	410	1605	2015	553	1573	2126
Indonesia	2307	2564	4871	1523	3982	5506	2775	3654	6429
Lao PDR	892	323	1215	1273	351	1624	1286	719	2005
Malaysia	13857	4615	18472	15620	4616	20236	16637	5416	22053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Myanmar	57	596	653	53	679	732	463	198	661
The Philippines	203	2485	2688	236	2856	3092	254	2885	3139
Singapore	3556	6196	9752	3725	6563	10288	3571	6545	10117
Thailand	3556	10266	13822	3756	10709	14464	4125	10472	14598
Viet Nam	572	3012	3584	661	3488	4150	516	3738	4254
ASEAN	25397	31518	56915	27341	34943	62285	30277	35329	65606

출처: 아세안사무국 (<http://www.aseansec.org/5167.htm>)

〈표 3-25〉 한국입국 관광객들의 국적

(단위:천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ASEAN	599	521	576	586	623	659	710	764	834
Japan	2,472	2,377	2,321	1,803	2,443	2,440	2,339	2,236	2,378
China	443	482	539	513	627	710	897	1,069	1,168
United States	459	427	459	422	511	531	556	587	610
Europe	452	429	504	481	498	509	535	559	592
Total	5,322	5,147	5,347	4,753	5,818	6,023	6,155	6,448	6,891

〈표 3-26〉 한국인의 해외여행 국가/지역

(단위:천명)

목적지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China	484	820	1,033	1,298	1,722	1,569	2,335	2,963	3,924	4,777	3,960
Japan	822	1,054	1,101	1,170	1,266	1,427	1,569	1,739	2,117	2,601	2,383
ASEAN	382	638	849	1,037	1,315	2,008	1,746	1,746	3,039	3,610	3,252
United States	425	571	719	670	692	679	628	628	758	806	759
Europe	171	279	369	395	440	466	537	537	-	-	-
총계	3,067	4,342	5,508	6,084	7,123	7,086	8,826	8,826	11,610	13,325	11,996

※ 2006. 6. 30 이후 출국카드작성 폐지로 행선지별 집계 불가
 2006년 이후 각 국가로의 한국인 여행객 수는 도착 국가의 통계

제3장 국내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이와 같이 관광산업에 있어서도, ASEAN 국가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는 않으나, 2000년도 이후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증가율 또는 점유율이 무역 및 투자 사업에서의 증가율 및 점유율과 비교해서 크게 뒤쳐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과 ASEAN은 경제교류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문화교류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진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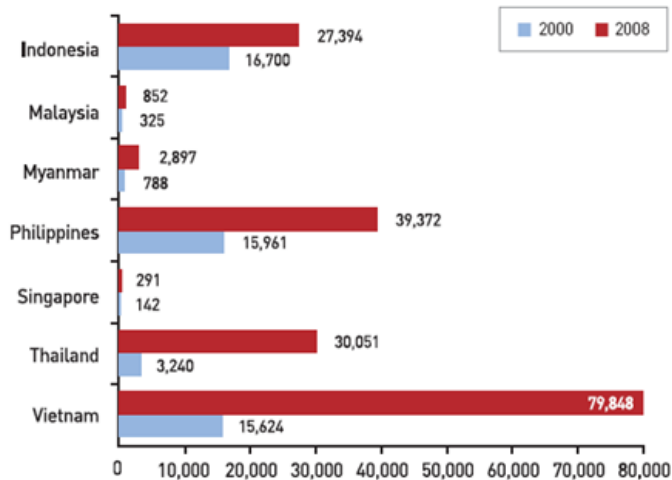
또한, ASEAN 국가들 간의 관광 또한 ASEAN 외 국가와의 관광보다 적은 수치를 보임으로써 국가들 간의 더욱더 활발한 문화관광교류가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한가지 확인 가능한 사실은 국내입국 관광객 및 한국인의 해외여행 지역이 중국과 일본지역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인데, 바로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는 한국과 ASEAN간의 경제교류를 바탕으로 한 문화교류의 확대 및 그 속에서 일본, 중국과의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주한 아세아인 등록자 변화'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의 국내외 정책에 있어 아세안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교류를 바탕으로 한 상호 이해 및 협력관계 구축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7〉 주한 아세아인 등록자 변화(2000년과 2008년)

(단위: 명)



출처: 통계청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5.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교육원

가. 개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교육원은 교육 및 인권, 기본적인 자유와 연관된 교육에 관한 유네스코 권고(1974) 및 평화, 인권, 민주주의 교육에 관한 선언 및 통합실천체계(1995)에 따라 평화의 문화를 통해 개인, 지역사회, 국가, 국제/전 지구적 시스템의 통합과 인류와 자연의 지속 가능한 관계 증진에 기여하고자 2000년에 설립된 유네스코 산하 기관이다.

나. 미션(Mission)

- 유네스코 아-태 교육원은 국제이해교육의 지역적·국제적 증진을 통하여 참여민주주의, 인권의 보호, 사회경제적 정의, 문화의 상호 존중, 생태적 지속 가능성과 갈등의 비폭력적이고 정당한 해결을 촉진한다.
- 유네스코 아-태 교육원은 국제이해교육의 목표에 동의하는 교육자나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학교와 사회에서의 국제이해교육 확산, 강화, 제도화한다.
- 유네스코 아-태 교육원은 아태지역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교육, 훈련, 연구, 커리큘럼 개발을 위하여 전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유네스코 아-태 교육원은 네트워크와 협력을 통하여 다른 지역과 나라에 있는 교육자, 정책수립자, 기관 및 공동체들과 함께 국제이해교육을 향상시키고 충족시키기 위한 지식과 정보를 교류한다.

아-태 교육원은 상기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평화의 문화에 토대가 되는 방식과 가치의 개발을 통하여 지식과 이해를 통합하는 교육학적 접근(pedagogical approach)을 강조한다. 또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비판적인 능력향상이 필수적임을 명확히 한다.

다. 주요업무

- 유네스코 아-태 교육원은 평화의 문화를 위한 국제이해교육을 진흥한다.
 - － 국제이해교육의 개념 및 역할 재정립을 통한 세계화 시대의 발전방향 모색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 관련기구 및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한 평화의 문화 담론 형성
 - 아태지역 소지역별 국제이해교육 정책 개발 및 지역연구
 - 평화의 문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 국제이해교육 학술대회 / 아태지역 교육정책 회의 /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 국제이해교육 저널
- 유네스코 아-태 교육원은 국제이해교육 확산을 위한 아태지역 회원국들의 역량강화에 도움을 준다.
- 아태지역 특성에 맞는 다차원적 시각의 국제이해교육 연수 실시
 - 아태지역 소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된 교육자료 개발
 - 아태지역 저개발국 지원을 통한 아태지역의 교육발전 도모
 - 아태지역 교원연수 / 아태 교육연수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개발 / 아태지역 전문가 워크숍
- 유네스코 아-태 교육원은 국제간 상호이해 교육 및 정보의 확산을 추구한다.
- 국제이해교육 최신 동향 및 정보자료 보급
 - 다문화 사회와 세계시민 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 e-러닝 콘텐츠 개발
 - 국제이해교육 정보자료 축적 및 멀티미디어센터의 안정적 운영
 - 상생발간 / 국제이해교육 발간 / 멀티미디어 센터 운영
- 유네스코 아-태 교육원은 국제이해교육 전문 지역기구화를 추구한다.
- 안정적인 운영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기구로의 위상 강화
 - 안정적인 운영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기구로의 위상 강화
 - 관련기구 및 전문가와의 연대강화 및 홍보 강화
 - 관련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평화교육 모델 전파
 - 국제자문위원회 / 국제이해교육 발전위원회 / 관련기구 교류 및 공동협력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6. 영화진흥위원회

가. 영화진흥위원회 기관 조직 분석

□ 설립근거

-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를 두기로 하였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개정 2008.2.29).
- 영화진흥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한 9인의 위원(상임 위원장 1인, 비상임 위원 8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선임기준 등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다.

□ 설립목적

- 영화진흥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영화에 관한 지원 역할을 위임받은 범국가 부문(Wider State Sector)의 전문기구로서,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 정부로부터 예산은 지원받지만 정책적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 ‘분권 자율기관’ (OECD의 용어)이며, 학술적으로는 준정부조직(Quango; Quasi-autonomous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진위는 정부의 관리(감독)를 받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감사를 받고 있다.
- 영화진흥위는 한국영화 산업진흥을 기관의 주된 미션으로 삼고 있으며, 세계 5대 영화강국을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영화진흥위의 정책방향은 첫째, 영화산업을 21세기 핵심 산업으로 삼는 지원체계를 구체화하며, 둘째, 산업과 문화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한 세계 5대 영화강국 도약과 동북아 문화 네트워크 가교 역할을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셋째, 영화계와 함께하는 ‘중점 추진 과제’ 설정과 이를 적극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영화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 및 부가시장 활성화, 한국영화 다양성 확보 및 공공성 확보,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확대, 영화산업 기초 인프라 강화 등을 전략목표로 하고 있다.

제3장 국내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 주요 연혁

-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였다.
 - 군사정권에서 문민정부 출범 전까지의 시기로 ‘정부 주도 규제’의 시기
 -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 위원회 출범 전까지의 과도기적인 ‘정부 주도 진흥’의 시기
 - 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 이후에서 현재에 이르는 ‘민간 주도 진흥’의 시기
- 영화진흥법이 제정된 1995년을 기점으로 기존의 규제적인 영화법이 폐기되고 새로운 진흥의 틀이 마련되었다. 이 법령에 따라 영화진흥금고가 설치되었고 장기적인 영화진흥정책의 밑그림을 마련하였다. 1997년 서울종합촬영소(현 남양주종합촬영소)가 개관하고 남산에 있던 영화진흥공사가 현재의 홍릉 사옥으로 이전하였다.
- 영화진흥사업의 근간이 되는 법과 예산 그리고 인프라 구축이 과도기적인 ‘정부 주도 진흥’의 시기에 대부분 이루어졌다. 그리고 1999년 5월 28일 1기 영화진흥위원회가 출범하였다.

〈표 3-27〉 영화진흥위원회 연혁

연혁	‘영화진흥위원회’ 주요 내용
1973.04.03	‘영화진흥공사’ 창립
1984.03.12	‘한국영화아카데미’ 설립
1997.10.11	‘영화진흥금고’ 설치
1997.11.05	‘종합촬영소’ 준공
1999.02.08	영화진흥법 개정(영화진흥위원회 구성 확정)
1999.05.28	‘영화진흥위원회’ 출범(제2의 창립)
2000.01.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개시(영화전문투자펀드 결성 지원)
2002.05.09.	국내 최초 본격 Public Access 「영상미디어센터(MediACT)」 개관
2002.05.28	제2기 영화진흥위원회 출범
2003.01.	예술영화전문상영관 「아트플러스」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 개시
2004.	KBS와 위원회 공동지원 <방송영화제작지원사업> 개시(매체융합 선도)

제3장 국내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2005.05.28	제3기 영화진흥위원회 출범
2005.09.	중소기업청 「모태펀드」와 영상전문투자조합 공동 출자
2005.09.	지자체와 위원회 공동투자 저예산영화제작지원 사업 출범
2006.04.12	예술영화전문잡지 'NEXT PLUS' 창간
2006.12.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영화발전기금 운용역할 부여
2007.07.01	영화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영화상영관 입장료 부과금 모금
2008.05.28	제4기 영화진흥위원회 출범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 주요 조직도

- 현재 영화진흥위원회의 조직은 문화부 장관이 위촉한 9인의 위원(상임 위원장 1인, 비상임 위원 8인)과 1국 4부 4센터 1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고 정관에 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기획관리부, 경영관리부, 진흥사업부, 기술사업부의 4부, 국제사업센터, 영화정책센터, 한국영화아카데미, 남양주종합촬영소의 4센터로 이루어져 있다.
-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비상임 감사 1인을 두고 있다.
- 현재의 인원은 위원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무직 직원 52명, 기술직 50명으로 총 104명이다.

□ 주요 업무

- 한국영화진흥위원회가 수행하는 영화진흥사업의 사업목적은,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 및 부가시장 활성화, 한국영화 다양성확보 및 공공성 증진, 한국영화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강화, 영상전문인력양성, 영상기술력 제고 및 영화정책 연구 강화에 있다.
- 따라서 영화진흥사업의 지원방향도 핵심 문화콘텐츠산업으로서 영화산업의 신 비즈니스모델 창출, 매체융합 환경변화에 따른 수요창출 정책비전 제시, 영상문화 향유권 확립 및 공공성 증진, 영화계와 함께하는 중점 추진과제 설정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및 추진에 있다.

- 이에 따라, 기획·개발역량 강화, 투자/출자사업, 제작지원, 유통지원, 해외진출 지원, 인적자원육성관리, 디지털시네마 R&D, 영화정책연구, 민간영화단체 역량강화지원, 남양주 종합촬영소 운영, 영화향유권 강화, 유통환경개선용자, 영화정보시스템운영 등에 예산을 분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영비법 제14조(개정 2007.1.26, 2008.6.5)」에서 정하고 있는 영진위의 주요 임무로는 다음의 업무들을 들 수 있다.
 - 영화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 영화진흥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영상제작 관련시설의 관리·운영
 - 영화발전기금의 관리·운영
 - 한국영화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 영화의 유통배급 지원
 - 디지털시네마와 관련된 영상기술의 개발과 표준 제정·보급,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 예술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
 - 영화관객의 불만 및 청원 처리
 - 영화업자의 신고 수리 및 신고증 교부
 -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 영화상영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의 운영 및 개선
 -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추진
 -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영화진흥위원회 국제교류 관련 사업

영화진흥위원회는 국제교류 관련사업으로서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사업과 국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제공동제작 활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해외진출 강화사업부터 살펴본 후,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_ 한국영화 해외진출 지원 강화

□ 사업목적

- 영화진흥위원회는 해외 주요 국제영화제 및 필름마켓을 활용한 한국영화 해외 마케팅과 해외극장 개봉을 지원하여 한국영화의 수출 제고를 위하여 노력을 경주한다.
-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 외국어 자막프린트를 제작 지원하여 한국영화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
-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인의 국제영화제 참가 기회 확대를 통한 인적교류의 활성화와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및 새로운 인재의 발굴과 양성을 도모한다.

□ 세부사업 1: 한국영화 해외판매 활동 지원

-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우수영화 외국어 자막프린트 제작지원
- 주요 국제영화제 ‘한국영화 종합홍보관 운영및’ 한국영화 특별전 ‘등 해외 네트워크 행사 개최

: 본 사업은 국내 한국영화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외세일즈사/배급사/제작사를 대상으로 한다. 먼저, 해외 주요국제영화제 진출 가능성이 높거나 기출품된 장단편 한국영화를 대상으로 자막프린트 제작비의 일부를 자동 지원한다. 또한, 주요 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를 대상으로 한국영화 출품회사, 출품작 광고·프로모션을 진행하며, “한국영화의 밤”, “한국영화 특별전 (일정규모 이상의 한국영화 감독, 배우 등 특별전 개최시 저작권 섭외, 필름프린트, 항공 등 지원)” 등 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한국영화 특별전”은 잠재 관객이 존재하는 신규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전 개최를 추진하고자 한다.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표 3-28〉 국제영화제 관련 사업 및 활동내역

행사명	기간	행사개요	활동내역
베를린국제영화제/ EFM	2010.2.11-2.22	세계3대 국제영화제/ 매년 첫 개최 필름마켓	한국영화종합홍보관 운영 “한국영화의 밤” 개최
홍콩 FILMART	2010.3.22-3.25	TV&필름마켓/영화제 및 아시아필름어워드	한국영화종합홍보관 운영
칸 국제영화제/ 마켓	2010.5.12-5.23	세계 최대 국제영화제/ 필름마켓	한국영화종합홍보관 운영 “한국영화의 밤” 개최
상해국제영화제/ 필름마트	2010.6.12-6.20	중국 최대영화제 및 유일한 필름마켓	한국영화종합홍보관 운영
로카르노국제영화제	2010.8.4-8.14	신인작가 등용/디지털 영화 중점 영화제	프로그래머 출품시사 한국영화초청시 프로모션
카를로비바리 국제영화제	2010.7.3-7.11	동유럽권 영화제 작가/예술영화 중심	한국영화초청시 프로모션
베니스 국제영화제	2010.9월중(미정)	세계3대 국제영화제	한국영화초청시 프로모션
토론토 국제영화제	2010.9.10-9.19	북미최대 영화제 북미지역 진출 교두보	AFIN 공동부스 운영 “아시아영화의 밤” 개최
산세바스찬 국제영화제	2010.9월중(미정)	스페인어권 최대영화제	한국영화 프로모션 행사
동경영화제 /TIFFCOM	2010.10월중(미정)	일본 최대 국제영화제/ 콘텐츠 마켓	한국영화 프로모션 행사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안필름마켓	2010.10월중(미정)	국내 최대 국제영화제/ 유일한 필름마켓	세일즈사 마켓참가지원 한국영화종합홍보관 운영
아메리칸 필름 마켓(AFM)	2010.11.03-10	북미지역 최대 규모 필름마켓	세일즈사 마켓참가지원 한국영화종합홍보관 운영

- 주요 필름마켓 공동세일즈 부스 운영 및 세일즈 활동 지원

: 한편, 베를린, 칸 등 각국 영화진흥기관이 대표성을 지니는 필름마켓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한국영화 공동세일즈 부스” 설치운영을 통해 한국 영화를 종합적으로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한 부스는 중소규모 해외세일즈사들의 세일즈 활동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한다.

- 1월: 클레르몽페랑 단편필름마켓
- 2월: 베를린국제영화제 EFM(European Film Market)
- 3월: 홍콩필름마트(FILMART)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 5월: 칸 국제영화제 필름마켓
- 10월: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안필름마켓
- 11월: 미국 AFM(American Film Market)
- 사업목적
 - 한국영화 해외극장개봉의 질적 수준 확대 및 해외판매 촉진
 - 해외 한국영화 배급현황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이해

□ 세부 사업 2: 한국영화 해외극장 개봉 지원

- 해외 시장에서의 한국영화 극장개봉 기회 확대 지원
- 해외 극장개봉배급 소요비용 최대 50%, 최대 1억원 범위 내 지원

: 본 사업은 한국영화 수입/배급 외국 회사(해당작품의 한국 세일즈 회사와 판권매매 계약을 맺은 상대회사로 지원신청시 한국 세일즈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함)를 대상으로 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극장개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50% 혹은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극장개봉 규모 및 홍보마케팅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본 사업은 지원이 결정된 외국회사에서 작품개봉 후 4개월 이내에 정산서류 등을 구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금을 일시 지급하는 사후지원 사업이다. 영화진흥위원회는 향후 한국영화판권 구입 해외배급사에 대한 사후지원체계도 확립하고자 한다.

〈표 3-29〉 한국영화 해외극장 개봉 지원

(단위: 백만원)

월	회차	신청접수마감	결과발표기한	지원신청대상작품	예산집행계획
1~3월	1회차	2010. 1.31	2010. 2.28	2010. 5.31까지 개봉 예정작	52
4~6월	2회차	2010. 4.30	2010. 5.31	2010. 8.31까지 개봉 예정작	152
7~9월	3회차	2010. 7.31	2010. 8.31	2010.11.30까지 개봉 예정작	152
10~12월	4회차	2010.10.30	2010.11.30	2011. 2.28까지 개봉 예정작	103
합 계					459

제3장 국내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 사업목적

-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실용적 정보 제공을 통해 한국영화 해외 진출 확대

□ 세부 사업 3: 전략지역(중국, 일본 등) 한국영화 기획 상영회 개최

- － 이 사업은 우수작품에 대한 6개 외국어 자막프린트(영어, 중국어, 일본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를 제작하는 사업이다
- － 영화진흥위원회는 본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일본 영화시장 확대를 위한 현지 기획상영회를 개최한다.
- － 기타 해외 문화원 및 학술기관의 비상업 상영회에 활용한다.

□ 세부 사업 4: 해외시장 조사 및 국제교류

- － 영화진흥위원회는 주요지역 사무소(미국, 중국) 및 주재원(일본, 프랑스) 운용을 통한 해외진출 활성화 및 국제교류를 증진한다.

: 영화진흥위원회는 해외사무소 운영을 통하여 현지 영화계 고급 정보(정책동향, 인력, 시장동향) 조사 및 제공하고, 현지 주요 네트워크 구축 및 한국영화계와 매칭 서비스 제공, 법률 서비스, 저작권 보호 사업 추진 및 아카데미 영화상 등 해외영화행사를 지원, 개최하며, 현지홍보사업을 동반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향후 해외사무소와 현지 영화계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운영의 내실화를 추구하고자 하며, 특히 전략지역 영화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시장조사, 교류행사 실시한다.

: 영화진흥위원회는 아시아 영화산업 네트워크를 통한 아시아영화 토론토 공동마케팅을 실시하고, 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하며, 국제 교류 세미나 및 행사를 개최하고, 신규 시장 영화산업 정보 조사 및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며, 한국영화 해외 개봉 리포트, 해외 각국 영화 지원 정책 조사 및 제공. 향후, 한국영화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현지 영화시장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표 3-30〉 한국영화 해외홍보 사업

(단위: 백만원)

월	추진내용				예산집행계획
	해외사무소 운용 및 현지홍보사업	국제교류 및 홍보자료관리	한국영화 소개자료발간	해외 허브 라이브러리	
1	상시 운용	해외시장자료 상시조사 실시	국내 국제행사와 연계한 주요인사 초청교류(부천, 충무로영화제 등)		24
2					30
3					127
4				신규 라이브러리 신청 모집 공고	50
5				2010 지원자료 목록 조사 작성	50
6	일본사무소 개설		지원처 선정심사	240	
7	상시 운용		대행업체 입찰공고 및 선정	100	
8			자료 구매	270	
9			AFIN 토론토 공동마케팅	자료 발송	165
10			국내 국제행사 연계 주요인사 초청교류 (부산영화제,마켓 등)		130
11				지원처 실사	154
12					44
합계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 세부 사업 5: 한국영화 해외정보 관련 시스템 구축

제3장 국내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 영문 종합홍보시스템(웹사이트, 출판물 발간)을 운영하고 있다.

: 영화진흥위원회는 온라인 비즈니스센터(가칭 'KOBIZ') 구축 이전까지 기존 영문사이트(www. koreanfilm.or.kr)를 통해 한국영화 해외정보 제공 지속 및 지속적인 DB 구축 및 사용지환경 개선을 통해 한국영화와 해외영화계 사이의 게이트웨이(gateway)를 구축하였다.

〈표 3-31〉 온라인 비즈니스센터(KOBIZ) 구축

구분	개요	세부사업(안)
국문 - 해외시장 정보 및 국제공동제작 정보시스템	해외진출 온라인법률지원	온라인 법률상담 시스템 구축 해외배급 및 국제공동제작 권장계약서 지원 해외저작권보호 지원 해외계약 법률자문
	시장정보	해외 주요 권역별 시장정보 및 트렌드 분석자료 제공 한국영화 해외 수출 및 유통현황 분석정보 제공
	해외인력정보	해외 주요기업 핵심인력 네트워크 구축
	영화제 정보	주요 국제영화제 정보 주요 국제영화제 출품 가이드
	국제공동제작 정보	주요 국가별 국제공동제작 가이드 국내외 로케이션 가이드 통관 및 관세업무 매뉴얼 위원회 국제공동제작 지원프로그램 소개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사업지원 및 모니터링 시스템 온라인사업관리시스템
영문 서비스	한국영화 작품정보	한국영화 기획 및 제작현황 정보 한국영화 작품정보, 동영상, 이미지 정보 제공 한국영화 정보 검색 시스템
	국내 인물 DB	감독, 배우, PD 등 주요 인물 DB 구축
	국내 기업 DB	국내 사업자 정보(배급사, 세일즈사, 제작사 등) 국내 후반작업 업체 정보
	로케이션 지원	해외작품 국내 로케이션 유치 지원시스템 구축

제3장 국내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국내 박스오피스 정보	국내 박스오피스 및 부가시장 통계정보 제공
기타	위원회 각종 지원프로그램 소개

- 해외 한국영화 연구기반 확대를 위한 외국대학 라이브러리 지원 및 DVD 제작

: 해외 도서관으로부터 지원접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지원처를 선정하여 한국 영화 DVD 및 도서(영문, 현지어)를 구입, 발송해주는 사업이다. 영진위는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하여 총 40여개의 해외 한국영화 거점을 구축한 후, 전반적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2 _ 국제공동제작 활성화

□ 사업 목적

- 해외시장에 호소력있는 프로젝트 개발을 지원하여 국제공동제작 활성화 유도
- 국제감각을 갖춘 영화인력의 발굴 및 국제 네트워킹 확대 지원

□ 세부 사업 1: 글로벌 제작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아시아영화전문가 양성과정(Asian Film Professionals Training Program, 2006~2009년)

: 본 프로그램은 아시아 국가간 영화인력 교류 확대를 위해 시작된 것으로, 아시아 국가의 영화전문가를 초청하여 한국문화와 영화에 대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연수 기간 동안 한국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국어 연수를 받는 한편, 영진위 관련 기관을 방문하고, CJ엔터테인먼트, 한국영상자료원(KOFA), 부산국제영화제, 제천국제영화제, 부산영상위원회 등 주요 기관을 방문하여 한국 영화 관계자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가진다. 이러한 방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한국영화시장과 산업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본국으로 돌아가 한국과의 교류에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글로벌 기획개발 워크숍(Filmmakers' Development Lab) 개최

: 글로벌 기획개발 워크숍(FDL)은 해외시장에 호소력을 가진 작품기획안이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국제경쟁력을 갖춘 프로젝트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력양성 워크숍이다. 본 사업은 기획개발중인 국제공동제작 프로젝트 5편을 선정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의 1:1 멘토링 등 심도있는 교육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국제 감각을 갖춘 영화인력을 양성하고 국제공동제작 기반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 주요 국제영화제 프로듀서 랩 참가지원(로테르담, 선댄스 등)

： 본 사업은 로테르담, 선댄스 등 주요 국제영화제에서 열리는 해외 프로듀서 랩에 역량있는 국내 프로듀서를 참가지원 해주는 사업이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본 사업을 통하여 국내작품 해외진출, 해외작품 한국촬영 유치에 필요한 정보를 구축하며(한국영화산업인력, 한국영화 제작가이드, 해외 촬영지원제도 가이드 등), 온라인 비즈니스센터(가칭)와 연계하여 추진하며 정보의 활용성도 극대화한다. 현장성있는 전문정보 확보 및 네트워크 구축에도 기여한다.

□ 세부 사업 2: 글로벌 비즈니스캠퍼스 개최

- － 본 사업은 주요 국제공동제작 상대국(일본, 중국, 프랑스) 현지에서 행사를 개최하여 해당국과의 공동제작 프로젝트에 대한 멘토링, 피칭, 제작투자자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실시하는 것이다.
- － 국제공동제작이 활성화되지 않은 미국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가 현지 유명 프로듀서 등을 초청하여 현지 시장상황에 대한 강연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
- － 영화진흥위원회는 상기한 활동들을 통하여 해당국 시장의 특성과 제작환경을 파악하고 현지 영화계 핵심인사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표 3-32〉 영화진흥위원회의 국제공동제작 활성화 사업

(단위: 백만원)

월	추진내용		예산집행계획
	KO-PRODUCTION 2010	정보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1~5	사업홍보, 접수 및 심사, 참가자 확정 * 로테르담 랩 프로듀서 참가 지원(2월)		50

제3장 국내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6	Ko-Production in Shanghai 개최(중국)	국제공동제작 관련 온라인DB 구축, 국제공동제작 가이드라인 등 제작	500
7	Ko-Production in Paris 개최(프랑스)		
8~9	Ko-Production in LA 개최(미국) Ko-Production in Tokyo 개최(일본)		
10~12	프로젝트마켓 참가 지원		
합계			550

다. 영화진흥위원회 해외교류 사업을 통해 본 시사점

한국영화진흥위원회의 해외교류사업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교류사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영화진흥위원회는 글로벌 제작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그 중 특히 아시아영화전문가 양성과정은 아시아 국가의 영화전문가를 초청하여 한국문화와 영화에 대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단기적 가시적 성과를 보기 어려운 동 프로그램을 2009년 폐지하였다. 그러나, 동 프로그램은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 우선, 동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연수 기간동안 한국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국어 연수를 받는다. 또한 초청된 전문가들은 영화진흥위원회 관련 기관은 물론, CJ 엔터테인먼트등 사기업, 부산국제영화제/부산영상위원회, 제천국제영화제등 주요 기관을 방문하여 한국 영화 관계자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가진다. 이러한 방문과 교류를 통하여 한국영화시장과 산업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본국으로 돌아가 한국과의 교류에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영화진흥위원회의 글로벌 제작인력양성 프로그램중 글로벌 기획개발 워크숍(Filmmakers' Development Lab)은 해외시장에 호소력을 가진 작품기획안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프로젝트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력양성 워크숍이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심사를 통하여 기획개발중인 국제공동제작 프로젝트 5편을 선정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의 1:1 멘토링(mentoring)등 심도있는 교육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국제감각을 갖춘 영화인력을 양성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하고 국제공동제작 기반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잠재적 현재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시각예술, 문학, 음악, 무용등의 분야의 예술가와 작품에 대하여 해외의 전문가들과의 멘토링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장 단기적으로 예술적 수월성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영화진흥위원회는 매년 확정적(정기적)으로 열고 있는 해외주요국제영화제를 활용하여, 영화의 교류, 영화인의 교류, 영화산업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 영화인들에게 국제영화제 참가 및 홍보활동 기회를 보다 폭넓게 제공하여 선진영화 산업국가의 영화제작 현실과 세계 각국의 다양한 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영화진흥위원회는 중국과 일본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하여 한국영화의 기획상영회를 개최하고 현지 문화원 및 학술기관과 연계하여 비상업 상영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우수 작품에 대한 외국어 자막 프린트에 있어 중국어와 일본어를 포함시켜 우리나라의 다양한 영화들이 중국과 일본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고자 하였다. 예술의 이해 및 감상에 있어 언어적 부분이 중요한 장르에 있어서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상기한 전략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영화진흥위원회가 실시하는 한국영화 국제영화제 참가, 해외극장 개봉지원, 해외 사무소 및 주재원 운용 등의 모든 사업이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 실용적인 고급 정보(정책동향, 인력, 시장동향)를 수집하는데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이러한 오프라인 성격의 결과물을 온라인 데이터베이스(DB, 즉 KOBIZ)로 구축하여 현장에 있는 영화업계의 인력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환시킨다. 이는 사업간의 연계성을 강화한 것으로, 온라인 비즈니스센터(KOBIZ) 사업과 모든 해외진출 관련 사업을 연계한 정보망을 구축하는데 있다.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제3절 지역재단

현재 각 기관별로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목적과 방식으로 난립되어 있는 국제 교류 지원사업과 기금에 대한 국내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외 유사 기관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발전가능성을 타진,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 대안을 가진 새로운 국제교류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하고 미래지향적인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을 통하여 서울시민을 더욱 행복하게, 서울을 더욱 살기좋은 문화도시로 만들려 설립된 기관이다. 본 재단의 미션은 세계제일의 창조문화도시 서울을 만드는 것이며, 비전은 서울시민 모두가 예술에 참여하는 것이다. 본 재단의 핵심가치는 시민에 대한 헌신, 예술가에 대한 존중, 그리고 문화매개자로서의 창의적 전문성이다.

가. 서울문화재단의 사업

1 _ 예술지원(2010정기공모지원사업)

□ 시민예술활동지원

- 사업목적: 본 사업은 일반인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직접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서울시민이 만드는 창조문화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개요
 - 사업방향: 시민이 직접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문화예술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
 - 신청분야: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복합장르 등 문화예술 전반
 - 지원규모: 최저 2백만원 ~ 최고 5백만원
- 지원신청주체
 - 2010년 서울에서 문화예술활동을 계획한 일반인 문화예술 동호회로서 문화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예술을 본업으로 하지는 않는 문화예술 애호가들이 주체인 비영리 동호회(*단, 전업 문화예술인이 동호회 대표이거나 회원중 일부로 포함되어 있더라도 일반 시민이 동호회 주 활동 회원일 경우 일반인 동호회로 인정)

- 우선지원 동호회: 문화 소외계층의 시민들이 자생적으로 결성한 동호회, 2년이상 정기적인 활동 실적이 있는 동호회
- 지원신청 사업
 - 서울에서 시행될 일반 시민이 직접 주최하고 참여하는 사업
 - 1년간 동호회 활동을 2010년 12월까지 최소 1회 타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사업

□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지원

- 사업목적: 본 사업은 일상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여 공연분야의 창작 활성화 유도 및 우수하고, 발전 가능성 있는 작품을 발굴하여 공연예술계 역량을 강화할 도모한다.
- 사업개요
 - 사업방향 및 주요 내용: 발전가능성 있는 작품 우선지원, 우수한 레퍼토리 공연 화로 정착하기 위해 재공연도 지원, 공연분야의 다양한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작품 제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드머니(seed money) 지원
 - 신청분야: 연극, 무용, 음악, 전통(총 4개분야)
 - 지원규모: 최고 3천만원
 - 지원신청주체: 2010년 서울에서 공연예술 활동을 계획한 예술단체(인)

□ 시각예술 창작활성화 지원

- 기획프로젝트 지원
- 사업목적: 본 사업은 시각예술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충 및 창작 기획의 질적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 사업개요

- 사업방향: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기획된 프로젝트 지원
- 신청분야: 평면, 입체, 미디어, 복합장르 등 순수 미술 전반
- 지원규모: 최저 5백만원~ 최고 30백 만원
- 지원신청 주체: 2010년 서울에서 사업실행 예정인 전문기획자(단체)또는 개인작가

□ 국제교류사업지원

- － 사업목적: 본 사업은 수월성이 검증된 작가들의 국제적인 창작 및 홍보활동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 사업개요

- 사업방향 및 주요내용: 해외 초청 주요 비엔날레, 미술관 프로그램 참가 등 국제교류활동 지원
- 신청분야: 평면, 입체, 미디어, 복합장르 등 순수미술 전반
- 지원규모: 최저 5백만원~최고 10백만원
- 지원신청주체: 2010년 해외 주요 프로그램에 초청되어 참가가 확정된 작가
- 지원신청 사업:
- 2010년 해외 주요 비엔날레, 미술관 프로그램 등에 초청된 작가의 참가 활동
- 지원제외 대상:

해외갤러리 초청 개인전 사업,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사업(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으로 별도 시행예정), 해외 아트페어 등 상업적 목적을 띠고 있는 프로그램 참가 사업, 초청받지 않은 신청자의 자발적인 프로그램 참가 사업

- 우선 지원대상: 서울과 관련이 있는 해외 프로그램 참가 사업(예. 도쿄-서울 교류전 등) 및 해외 주요 미술관, 박물관이 주최 기획 프로그램 참가 사업

□ 중견작가 작품집 발간 지원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 사업목적: 본 사업은 수월성이 검증된 중견작가의 작품세계를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책자를 발간하여 시각예술 분야의 역사를 기록 보존하는데 일조하려 한다.
- 사업개요
 - 사업방향: 인지도 높은 중견작가의 역사성이 인정되는 종합 작품집 발간 지원
 - 신청분야: 평면, 입체, 미디어, 복합장르 등 순수미술 전반
 - 지원규모 10백만원 정액지원
 - 지원신청 주제: 첫 개인전 이후 만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중견 작가
 - 지원신청 사업: 2010년 서울에서 시행되는 전문적으로 기획되고 이에 적합한 작가가 참여하는 사업

□ 문학창작 활성화 지원

- 본 사업은 서울속 문학지원 보존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 사업목적
 - 망실된 서울작가/작품을 발굴, 보존하여 창작과 향수의 밑거름이 되게 함
 - 차별화된 특성화 지원을 통해 문학 지원의 전문화 및 다변화 모색
- 사업개요
 - 사업방향: 보존가치가 있는 서울작가(작품) , 유·무형 문화사전 자원 발굴 보존 및 콘텐츠 개발 활동지원
 - 신청분야: 문학전반
 - 지원규모: 최저10백만원~최고30백만원
 - 지원신청주체: 서울을 거점으로 문학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
 -

□ 다원예술 활성화 지원

- 사업목적: 본 사업은 단일한 장르에 담아낼 수 없는 복합 예술, 기존 장르간의 통섭 활동을 대안예술 등 새로운 형식의 예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창조적 다양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성을 증진,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 개발 육성하려는 것이다.

－ 사업개요

- 사업방향 및 주요 내용: 페스티벌 등의 공연, 전시, 퍼포먼스 등 창작 및 기획 활동 중 여러 분야의 장르가 융합된 복합 예술 활동지원
- 신청분야: 다원예술
- 지원규모: 최소 5백만원~최대20백만원
- 지원신청 주제: 장르간 통섭활동을 통한 새로운 내용 및 형식의 복합예술을 기획하고 있는 예술단체(인)
- 지원신청 사업:
 - : 공연(페스티벌포함), 전시, 퍼포먼스 등 창작 및 기획활동
 - :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는 실험적 예술
 - : 여러 장르별 특성이 융합된 복합장르 예술
 - : 문화다양성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예술활동

□ 예술연구서적 발간 지원

- － 사업목적: 본 사업은 예술 연구 서적 발간을 지원하여 우수한 예술 작품이 창작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 － 사업개요
- － 사업방향: 서적발간 외에는 별도의 조건없는 펠로십(fellowship)형태의 지원으로 자유로운 연구도모 서울 문화재단이 지향하는 미적 체험 교육이란
 - 기존 기량 중심 예술교육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 간 통합 및 연계 교육을 통해 문화 예술에 대한 이해를 넓혀 가고, 상상력과 소통의 무한한 가능성을 통해 예술의 진정한 가치를 생활 속 예술 체험 안에서 발견하도록 설계된 문화예술 교육의 차별화 된 모형.
 - 문화예술 향유자 & 문화예술 창조자
 - : 예술적 체험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계발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향유자 및 창조자를 양성.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 문화예술 공헌자

: 향유자 및 창조자에서 나아가 사회에 문화예술을 매개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헌자 양성.

- 미적 체험교육의 세부 프로젝트

- 아동, 청소년 Arts- Echo: 이 프로젝트는 예술로 상상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며 매리를 꿈꾼다. (아동 청소년 대상) / 어린이 창의 Arts-TREE 방과 후 학교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청소년 창의 Arts- TREE- 문화예술교육 중점학교이다.
- 시민 Arts- Echo: 이 프로젝트는 예술을 폭넓게 향유하고 이해하며 행복의 가치를 높인다. (성인대상)/ 시민문화예술교육사업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어르신)/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사회적 취약계층대상)/ 공연연계교육프로그램이다.
- 전문가 Arts- Echo: 이 프로젝트는 창의적인 예술적 사고로 분야별 새로운 비전을 세울 수 있는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창의 서울을 향한 전달의 창이다. (전문예술교육가- 전달의 창) 문화매개자 (전달의 창)대상. / 전문예술교육가 양성과정, 링컨센터(LCI)해외연수 프로그램/ 공무원, 교사, 복지사 등 대상/ 해외 우수 문화 예술교육기관 교류사업

2 _ 문화사업

□ 책 읽는 서울

- ‘책읽는 서울’은 2004년 서울 문화재단 설립 초기부터 진행되어온 독서문화 캠페인이다. 독서 프로그램은 뻔하고 재미없다는 일반적인 선입견을 깨고, 문화와 결합된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독서 캠페인의 새로운 장을 열어왔다.
- 서울문화재단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폐쇄된 공간에서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열린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과 책을 통해 생각을 나누며 소통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제시하여 왔다. 본 재단은 이러한 시도를 통해 독서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의 새로운 기능성의 폭을 넓혀 나감으로써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시민들에게는 독서활성화 기회를 제공하고, 도서관에게는 지역문화 커뮤니티 로써 기능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서울사랑의 문화나눔

- 사업소개: 서울사랑의 문화나눔은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어려운 환경, 지역, 시설에 속한 문화 소외계층에게 양질의 문화공연체험 및 문화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서비스이다.
- 공연내용: 본 프로그램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300회 이상의 공연을 하고, 서울 자치구 내 주요 문화/복지 시설 및 기관대상 및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을 위한 맞춤형 공연을 진행한다.

□ 문화가 있는 놀이터

- ‘아이들의 즐거운 비타민, 문화가 있는 놀이터’, ‘문화가 있는 놀이터=놀이+터’ 라는 슬로건으로 문화는 화려한 공연장이나 미술관 안에서만 접하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향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 하에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 서울문화재단은 시민들이 몸담고 살아가는 구체적 생활공간들을 보다 문화적인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그 안에 문화의 싹을 배양해 가도록 2004년 ‘문화가 있는 놀이터’ 사업을 시작하였다.
- 시민과 예술과, 환경디자인 전문가, 기업, 행정기관 등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고민, 협력하며 긴 시간을 투자할 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재단은 이러한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지원자이자 연결자로, 그리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촉매자 역할을 담당하려 한다.

□ 서울문화예술 탐방

서울문화예술 탐방은 서울시민이 살고 있는 ‘서울’이라는 공간을 좀 더 잘 알기 위하여 시민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공간인 그들의 동네를 돌아보는 ‘우리동네 문화탐방’ 으로부터 예술과 문화공간의 대표명사 미술관 탐방과 박물관 탐방, 영화

제3장 국내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속 그려진 서울을 돌아보는 “영화&음악” 탐방, 건축을 통하여 서울의 디자인을 돌아보는 “건축&디자인 탐방” 등 총 10개의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3 _ 창작공간

□ 서울시 창작공간

서울시 창작공간 조성사업은 창의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서울시 컬처노믹스(Culturnomics=Culture+Economics) 전략에 따라, 예술가와 시민의 창조적 능력을 증폭시킴으로써 도시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능을 다한 유휴공간을 창작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구도심을 문화적으로 재생시키고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나아가 서울의 문화□환경□교육□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서울시 창작공간은 폐교 활용 창작촌, 국 공사립 창작스튜디오, 개인 및 그룹 창작실 등 기존 창작스튜디오의 장점을 모아 만든 지역 거점 형 종합예술공간이다.

서울시 창작공간은 성북 흥은 예술창작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연희문학창작촌, 신당창작아카데미, 문래 금천 예술공장, 그리고 관악 어린이 창작 놀이터 이렇게 여덟 곳이다.

본 사업은 창작지원, 국제교류, 작가양성, 시민예술교육을 아우르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서울시내 각 지역의 의미있는 예술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 주제 중심의 시즌 프로그램 기획

: 국내 및 해외의 우수 현대 연극을 중심으로 운영될 남산 예술센터의 시즌 프로그램은 도전적이고 참신한 창작 희곡 발굴과 과감하고 세련된 무대 미학을 통해 동시대 관객을 위한 ‘소통과 감동의 무대’로 구성될 것이다.

최고의 예술성을 목표로 하는 메인 시즌 외 탈 장르, 복합장르의 공연양식을 발굴하며 젊은 예술가들의 도전과 새로운 무대 실험의 장을 제공하는 극장 축제를 기획하는 등 매리 지향적 공연예술의 산실로서 그 기능을 할 예정이다.

－ 현대 연극 국제교류 활성화

: 동시대 적이고 혁신적인 공연을 제작, 선보이는 독일 샤우뷔네등과 같이 그 성격과 지향점이 유사한 해외의 주요 공공 공연장과 MOU를 체결하여 공연의 제작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및 유통교류, 초청교류 등 공연장간 국제교류를 활성화 할 계획, 또 국내 창작 희곡을 소재로 해외 연출가 초청제작, 동시대 해외 현대극 텍스트의 국내 소개 및 무대화를 통한 현대연극 국제 교류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 우수 공연 프로덕션에 기반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남산예술센터는 전문공연장과 예술교육관이 겸비된, 공연예술 작품의 창작과 서울 시민들의 예술교육체험이 가능한 차별화된 복합 문화 공간. 수준 높은 공연예술 작품을 통해 시민들의 공연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며 각종 예술 교육을 통해 예술교육체험의 장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예술을 통해 문화를 공유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시민들의 사랑방 역할과 수준 높은 공연제작, 두 가지의 역할 수행을 기대한다.

□ 서울열린극장 창동

‘동북부 열린 문화공간: 서울열린극장 창동’

올해로 개관 5주년을 맞은 서울열린극장 창동은 2004년 9월 동북부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해 서울시에서 설립하고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비합시어터이다. 개관 이래 설립취지 목적에 걸맞게 다양하고 질 높은 공연을 제공하고, 저렴한 티켓가격을 책정하여 보다 많은 지역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 남산창작센터/ 대학로 연습실

대규모 무대공연예술의 창작여건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모있는 창작공간을 마련하여 민간 문예단체의 창작욕구를 해결하며 실험무대, 아카데미 등을 통해 무대 예술인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4 _ 축제

□ 하이 서울페스티벌 -매년 5월 첫째 주 토요일

“가장 놀라운 즐거움은 서울로 통한다. 서울대표축제 하이 서울 페스티벌”

2003년부터 시작한 하이 서울페스티벌은 뜨거운 시민의 열기를 축제 문화로 이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개최되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해마다 5월이 오면 서울시민과 세계인의 함께하는 화합의 한마당이 펼쳐진다.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공동 주최, 주관하는 하이 서울페스티벌은 서울만의 고유한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축제, 천만 서울시민이 동질감을 느끼며 즐길 수 있는 축제, 전 세계에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로 도약하고자 한다.

5 _ 고궁 뮤지컬 사업

□ 고궁에서 펼쳐지는 서울의 대표적인 야외 뮤지컬 공연

역사의 숨결이 숨쉬는 고궁에서 서울의 대표적인 야외 뮤지컬 공연을 창작, 상설 공연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수를 제공, 외국인관광객에게는 서울의 대표 볼거리를 만들어 해외 관광객 유치에 적극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고궁 뮤지컬 사업의 대표적 사례로는 2008년 봄에 공연되었던 ‘명성왕후’와 2008년 가을에 공연되었던 ‘대장금’, 그리고 2009년 봄에 공연되었던 ‘대장금: 시즌 2’ 등을 들 수 있다.

2. 경기문화재단

가. 최근 동향

경기문화재단은 1997년에 출범하여, 2001년에 1,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 뒤 경기도 내의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가, 문화유적의 보존과 발굴 등을 위주로 경기도의 문화예술 창달에 힘쓰고 있다.

문화 진흥과 관련된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 예술 창작 발표 지원/ 소수자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운영지원/ 문화예술인 국제교류 활성화/ 문예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평가/ 지역간 문화예술 격차 해소 활동 증진, 지역문화 예술 기반 공간 운영 활성화/ 전통 문화 예술의 발굴 및 보존/ 도민의 자생적 문화 예술 활동 지원/ 문화 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지역 문화 예술 특성 연구 및 정보화/ 전통 문화예술의 보급과 활용 등이 있다.

경기 문화 재단은 기존 문화재연구원을 1999년 4월 1일 경기문화재단 부설로 설립하여 경기도내의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문화유적의 지표조사, 문화재의 연구와 보존방안의 수립, 문화재 관련 사업의 추진, 전통문화의 연구와 보급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2007년 개편을 통해 효와 실학의 현 양 사업도 함께 담당하게 되었다.

제3장 국내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주요 위탁 추진사업으로는 경기도 실학 박물관 건립과 남한산성복원 및 정비사업, 경기도사 편찬사업, 경기 가족사랑 효 마을 건립,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 운영, 백남준 미술관 건립, 세계 평화축전 등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 문화재단은 2007년 조직개편을 통하여 크게 문예 진흥 사업과 문화유산의 발굴, 전승, 현대화 사업으로 대별하였으며, 의사 결정단계를 단순화 하고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문화사업본부 아래로 전략 기획팀, 경영 지원 팀, 지역 정책 팀, 예술 지원 팀, 문화 나눔 팀, 문화 교육 팀으로 두게 된다. 전략 기획팀은 기획 협력 팀의 기능에서 고객 관리 등 마케팅과 경영평가 업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고 경영지원 팀은 기존 총무 팀의 기능에다 지원금을 교부하고 정산하는 지원업무를 추가하였다. 지역 정책 팀은 정책연구와 개발을 주 업무로 신설되었으며, 예술 지원 팀은 창작 진흥 등 전문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업무들, 문화 나눔 팀은 도민에게 문화 향수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며 소수자의 문화 활동, 다문화 활동 등에 대해 지원을 문화교육 팀은 기존의 교육기획팀은 업무를 그대로 담당하게 되었다.

나. 지원현황

경기문화재단의 지원금의 유형은 크게 정기공모지원과 수시공모지원으로 나뉘지며, 정기공모지원은 1차, 2차로 나누어진다.

1차 공모지원의 유형은 크게 전문문화 활동지원, 전문 시각 예술 활동지원, 전문 공연 예술 지원, 전문 전통 문화 활동 지원, 국제 문화 예술 교류활동 지원, 소수자 문화 예술 향수 기회 증진 활동 지원, 문화 예술 교육활동 지원 등 총 8가지 전문분야로 나누어 지원한다.

1차 전문 문화 활동 지원은 각종 창작집 발간사업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문학행사에 약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전문시각예술 활동지원은 개인전에 대하여 최대 2,000만원, 그리고 단체 기획전에 대하여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출판사업에 대하여는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표 3-33〉 1차 전문 공연예술 활동 지원 사업유형 및 지원금 규모

(단위: 천원)

전문공연예술활동 사업유형		지원금 상한선
음악	음악 오페라, 음악축제	30,000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관현악	20,000
	실내악, 교성 곡 , 성악(합창 포함)	10,000
	음악평론집 발간 및 출판사업	10,000
무용	무용 창작무용, 무용축제	30,000
	재공연	20,000
	무용평론집 발간 및 출판사업	10,000
연극	연극 창작극(마당극 포함), 뮤지컬, 연극축제	30,000
	번역, 번안극	20,000
	마임, 인형극	15,000
	연극평론집 발간 및 출판사업	10,000

〈표3-33〉에서 전문공연예술 활동지원은 음악과 무용, 연극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공연분야에 대하여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각 분야별로 지원하고 있다. 평론집 발간 및 출판사업에 대하여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각 분야의 축제에 대하여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표 3-34〉 1차 전문전통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유형 및 지원금 규모

(단위:천원)

전문공연예술활동 사업유형		지원금 상한선
국악	국악 창극, 민요(소리)극	30,000
	관현악, 국악기악	20,000
	실내악, 국악성악	15,000
	국악평론, 출판사업	10,000
무용	전통무용재연 및 창작무용	30,000
	전통무용축제	20,000
	전통무용 평론 및 출판사업	10,000
미술	전통공예전시	20,000
	서예전시	15,000
	전통미술 평론 및 출판사업	10,000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표3-34〉에서 전문전통문화 활동지원은 크게 국악, 무용, 미술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사업 유형에 따라서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평론 및 출판에 대하여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국악 창극, 창작 무용에 대하여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통 미술의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전통공예전시에 대하여는 2,000만원, 서예 전시에 대하여는 1,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 국제문화예술교류 활동지원은 확실하게 분야를 세분화 시키지 않고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성격, 사업 및 예산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한 2천만원까지 지원 된다.
- 1차 생활문화 예술활동 지원의 경우, 동 사업은 최대한 1,500만원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별과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지원한다. 동 재단은 소수자 문화예술 향유기회 증진의 활동지원으로 최대한 2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별과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지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대하여, 최대한 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성격, 사업 및 예산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지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2차 정기 공모지원은 크게 신진 예술인 활동 지원과 전통문화 예술 전수 및 연수 활동지원, 공공 미술 활동 지원, 문화 예술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 그리고 문화 예술 정보화 활동 지원 등 총 5가지 전문 분야로 나누어 지원한다.
- 수시공모지원은 무대 공연 작품제작 지원사업으로 전문예술 인을 창작활동 중심으로 수시로 지원한다.

다. 경기문화재단의 국내외 네트워크 협력

경기문화재단은 지역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경기도-31개 시.군’, ‘경기도-해외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 경기문화 협력 네트워크 운영

- 경기문화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학예연구직, 시군 문화 예술 담당 공무원 간 커뮤니티 구축과 협력 기틀 마련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 대상: 문예, 학예, 도서, 행정분과 회원(120여명)
- 내용: 전문컨설팅 인력 풀 활동강화, 총회, 운영위원회 운영, 홈페이지 관리 등

□ 조사 연구 세미나 등 학술작업

- 지역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지역문화 정책 과제연구 및 정책화를 위한 이론적 토대 마련
- 협력 사업 개발 및 운영: 연구 과제의 정책실현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시범사업 운영
- 주요 협력 사업: 지역 문화 예술 조사연구, 경기도 문화유적 답사기 등

□ 해외네트워크 협력사업

- 뉴욕 ISCP, LA 18thstreet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국제적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할 도내 작가 지원
- 해외 네트워크 구축 지역과의 사업 추진
 - UAE샤자주(2011년 5월 예정, 전시회), 말레이시아 사바주(청소년 문화교류), 이태리 볼로냐시 박물관 등
 - 해외 문화정책 사례 연구: 문화적 지역 개발, 문화시설 운영실태 등 우수 해외사례 지역 조사
 - 해외 통신원 사업: 해외 문화정책 동향자료 제공 및 해외 사업시 현장 지원을 위한 협력망 구축

제3장 국내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제4절 시사점 및 기회점 도출

가. 위원회로서의 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현재 국내에서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8개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재외동포재단’, ‘한국문학번역원’ 등 여타 기관들이 크고 작은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상기한 업무들이 대부분의 기관에서 중복되어 나타나며, 이로 인한 업무의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해외의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담당기관들도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해,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해외 문화예술기관과의 MOU를 체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각각의 기관은 정보의 공유 또는 기관 특색 사업 개발 등의 과정이 없이 무분별한 MOU를 체결함으로써, 특정 권역 및 국가에 집중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하지만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협력관계는 문화예술위원회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즉 타 기관의 MOU를 활용하여,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초기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며 협력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협력관계 확대 과정에서 예술위가 독자적인 형태로 업무를 진행하기 보다는 타 기관들과의 협력관계 하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문화 예술 교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문예진흥원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핵심은 새로운 정책의 틀을 짜는데 있어 민간 전문인들의 영입을 통하여 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와 30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30조(위원회의 직무)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3장 국내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4.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7. 3명 이상의 위원이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위원회가 제1항제5호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심의회로 본다.

제23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는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추천위원회에는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각 분야의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이사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구성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한 법률을 통해 우리는 예술위가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결정권 및 집행권을 가지는 등의 강한 권한을 가진, 전문성을 갖춘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예술위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은 한국의 문화예술정책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게 된다. 예술위는 문화예술을 통해 국민들의 창의력을 함양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확보 및 국가이미지 고양이라는 최종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위는 단지 예술가들과 예술단체들에게 기금을 배분하고 그 지원사업을 평가하는 기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예술위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집단으로서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예술위는 대내외적 문화예술 지원 및 교류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중심 기관으로서, 막강한 책임에 따른 마땅한 책임감이 따라야 할 것이다.

나. 재외문화원과의 협력 프로그램

○ 재외문화원의 한계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총 16개의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원은 주재 지역에서의 한국 문화 소개의 장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재외 문화원은 기본적으로 한국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문화를 해외에 소개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한국문화예술 소개 및 진출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문화예술 교류 업무에 관련하여, 현지의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기관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해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활한 교류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두 활동 모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일방적 홍보나 소개와는 달리 주재국과의 상호지향적인 활동으로 소통을 매개로 한 상호발전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외문화원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지역적 특성 및 시설 측면에서 볼 때, 대부분의 문화원이 시내에 위치해 있으나 일부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화원도 있으며, 대부분의 문화원이 자체 공연이나 전시를 위한 시설은 열악하다. 또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천편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조직 및 인력현황에 있어서도 뉴욕 및 LA를 제외하고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화행사, 강좌분야에 따로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인력 부족으로 행정업무와 병행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공연, 전시 등의 문화행사에서 전문성 및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신설문화원의 경우에는 소수의 인원에 경력도 부족하여, 문화원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문화원장의 자질이 문화원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면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문화원에서 특징 및 목표설정이 불분명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전통을 주제로 한 비슷비슷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어, 효율적 재외문화원 운영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재외문화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문화예술진흥원이 직원을 해외의 주요 문화거전에 파견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콘텐츠진흥원의 경우, 미국, 유럽, 중국, 일본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예술위의 경우, 최소한 유럽(런던), 미국(뉴욕), 중국(북경)에 직원을 파견한다면 해외교류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o 재외문화원 특성화 발전 전략

현재 대부분의 문화원은 한국어 강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단발적인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어 목적성을 가지고 장기계획에 따라 일괄되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부재하다. 또한, 문화원의 주재지역의 문화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강조한 비슷한 강좌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그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주재지역의 문화적 특성에 맞는 장기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쌍방문화교류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원의 주재지역을 크게 뉴욕·LA 등의 북미권역, 파리·베를린 등의 유럽권역, 동경·오사카·북경 등의 동북아 권역 및 하노이의 동남아권역,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중남미권역으로 지역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부는 각각의 권역에 대해, 먼저 북미권역은 지역별 문화 다양성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 수립 필요, 유럽권역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 한정된 문화교류를 탈피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국가적 문화특성 및 DB완성 및 교류주체, 기구 파악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동북아권역에 대해서는 문화를 통한 한국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동북아 지역만의 별도의 전략개발을 위한 동북아 문화교류 전담팀을 구성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동남아권역은 복합 언어 및 종교의 문화권역으로서 한류 열풍으로 인한 중요시장으로 한류의 흐름을 쌍방향으로 활성화하여 ‘한류’에서 ‘아시아류’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중남미권역은 상호 문화교류 역사가 짧은 곳으로 특히, 문학 장르의 위상이 높은 곳이기에 문학 작가를 매개로 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하며, 도서를 통한 문화교류를 추진하는 등의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전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화’는 그 정책의 핵심이자, 결과이다. 바로 이러한 ‘문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문화예술위원회는 기존의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직접 조율하고 관리하는 적극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제3장 국내외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해외주재의 한국문화원을 국내주재의 해외문화원 및 대사관 등과 문화를 수단으로 연결하여, 문화교류의 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다. 정치의 수단으로서의 예술 / 예술의 수단으로서의 정치

20세기의 외교가 ‘정무’, ‘경제’ 및 ‘군사력’으로 좌우되었다면, 21세기의 ‘외교’는 ‘문화’를 빼놓고 논의할 수 없을 정도로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문화가 정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문화’와 ‘정치’는 더 이상 대립적이거나 이분법적인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즉, 21세기에서는 정치의 수단으로서의 문화와 문화의 수단으로서의 정치가 상호 영향을 끼치며, 공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교류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국제교류는 문화를 교류하는 것이기에 전통적 외교수단인 정무, 경제 등의 이슈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다.

외교적 이슈는 주로 외교통상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일부 문화적 이슈—를 통해서 형성되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21세기에 문화는 바로 외교적 이슈의 한 파트가 되었다. 실제로 국제적인 정치·경제 행사들에는 문화적 행사가 동반되나, 이러한 문화행사를 기획함에 있어 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은 아직까지 미미하다.

경제적 측면에서 또한, 아세안(ASEAN)국가들과 같이 경제적 교류는 활발하나, 문화적 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들 또한 하나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술위는 상기한 기관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국제교류에 있어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즉, 외교통상부는 정치적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기관이지만, 문화예술과 관련한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외교통상부의 상기한 약점을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문화예술위원회가 보완하여 주게 되면 양 기관간에 상호 이익이 되는 윈윈(win-win)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예술위의 입장에서도 기존의 문화적 수단만으로는 쉽게 협력관계를 맺거나 접근성이 낮았던 지역들을 수교 기념행사 또는 국제 대회 등의 정치·문화적 수단을 활용하여 더욱 다양하고 확장된 국제교류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해외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제1절 : 영국의 주요 기관 및 활동

제2절 : 프랑스의 주요 기관 및 활동

제3절 : 일본의 주요 기관 및 활동

제4장 해외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제1절 영국의 주요 기관 및 활동

1. 영국 문화미디어 체육부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 개요

- 1992년 집권한 보수당에 의해 신설된 영국의 문화유산부는 1997년 집권한 노동당에 의해 문화미디어체육부로 개칭되었다.
- 문화미디어체육부는 문화 활동과 스포츠 활동을 통한 삶의 질을 개선하고, 관광을 발전시키며 창작산업 및 여가 산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문화미디어체육부는 권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예술위원회 (ACE, Art Council England)와 함께 문화 예술에 대한 지원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 역할

- 문화미디어체육부는 전반적인 예술, 체육, 미디어, 문화유산 네 가지 영역에 대한 문화예술정책의 수립을 담당한다. 문화미디어체육부는 다음과 같은 역할들을 담당한다.
- 법령과 제도의 관리
- 권역별로 설치된 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금 배정과 평가
- 문화 예술 사관의 투명한 재정 운영 관리
- 박물관 등 주요 문화예술기관에 대한 운영 지원
- 복권 경마, 도박 등 이른바 사행성 산업에 대한 정책과 자금 관리
- 예술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DCMS의 전략적 중점과제 수행, 국민들에게 예술적 문화적 생활의 접근성을 확장하고, 규준과 혁신에 의해 DCMS가 지원하는 예술 활동이 세계적인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확보하는 목적을 가진다.
- 영국의 모든 예술적, 문화적 자원이 지니고 있는 교육적 가능성을 개발하고 이 부문에 적합한 기술을 공급한다.
- 영국예술위원회(ACE)를 통해 국립예술단체 (National Arts Companies) 및 예술지원(Funding for the Arts)을 한다.

제4장 해외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2. 영국 예술위원회 (Arts Council England, ACE)

□ 영국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와 지역예술위원회 개요

- 영국은 부처관할 독립위원회 모형을 가장 먼저 시행한 국가로서 잉글랜드 예술위원회가 보조금 분배의 전권을 담당한다. 잉글랜드 예술위원회는 총 수입의 96%를 재배분하고, 자금배분에 있어서 완전한 재량권을 행사한다.
- 영국 예술 위원회는 비정치적이며 정부와 거리를 유지하는 독립 법인이며 중앙위원회 (National Council)는 통합기구인 잉글랜드예술위원회의 최고 정책결정기구로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술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문화매체체육부(Ministry of Culture, Media and Sports) 장관이 임명하고 무보수 4년 임기이며 중임이 가능하다. 15명 위원 중 9명은 지역예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되며, 특정정당이나 특정예술장르를 대표하지 않는다. 위원회의 역할은 연간 약 5회의 회의를 개최하며 국가 차원의 예술정책 수립과 지원정책의 우선순위 및 재정 전략을 비롯하여 기관의 사업과 예산의 승인 등 기관운영의 주요사항을 결정한다.
- 영국의 지역예술위원회는 국가 예술정책 우선순위의 틀 내에서 지역 예술위원회 사업을 위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며,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하고, 지역예술위원회의 3년간 투자 계획에 대한 승인, 지역예술위원회의 연간예산 세부항목에 대한 합의를 한다.

□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의 지역협력 및 자금운용

- 2002년 지역예술위원회가 잉글랜드예술위원회와 통폐합됨에 따라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산하 9개의 지역위원회(Regional Arts Councils)로 재구성되었으며, 각 지역예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위원을 겸직하며 4년 임기로 문화매체체육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예술위원회의 15명의 위원 중 6명은 기초 지역자치정부나 지역자치정부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위원회는 지역예술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되 중앙위원회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을 경우 이를 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 코벤트 가든의 로열 오페라,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영국예술위원회로부터

제4장 해외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정기적으로 지원을 받는 단체는 약 1100개이다

- 정기적으로 지원받지 않는 예술단체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ACE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주요 활동

- 국제 예술가 연수/ 장학 프로그램(International Artists Fellowships)
 - 영국예술위원회는 연간 30여명의 예술가들에게 지원, 2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예술가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250명 이상의 아티스트들이 영국예술위원회 국제 펠로우십(ACE International fellowship)을 수여 받았고, 수여자들중 28%는 흑인 또는 소수인종이다. 이 펠로우십은 100개의 타 주관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평균기간 3개월이며, 짧게는 8주에서 길게는 1년 정도 지속된다.
 - 이 프로그램은 2001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운영되었다.
 - 목적
 - _ 이 프로그램은 예술가들에게 다른 문화와 지리적 환경에서 전문적인 리서치와 실험 기간을 제공한다.
 - _ 예술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리적으로, 예술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경계를 줄인다.
 - _ 이 프로그램은 영국과 다른 나라 예술 공동체의 국제 문화예술 교류를 활성화한다.
 - _ 예술가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른 문화의 예술가들과 다양한 문화 속에서 경험하는 실험과 협동을 통해 그들의 전문적인 경력을 쌓아간다.
 - _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국제 예술과 펀딩 파트너를 설립한다. 이로써 예술을 위한 자원과 성장을 최대화한다.
 - _ 이 프로그램은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과정과 배움을 중심적인 목적으로 한다.
 - _ 영국예술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동 분야의 세계 예술 센터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제4장 해외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3. 비지팅 아트스 (Visiting Arts)

□ 개요

- 비지팅 아츠는 문화예술의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각국 예술의 영국유입을 증진하고 외국과의 긍정적인 문화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비영리 공공기관이다. 이 기관은 1997년에 설립되어 영국문화원, 예술 평의회, 외무부 등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관련 예술 기관과 예술가에게 자문, 상담,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문화 예술이 영국 전역에 유입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 비지팅 아츠는 지난 30여년간 영국에서 활동하는 다른 나라의 예술가들을 위해 법적, 행정적 자문, 정보 제공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지원하여 왔다.
- 영국의 비지팅 아트는 영국문화원의 유관기관으로서 영국 문화미디어부와 외교부, 각 지방자치단체 예술위원회 기금의 지원을 받아 자국으로 유입되는 예술 활동에 대한 창구 역할을 한다.

□ 목적 및 특징

- 비지팅 아츠는 영국과 세계 다른 나라들의 예술 교류를 통하여 예술을 통한 문화 간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비지팅 아츠와 영국 문화원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영국문화원이 해외에서의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비지팅 아츠는 영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국가간 문화교류에 주력한다.

□ 역할

- 비지팅 아츠는 이종 문화 간의 대화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예술가들로 하여금 새로운 커백션을 만들 기회를 열어준다.
- 비지팅 아츠는 지속적인 예술적 환경을 위해 새로운 문화적 도구의 지식과 기술을 확장하고 있다.
- 비지팅 아츠는 신진 예술가들의 교류를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하며, 세계적인 규모의 혁신적인 축제들에 일조하고 있다.
- 아프가니스탄부터 잔지바르에 이르기까지, 비지팅 아츠는 활력 넘치는 차세대

제4장 해외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의 예술가들과 작업하고 있으며, 이들 예술가들을 영국으로 초청하여 지식을 확장하고 이종 문화 간의 교류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 재원:

비지팅 아츠는 영국문화원,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스코틀랜드 예술위원회, 웨일즈 예술위원회, 문화매체체육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 주요사업:

- 비지팅 아츠는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 비지팅 아츠는 영국 및 다른 나라의 큐레이터, 기획자, 예술가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해서 전달한다. 비지팅 아츠는 외국인 예술가들을 위한 법률, 행정, 비자 관련 안내와 영국에서 행사를 개최할 때 필요한 고용, 거주, 비자, 임금 등의 문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아울러 비지팅 아츠는 전 세계의 예술인 데이터베이스인 'Culturebase'를 제공한다.
- 비지팅 아츠는 장르간, 국가간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술인 교류를 지원한다. 비지팅 아츠는 국제 펠로우십 제도를 통해 약정을 체결한 국가의 상황에 맞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디자인하여 제공한다. 비지팅 아츠는 현재 대만과 잉글랜드 예술가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 레지던스 프로그램

- 프로그램 개요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국제적 문화교류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개인 예술가가 지닌 문화적 경험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예술가 중심의 접근을 채택하기 때문에 지원의 대상도 개별적인 독립예술가를 위주로 한다. 비지팅 아츠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영국내외의 주관기관(host organization)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영국을 방문하여 작업하고자 하는 예술가들의 예술적 발전과정을 돕고 방문중인 예술가들을 관련성 있는 담론/토론에 참여시키고 작품 발표를 지원한다.

- 설립배경 및 연혁

- 결과물에 초점을 맞춘 예술가들의 작품 창작 활동이 아닌 창작과정의 개발에 중점을 두는 예술 지원의 기회는 매우 희소하다. 비지팅 아츠도 영국의 갤러리

제4장 해외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나 단체들에게 지원금을 주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지 못했다. 그러나 비지팅 아츠는 지난 2년간 상당수의 갤러리와 스튜디오가 예술가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 방해 받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일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동기는 재정적 및 실질적인 의미에서 레지던스의 특성을 지닌 1998년 아셈(ASEM) 문화예술 프로그램이었다. 비지팅 아츠는 현재 초청된 작가와 초청을 주관하는 갤러리나 박물관의 상호 교류, 그리고 그러한 시설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지역 예술가들간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영국 내에서의 장기간 체류를 목표로 하는 외국 예술가들을 초청하고 있다.

— 대상지역 및 국가

- 비지팅 아츠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관심대상 지역은 세계 전 지역이지만 지금까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거나 영국 사회에 적극적으로 소개되지 못한 지역 및 국가 즉 중동부 유럽과 구소련,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프리카, 아프리카와 이슬람 국가들의 예술가들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 문화부문의 인력훈련 및 양성 프로그램은 중국, 구 소비에트연방, 몽고, 코카서스 지역 국가들, 러시아, 중동부 유럽, 발칸지역, 인도, 베트남 등 특히 예술 구조의 전환기에 있는 나라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문화예술행정 연수가 중심이 되고 있다.

— 운영현황

— 지원 절차와 지원 내용

• 연결업무

비지팅 아츠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영국을 방문할 예술가를 선정하고 선정된 예술가를 최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레지던스 제공기관을 연결하는 것이다. 비지팅 아츠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참가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각 관련기관에 전달하고 연결이 가능한 양쪽의 대상자들의 면접과 선발심사와정을 조정한다. 비지팅 아츠는 또한 레지던스 제공기관에서 초청 예술가에 대한 인수인계가 확정될 때까지 편의를 제공한다.

제4장 해외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표 4-1〉 레지던스 제공을 위한 연간 일정

일정	소요기간
프로그램을 실행할 영국 내 기관, 외국 기관 사이의 조정	1개월
프로그램 목표에 대한 합의, 선정기준 결정, 공고문 작성	1개월
공고문 배포 및 마감일 공시	2~3개월
선발과정	1~2개월
참여 예술가의 준비기간	2개월
레지던스 시행	3개월
평가	1개월

- 지원내용

일반적으로 3개월간의 레지던스를 기준으로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표 4-2〉 비지팅 아츠 지원 내역

항목	금액
선발과정(선발을 위해 소요되는 여비 포함)	2000 파운드
예술가 왕복 항공료	850 파운드
예술가 숙소 비용	1500 파운드
작업 재료 비용	500 파운드
예술가 일비 25파운드/일	2300 파운드
예술가의 국내 여비	350 파운드
네트워킹 비용	200 파운드
평가보고서	350 파운드
예비비	500 파운드
합계	9050 파운드

□ 통합적 지원 업무

- 비지팅 아츠는 예술관련 전문가들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매년 영국과 유럽으로 오는 순회공연이나 전시회 그리고 150개 이상의 예술문화 프로젝

제4장 해외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트에 직접적인 후원을 제공한다.

- 비지팅 아츠는 39개국을 포함하는 예술 인명록 시리즈와 정기 간행물을 포함한 다양한 범위의 출판물을 출간한다.
- 동 기관은 국가 프로젝트 시상을 통한 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 비지팅 아츠는 영국을 방문하고 있는 예술단체 및 예술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그들이 영국 내에 체류하는 동안 공연 및 전시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 영국예술위원회(ACE)에서 좀더 대규모의 유사한 아티스트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비지팅 아츠도 함께 하게 되었다.
- 아티스트 펠로우십은 영국예술위원회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며 교류 약정을 체결한 국가와 영국 아티스트가 상호 방문 교류하는 것이다.
-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반드시 당사국들간의 상호방문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비지팅 아츠도 재정 지원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관리하여 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 비지팅 아츠는 파트너십을 통한 상호방문과 교류를 중시하고 있으며, 현재 대만, 콜롬비아와 파트너십을 통한 교류를 하고 있다.
- 현재 문화행정가 양성을 위한 레지던스 프로그램 은 러시아, 중국, 인도,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등 각국의 상황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디자인하여 교류하고 있다.

4. 영국 문화원 (British Council)

□ 개요

- 영국문화원은 교육, 문화, 과학기술에서의 대외협력을 위한 영국정부의 공식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 영국문화원은 1934년에 설립되었으며, 전 세계 109개국 229개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다.
- 준정부 공공기관으로 주무부서인 외교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런던과 맨체

제4장 해외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스터에 본부를 두고 있다.

- 영국문화원의 행정조직은 원장 이하 각 그룹별로 부서가 구분되어 있으며,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운영한다.

□ 역할

- 영국문화원은 맨체스터에서 전체적 운영 총괄을 담당하고 있고 런던은 예술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 영어교육, 예술, 과학, 사회(법률, 인권, 인종문제 등), 기업협찬

□ 예산

- 2005/2006년의 경우 영국문화원의 1년 수입은 약 517백만 파운드였다.
- 동 예산중 195만 파운드는 외무부로부터 지원 받은 것이다.
- 예산중 211만 파운드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영어교육에 따른 수입 및 자격시험 검정료이다.
- 기타, 민간으로부터의 협찬, 투자, 공동 사업 추진 등의 다양한 펀드-레이징을 통해 110백만 파운드 및 기타이자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영국, 북아일랜드 국제예술위원회

□ 개요

국제 예술위원회는 영국예술위원회, 스코틀랜드예술위원회, 웨일스 예술위원회, 북아일랜드 예술위원회, 공예위원회, 연방외무부, 영국위원회가 공동투자기관이다.

국제 예술 위원회는 외국예술의 문화교류, 문화적 이해, 그리고 국가, 지역, 지방, 기관 차원에서 상호 호혜적인 국제 예술교류와 활동 촉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외국예술이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로 유입되는 것을 촉진하고 장려한다.

□ 활동

- 상담
 - 외국 예술이 영국에 주는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강구한다.

제4장 해외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 영국에서 열리는 외국축제들에 관계되는 효과적인 안내를 제공한다.
 - 연구단계에서 부터 계속해서 최상의 프로젝트를 개발하도록 돕는다.
 - 적절한 복합문화적 이니셔티브에 기여한다.
- 조언서비스
- 사전 계획 단계부터 계속해서 외국예술을 수입하는 모든 측면에서 조언을 제공한다.
 - 프로젝트의 프로모터와 큐레이터들 그리고 같은 분야나 같은 해외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제공한다.
 - 특별 행사와 활동의 장소 선정에 관해 정부, 프로모터, 다른 기관들에게 조언한다.
 - 국내와 국외에서의 적절한 계약에 관해 조언을 제공한다.
- 출판 : 〈비지팅 아츠〉는 1년에 3회 출판되는 잡지로서 영국에서 공연되는 예술 행사들의 목록과 요청에 따라 순회가 가능한 다른 외국행사들의 목록을 제시한다. 이 잡지는 외국예술의 공연과 진흥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며 영국에서 해당 예술단체와 사람들에게 배포된다.
- 특수한 국가나 지역을 포괄하는 실제적인 정보의 프로필을 제공한다.
- 정보 : 외국예술행사의 공연이 갖는 특수한 측면들과 관련된 안내문을 제공한다.
- 연수
- 특수한 지역과 영국예술계의 특수한 측면에 관심이 있는 외국의 문화외교관과 문화계 대표들을 위한 공식적이고 현장감있는 브리핑과 연수 프로그램
 - 영국의 프로모터와 예술행정가들을 위한 세미나, 예를 들면 외국예술의 수입과 관련된 실제적 측면에 관한 세미나

6. 시사점 및 기회점 도출

영국 내의 여러 기관들의 다양한 예술 국제 교류 현황은 한국의 예술위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제4장 해외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우선 우리나라는 국제 교류라고 하면 공연예술 및 전시회 개최, 레지던스 프로그램 등으로 국한되어 있지만, 영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비지팅 아츠가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할 뿐 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연계시키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컨대, 비지팅 아츠의 ‘1mile2’ 라는 프로그램은 환경과 예술을 연계시켰다. 본 프로그램에서 예술가들과 생태학자들은 함께 협력하고 활동을 이끌어, 가치 있는 대화와 지식 공유를 한다.

교류 수혜자/대상자의 측면에서, 영국은 예술가 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큐레이터나 프로듀서간의 교류도 지원한다. 일례로 비지팅 아츠의 큐레이터 방문은 큐레이터들이 특정한 해외 문맥에서 국제 예술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비지팅 아츠는 ‘Contemporary Myths’ 라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실습을 기반으로 하는 영국, 이란 간의 교환 프로그램이다. 이때까지 비지팅 아츠는 각각 영국과 이란의 7명의 극장 감독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신화를 응용하여 그 주제를 중심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과 아웃바운드중심의 국제 교류를 하고 있는 반면, 영국은 다양한 국가들과 국제 교류를 하고 있다. 예컨대, 비지팅 아츠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관심대상 지역을 세계 전 지역으로 설정하고, 특히 지금까지 접할 기회가 적었거나 영국 사회에 적극적으로 소개되지 못한 지역 및 국가의 예술가들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주력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부분은 영국의 경우 시스템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관리 노하우의 측면에서 특히 시사점을 준다. 예컨대, 실시간으로 관리가 되어 방문예술가를 포함한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제4장 해외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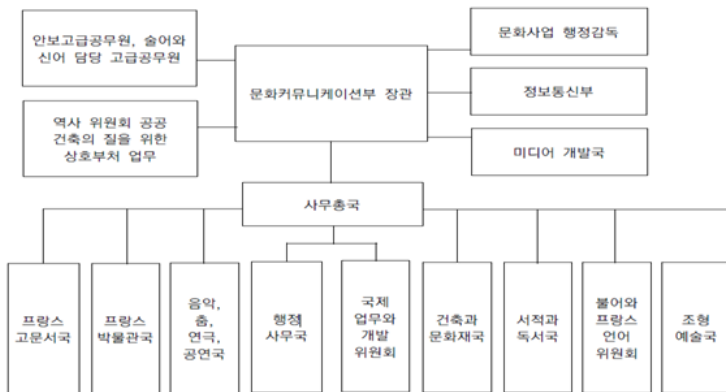
제2절 프랑스의 주요 기관 및 활동

1. 문화커뮤니케이션부

□ 국제업무와 개발위원회(DDAI)

- 유럽지역과 국제적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업무
- 메세나 활동을 증진하는 업무
- 1235개의 극단과 40개의 국립, 지역 드라마센터, 19개의 국립무용센터, 12개의 지역 오페라, 22개의 상주 오케스트라단, 70개의 국립무대, 8개의 뮤지컬 창작 센터, 95개의 협정된 무대, 132개의 현실음악 공연장, 167개의 창작과 배급에 관한 기타 장소, 280개의 축제지원

〈그림 4-1〉 프랑스 문화커뮤니케이션부



2. ‘세계 문화의 집’의 프로그램 쿠랑

프랑스 문화 통신부 산하 기관인 ‘세계 문화의 집’이 맡아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쿠랑’은 이른바 문화전문인의 국제교류 및 연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문화전문인을 초대하여 프랑스 문화정책을 연구하고 토론하며, 참여 국가의

제4장 해외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문화 현실과 정책, 정보 등을 공유하면서 궁극에는 네트워크 형성과 교류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대부분 불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거나, 아니면 불어권 국가에 소속된 전문인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 쿠랑은 1992년 문화통신부가 제안하여 1994년부터 문화통신부 산하 기관인 ‘세계문화의 집’이 맡아 실시하는 것으로, 문화통신부와 외무부, 파리가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본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2개의 축으로 구성되는데, 하나의 축은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전문 연수 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의 축은 개인 프로그램으로서, 다양한 영역별 주제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문화 예술 탐방 프로그램이다.

프랑스가 갖는 문화에 대한 기본 개념은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이다. 교류를 통하지 않으면 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강한 전제하에 문화는 동적인 것이고, 그 동적인 움직임 속에서 문화의 다양한 면모들이 만나고 충돌하며, 또 새로운 만남과 확장을 꾀하면서 문화가 대중의 삶으로 스며들어 가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이룬다는 점이다. 따라서 동 프로그램도 세계의 문화인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 통신부의 국제사업과를 비롯하여 세계문화의 집이 주로 국제 프로그램을 담당하지만, 조형예술을 비롯한 문화통신부 내 모든 사업 단위를 역시 국제교류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예컨대, 조형예술부 활동 가운데 대학 미술 교육이나 현대 미술관 및 아트 센터의 전시 프로그램, 레지던스 프로그램 등은 국제교류가 사업 단위로 중시되고 있다. 또한 세계문화의 집은 파리대학과 연계하여 문화예술경영의 D.E.S.S 과정을 담당하여 전 세계의 문화예술 전문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이다. 참여한 130여명에게 프랑스는 3주 동안 거실이 있는 아파트를 제공하고, 체류비와 교육비를 부담한다.

3. 외무부

- 외무부의 정책은 프랑스 대사관과 영사관의 문화담당 부서들, 프랑스 문화센터와 기관들, 인문사회연구센터, 그리고 알리앙스 프랑세즈 등으로 구성된 외부의 문화 협력 조직체에 의해 시행
- 프랑스 문화외교 체계에서 다른 국가들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프랑스 문화원과

제4장 해외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프랑스어 교육기관(알리앙스 프랑세즈)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 DGCID(Direction Générale de la coopération internationale et du développement: 국제협력개발총국) 내 Bureau de la politique culturelle et artistique (문화예술정책 사무실)
 - 500명 정도가 프랑스에서 그리고 3000명 이상이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다.
 - 문화와 언어의 다양성을 위하여 TV5, RF 등 언론 매체의 홍보, 외국에 있는 프랑스 학교와 프랑스어 교육 홍보, 프랑스가 주관한 13000개 이상의 문화 활동 홍보, 서적 홍보 등을 담당하고 있다.

4. 프랑스예술진흥협회AFAA (퀼튀르 프랑스)

□ 개요

1922년에 창설된 프랑스예술진흥협회(AFAA)는 문화예술 국제교류를 전담하는 프랑스 외무부 소속기구로서 프랑스 문화예술의 해외소개와 문화예술의 프랑스 국내 소개를 전담하고 있다. AFAA는 2006년 5월에 ‘퀼튀르 프랑스’ 로 새롭게 출범하였으며 각국 주요 문화기관과의 대화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AFAA는 외무부와 문화부의 긴밀한 협력아래 국제간의 예술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단체로 예술 활동의 확대를 위한 사업개선과 평가활동 및 각종 행사기록, 사업지침, 국제예술교류활동 관련정보를 축적하여 해외소개 각국 대사관 등에 자문을 제공한다. AFAA는 또한 예술가들의 창작과 연구를 위한 프랑스 체제를 지원하고, 국제 전문 예술인들의 모임을 주선하여 예술인들의 상호협력을 도모한다. 아울러 역사적 이벤트, 비엔날레, 페스티벌 등과 같은 국제 예술 행사에 참가하여 프랑스 예술을 소개하는 한편 해외 문화예술활동을 프랑스에 소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AFAA는 약 140 여개 국가에 설치되어 있는 프랑스 대사관과 문화원 등 각종 문화시설에 통신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세계 각국에 주재하는 프랑스 문화원장이나 대사관의 문화담당관 회의를 통해 권역별(6개 권역: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회의 및 전체 모임을 연간 1회 정도 개최하여 다음해 추진할 프로그램을 정하고 있다.

제4장 해외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

- 코메디 프랑세즈 해외순회 공연과 세종(Saison)의 발아 : 1929년 코메디 프랑세즈가 이집트 순회공연을 추진하였다. 예술분야에 있어 음악이 국경을 넘어서 알리기 쉬운 반면 연극은 언어의 장벽에 부딪혀야 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연극공연 해외순회 프로그램은 1935년부터 정상적으로 지원되었다. 예를 들어 1936년 코메디 프랑세즈의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해외 공연지원, 1935년 이태리, 1939년 발칸제국 공연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해외 공연은 정치적, 외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고, 그러한 목적 하에 대상국을 설정하게 되었다. 레퍼토리는 프랑스의 문화적 우수성을 선양하기 위한 고전적인 작품들로 꾸며졌다.

문화세종은 1개 외국국가가 프랑스 전역에 당해 국가의 다양한 문화를 온전히, 집중적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협력 작업의 전범으로서 이 프로그램은 공식적인 책임자, 문화 분야 전문가, 예술가, 미디어, 일반 관객들이 다른 국가의 문화와 삶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끔 한다. 문화 세종은 국가간 상호 외교적인 지원 및 국가수반 차원의 결정에 기반을 둔다. 각국 외무부와 문화부의 우선적인 관할 사업으로서 문화 세종은 구체화된다. AFAA 협력으로 뛰어난 전문가들과 함께 추진되며, 공식 협력자들은 각국에 각 세종 프로그램의 총 책임 커미셔너를 지정한다.

- 주브빌(Jouvenel)과 대외전략 체계화 : 음악 분야에서 AFAA는 체계적으로 작곡가와 연주자들이 프로의 세계에 진입하도록 도와주며 페스티벌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주었다. 이것은 독일의 레퍼토리에 대항하며 현대프랑스 예술 창작을 해외에 알리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한다. 조형예술분야에 대해서는 1926년경 전시의 경향이 다소 편향적인 면이 있는 점을 인정하며, 외국 기관의 요구, 취향에 가급적 만족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예술을 선보이고자 한다. 조형예술 전시를 통해 현대프랑스 예술의 경향 전반을 제시하고자 했다. 1932년 회장이 바뀌면서 가능한 한 산발적인 지원을 제거하고 모든 역량을 국위선양에 걸맞은 예술행사에 집중한다. 세계 속의 프랑스의 예술적 재능을 전파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진다. 주요행사로는 인상파 화가 회고전 등으로 런던이나 프라하에서 열린 전시회 등이 대표적이다. 전시개최 도시에 대한 전략도 이루어져 유럽과

제4장 해외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아메리카의 주요 도시가 대상으로 선정된다.

- 아비뇽페스티벌과 베니스비엔날레 : AFAA는 주요 국제 행사에서의 프랑스 예술행사의 질적 수준유지 및 향상에 관심을 기울인다. 예컨대,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플로랑스 페스티벌, 취리히 페스티벌, 에딘버러 페스티벌, 베니스비엔날레 등이 그것이다. AFAA는 제 1회 아비뇽연극페스티벌을 지원하고, 여러 국제 콩쿠르 등을 지원한다. AFAA는 프랑스를 국제예술현장의 중심지에 위치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예산이 미미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 지원을 통해 현대예술창작을 활성화하고 외국 주요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외국 문화와 관련된 전시도 꾸준히 지원되었다.
- 해외 공연예술 진출과 국제적인 성과 : 1980년대에 들어와, AFAA를 역동적인 공연예술의 중심부에 다시 위치시키고자 하는 기조를 취한다. AFAA는 외무부와 협의 하에 사업 방향을 가장 낙후된 국가들로 돌린다. 라틴 아메리카, 인도, 중동 등의 많은 연출가들이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극동아시아 등지로 향한다. 1992년 아비뇽 페스티벌에서부터 예술과 상호 교류에 의한 프로젝트를 공동 제작하고자 하는 운동이 태동하기 시작한다. 1982년 AFAA에 의하여 프랑스 예술가들은 미국에 대거 진출하게 되며 뉴욕의 15여개 갤러리에서 전시를 개최한다.
- 아티스트 레지던스 사업 : 현재는 외국 예술가들을 프랑스에 초청하여 작업실과 숙소를 제공하며 조형예술, 음악, 무용 등 모든 예술을 그 대상으로 한다. 모든 분야의 예술가들에게 1만 유로를 지급하고 외국의 어느 곳이든 가서 작업을 위한 문화체험과 휴식, 성찰을 위한 시간을 보내도록 한다. 작가가 어느 나라를 선택하든, 어떤 계획을 갖든 상관하지 않으며, 또 결과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무조항을 두지 않는다. 지원대상은 프랑스 작가와 프랑스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작가에 해당된다. 주목할 점은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과 프랑스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작가들도 프랑스 작가들과 같이 지원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 AFAA는 공연예술부문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대음악, 고전음악, 무용, 연극, 서커스, 거리공연, 인형극 등 다양한 부문에 공연예술시장개발을 위한 컨설

제4장 해외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팅을 행하고 있다. 국내외 투어, 워크숍, 교육프로그램, 레지던스, 자막제작, 해외축가등에도 참가한다.

□ 실적

AFAA의 실적을 살펴보면, 2,000 여개의 프로젝트 지원, 160여개국 5,000여명의 예술가 지원, 총 예산의 80%를 예술가 프로젝트에 지원, 60,000 여건의 지원신청 접수, 3~4개의 cultural season프로그램의 국내외 실행, 70여개의 자료집 및 서적 발간, 200여명의 국내외 예술가 및 작가 레지던스 지원, 약 2천만명의 관객동원등을 들 수 있다.

□ 주요 사업 개요 및 예산

2006년도 프랑스 문화와 세계문화 간 교류에 1,500 개 프로젝트, 50,000명 이상 예술가와 단체, 140여 개국이 참여하였다. 이 행사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소개되며, 다양한 출간물 및 정보센터 등으로 소개되었다.

□ 부서별 사업

－ 시각예술, 건축, 문화예술부

：시각예술, 건축, 문화유산부는 매년 해외 200여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술가, 창작자, 프랑스의 노하우, 작업방식 등을 다양하게 구현케 한다. 전문가 위원회는 프랑스 예술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과 해외 협력기관(단체)이 요청하는 것들 사이의 합일점을 찾고자 한다. 시각예술과 건축 비엔날레에 프랑스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을 참가시킨다. 베니스와 상파울로 비엔날레가 그 대표적인 예다. 문화부 조형예술국(DAP), 건축 문화유산국(DAPA), 박물관국(DMF)과 긴밀한 협력 하에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25개국이 집중 전략 대상이다. 이들은 조직, 전문인력, 시장 부분의 선도자 그룹으로 규정된 곳으로 유럽, 북아메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대도시들이다.

- 다양성 :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카르트 쥘느 제네라시옹, 순회전시, 에콜 다르, 연구 및 레지던스 프로그램) 500명 이상 조형예술가의 해외 개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현재 다양한 창작 활동이 세대, 경향, 분야별 폭넓은 스펙트럼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 가시성 : 이 전략은 국제적인 주요 전시 개최시 프랑스 예술가와 커미셔너들의 참여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예술비엔날레나 트리엔날레 등이

제4장 해외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이에 해당한다.

- 확장 : 시각예술부는 새로운 예술향유층 개발을 위하여 유럽연합의 확대와 함께 이와 관련된 협력관계의 새로운 장과 전망을 만든다.

이 부서가 추진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주요국제행사에 프랑스 예술가들의 참여를 지원한다. 프낙 FNAC, 프락 FRAC을 통해 단체전, 주체전 및 프랑스 공공 컬렉션 해외 보급을 지원한다. 국제전시회 참여 프랑스 예술가, 프랑스 거주 예술가를 프랑스 갤러리 지원을 통해 후원한다. 프랑스와 외국 고등예술 학교 예술가-강사 협력교류활동을 우선 지원한다. 아틀리에 형태로, 상호 활성화 및 지속적 상호 협력 교류를 구현한다. 프랑스 주요 전시 초청 정책에 의거, 프랑스와 외국 전문 인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예를 들어 2005년 라옹 비엔날레 등이 그렇다. 또한, 다국 순회 프로젝트 지원하는데 디자인, 패션, 누벨 이맛 및 특히 ‘카르트 쥘느 제네라사옹’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며, 새로운 개념과 구상에 기반을 둔 폭넓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순회전을 진흥시킨다.

- 전시 폴 : 국제적인 행사에 프랑스 예술가 참여를 지원, 활성화한다. 여러 주요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를 AFAA와 조형예술국(DAP)이 지원한다.
- 창작, 협력 폴
- 건축, 문화유산 폴 : AFAA는 문화부의 문화유산국(DAPA)과 협력하여 베니스와 상파울로 건축국제비엔날레에 프랑스 작가 참가와 국제적 규모이 다른 건축 행사 건축가 참여를 지원한다. 한편, 건축 세미나와 심포지엄의 전문가 초청도 지원한다.
- 공연예술부 : 공연예술부 사업은 주로 주제별 프로그램으로 구상 및 구성된다. 각 분야는 예술가와 외부 문화네트워크가 상호 협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각 문화권과의 진실한 대화, 또 다른 관객과의 만남, 상호 창작의 교환, 지식의 교류 등을 가능케 한다.
 - 확산 : 작품 순회공연은 국제 페스티벌의 프랑스 예술가 및 단체의 참여로 이루어지며, 여기에 프랑스 문화네트워크가 함께 조직하고 참여하기도 한

제4장 해외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다. 이러한 확산은 외국의 전문가들을 통해 증가되는데, 대략 매년 100여명 정도의 전문 인력을 초청하며 이들은 프랑스 공연 현장을 둘러보게 된다.

- 순회하는 콩세르바투아르 : 예술협력사업은 결국은 순회 콩세르바투아르를 통해 이루어진다. 주로 현대 무용, 공연 테크닉, 클래식 음악, 클래식 무용 등이 다루어진다. 이 콩세르바투아르는 프랑스와 해외 예술팀간 협력을 증진코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학교, 콩세르바투아르, 대학교, 고등교육 기관들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고자하는 교육적 목적의 이틀리에 활성화를 통해 공동의 예술 공연 추진이 가능해진다. 프랑스 예술가들과 작품이 이런 콩세르바투아르를 통해 해외에 소개되고 인정을 받으며 프랑스에서도 알려지게 된다.
- 전문가 그룹
- 틴타스 프레스카스와 액트 프렌치 : 근래 연극 정책의 변화는 작가, 배우, 연출가 등 근본적인 면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활성화하게 만들었다. 2004년 ‘틴타스 프레스카스’ 프로그램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열린 프랑스 극작품 확산 프로그램이다. 2005년 ‘액트 프렌치’ 프로그램은 뉴욕에서 열린 프랑스 현대연극 진흥 프로그램이다. 개방된 연극도시엔 상파울로, 베이루트 등에서 연출가와 관련 팀이 10일간 정착하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은 예술가, 전문가들, 그리고 선정된 도시의 관계자들과 같이 협력하여 추진된다.
- 한 배우, 한 작가 : 한 배우, 한 작가 프로그램은 2001년부터 2004년 까지 38개국 52개 도시에서 추진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는 프랑스어로 쓰인 현대 극작품의 메신저가 된다.
- 르 풍 에탕 도네 기금 : 1999년에 설립된 이 기금은 매년 약 15개 프랑스 극대본의 미국인 예술가 연출을 지원한다. 이 기금이 쓰이는 용도 중 자막 지원기금은 2000년부터 외무부 지원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 클래식 음악 폴

: 강력한 프로그램들로 구축되어 있는 클래식 음악 폴 활동은 솔리스트, 앙상블, 연수 등을 지원한다. 다수 해외 프랑스 음악 프로젝트의 오래된 주요 후원자로서 AFSA는 재정 및 제작 지원을 한다.

- 사운즈 프렌치(페스티벌, 프랑스-미국 기금), 데클릭(실내악 연주자들 지

제4장 해외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원)

- 메세나/음악
- 트랑플랭 : 이 프로그램은 2004년부터 각종 해외 연주를 기획하는 이들에게 프랑스 국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중요한 예술가들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기획자들을 프랑스에서 열리는 연주자 중심의 페스티벌에 초청하고, 프랑스 국내를 넘어서는 가수들의 전문적인 독창회 활성화를 지원하기도 한다.
- 한 지휘자, 한 오케스트라 : 오케스트라 연주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프랑스 교향악 레퍼토리에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혹은 외국 오케스트라에 의해 입증된 프랑스 지휘자 초청을 지원한다.
- 프르미에르 리릭 : 이 프로그램은 프랑스 음악 문학의 걸작 제작 특히 20세기 작품들을 지원하며, 주요한 국제적인 무대를 통해 선보인다. AFAA는 소규모 프랑스 제작팀을 파견하여 프랑스의 젊은 연출가들과 현지 역량을 결합하여 일을 추진하게 도움을 준다.
- 뮌히크 악티엘 폴

: 뮌히크 악티엘 폴은 주제별 프로그램을 통해 프랑스 예술현장의 다양성을 진흥하고 확산하는 업무를 추진한다. 또한, 전 세계 프랑스 음악을 보급하는 기구와의 확실한 지원을 통해 시장 중심 세계에서 국제적인 진흥, 해외 문화네트워크와 협력하여 프랑스 예술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 제네라시옹 뮌히크 프로그램

: 해외 프랑스 문화 네트워크와 함께 구현하는 제네라시옹 뮌히크는 다양한 문화 교류, 대화를 진흥하고자 한다. 음악적인 면에 있어 다양한 음악의 예술가와 새로운 청중과의 만남을 도모한다.
- 확산

: 해외 주요 음악 행사의 프랑스 예술가의 참여를 지원한다. 또한 전 세계로 향하는 프랑스 예술가의 순회공연을 지원한다.
- 서커스, 거리예술 폴
- 무용 폴

제4장 해외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예컨대, 예술가와 그들의 공연작품이 세계 각지의 관련 페스티벌이나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된 극장에 순회하며 참여하는 경우이다.

- 창작 아프리카부

: 아프리카 대륙의 안무가, 무용수를 대상으로 그들의 연수 및 경력을 지원하여 국제무대에서 인정받게끔 도움을 준다.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 국가는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 경험이 있지만 아시아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특히 베트남 같은 국가들은 프랑스 문화를 환영, 선호하며 매우 긍정적으로 이를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아프리카는 조금 다른 경우인데 대다수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저개발국이어서 자국보다는 오히려 프랑스 측에서 아프리카 예술가들을 많이 지원한다.

- 메세나

: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기업을 통해 국가와 지역에 예술행사를 추진하고 지원한다. 대사관, 프랑스문화원, 알리앙스 프랑세즈 등과 같은 광범위한 네트워크와 함께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한다. 프랑스와 전 세계 각국에 제공되는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위해 AFAA는 협력기업들에게 다음과 같은 강력한 구현과 보상을 약속한다. 첫째, 대외홍보 시 협력기업 명시 둘째, ‘프레스티주’ 야간 공연행사 조직, 셋째, 프랑스 해외 개최 공연 초청, 넷째, 전시방문, 다섯째, 예술가들과의 만남, 여섯째, 기업명칭 수상 및 라벨 제도 창설이다.

점차 다수의 기업들이 문화행사를 지원하며 예술가를 후원하고 있다. AFAA는 현대예술 창작과 확산 지원이라는 미션 추구를 위하여, 늘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갖는다. 이와 같은 공동 활동을 통해 효율성과 이익 창출을 가능케 하며, 국가 발전과 사회의 현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협력, 문화 앵제너리부

- 레지던스, 연구, 지자체/ DRAC 폴

: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가들의 창작력을 고양시키며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 도움을 준다. 수혜 창작자들은 프랑스를 뛰어넘어야 하며, 자신을 둘러싸는 여러 현실 여건들에 맞서야 한다. AFAA는 1995년부터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분권화를 지원해왔다. 이 프로그램의 제 1목적은

제4장 해외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국제예술교류 촉진 및 지원이다. AFAA, 지자체, DRAC은 공동으로 각 지역이나 도시 거주 예술가들이 해외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틀리에 프로젝트를 통해서 프랑스와 해외 예술팀 간의 지속적인 협력, 공동제작가 작업, 연수를 할 수 있게 지원한다.

- 프로그램 드 콩방시온느망
- 창작을 위한 비자
- 세종(Saison)

5. 시사점 및 기회점 도출

프랑스의 ‘문화커뮤니케이션부’ 나 ‘세계 문화의 집’ 이 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쿠랑의 경우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연수 프로그램 형식으로써 배울 점이 매우 많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예술 국제 교류 부분에서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킬튀르 프랑스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제 전문 예술인들의 모임을 주선하는 것이다. 해외의 저명한 예술인들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우리나라 예술인들의 역량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예술가들이 해외의 예술에 관해 전문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또한, 초청된 해외 예술가들도 우리나라 예술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의 예술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초청받았던 예술가들이 본국이나 제3국에 우리나라의 예술을 소개하거나, 이들의 다음 창작품에 투영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둘째, 킬튀르 프랑스가 하고 있는 것처럼, 권역별 즉 6개 영역(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회의 및 전체 모임을 연간 1회 정도 개최하여, 함께 추진할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것도 제안할 만하다. 이들이 함께 모여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우리나라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면, 만들어낸 프로그램에서 해외의 예술에 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예술을 더욱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문화 세종이다. 문화 세종이란 1개의 외국 국가가 프랑스 전역에 당해 국가의

제4장 해외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다양한 문화를 온전하게 집중적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해외 예술에 관해 잘 모르는 편에 속한다. 국민들도 외국의 예술에 원래부터 관심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해외 예술에 관해 잘 모르고 관심도 잘 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매년 한 국가를 선정해서 그 국가의 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1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소개한다면, 공통된 맥락에서 예술을 이해하기도 용이하고 그 나라의 예술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가 매년 소개하는 나라와 협정을 맺어 우리나라에 그 나라의 예술을 소개할 동안, 그 나라에도 우리나라의 예술을 문화세종의 형식으로 소개할 수 있게 한다면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넷째, 사업 방향을 경제개발이 낙후된 국가들로 돌리는 것이다.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중앙아시아 등지로 눈을 돌려 그들의 문화를 체험하고 배우는 것도 예술 교류에 있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이 국가들의 문화 예술은 아직 체계적으로 알려진 것도 많지 않고 사람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는 분야인데 이러한 예술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소개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낙후된 국가의 예술가들을 아티스트 레지던스 사업과 연계시켜서 한국에 초청하여 작업실과 숙소 등을 제공하며 우리나라에서 예술 활동을 하게 하고, 문화 체험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접하기 어려운 이 지역의 예술을 쉽게 접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다섯째, 킬트르 프랑스의 시각예술, 건축, 문화예술부는 프낙이나 프락을 통해서 단채전, 주채전 및 프랑스 공공 컬렉션의 해외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전시회 참여 프랑스 예술가 및 프랑스 거주 예술가를 프랑스 갤러리 지원을 통해 후원하고 있다. 예컨대, 요즘 서울 메트로(Metro)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곳이 많은데, 굳이 갤러리를 따로 찾지 않더라도 서울메트로 광화문역에 있는 갤러리처럼 외국인 갤러리를 마련해서 순회적으로 외국 거주 예술가의 작품들을 전시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후원까지 해 주면 더 좋을 것이다.

여섯 번째, 이 부서는 프랑스와 외국 고등예술학교 예술가-강사 협력교류활동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요즘 예술가들은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에 미루어보아 각국의 외국 예술 고등학교와 연계를 맺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예술을 다른 나라 예술 고등학교 학생이 체험해 보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예술을 알리고, 접해 볼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즉, 학교에서 특별활동 형태로 한국예술을 보급하는 것이다.

제4장 해외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일곱 번째, 프랑스의 창작 아프리카부에서처럼 아프리카 대륙의 안무가, 무용수를 대상으로 그들의 연수 및 경력을 지원하여 국제무대에서 인정받게끔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도 의미를 가진다. 윤리적인 측면이나 자원 외교의 측면에서도, 아프리카 예술가들의 경력을 가꾸어 나아가는 데에도 일조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3절 일본의 주요 기관 및 활동

□ 개요

□ 조직도

[illegible]

20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정책연구 02

제4장 해외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외교의 방향성을 정하고 문화교류사업 실시기관인 국제교류기금과 연계하여 일본문화를 해외에 발신 하는 등 각종 문화교류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공연이나 전시를 통한 일본 문화 소개, 문화인/지식인 등의 해외 파견과 일본 초빙,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서 지적 교류, 해외 일본어 보급 및 일본연구 지원 뿐만 아니라 귀국 유학생회 지원을 포함한 유학생 교류, 청소년 교류 등을 실시 및 지원하고 있다. 문화교류부의 주요한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문화 교류 정책의 기획 입안 및 조정: 국가별 및 지역별 문화교류정책 기획과 입안, 다른 국가와의 문화협정, 문화 결정 교섭 및 체결, 문화교류에 관한 국제회의의 개최
- 국제교류기금에 대한 지도와 감독
- 각종 사업에 대한 협력: 문화관계 회의, 심포지엄 등의 개최에 대한 후원 및 협력, 국제문화 교류사업(문화제, 예술제, 음악제 등)에 대한 후원 및 협력, 일본 만국박람회 기념 기금의 해외사업 실시 관련 협력, 지방 공공단체나 민간단체에 의한 문화교류에 대한 정보제공 등
- 유학생 교류: 유학생 수용과 파견에 관한 업무, 유학을 마친 자에 대한 애프터케어(귀국 유학생회 지원) 실시
- 문화 무상 협력: 개발 도상에 있어서의 문화재/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문화관계 공연이나 전시 개최, 교육/연구 진흥을 위해 사용되는 기자재 구입자금 공여(문화 무상 협력, 시민문화 무상협력, 문화유산 무상협력 등 3종류)
- 문화유산 보존: 유네스코 문화유산보존 일본 신탁기금,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 일본 신탁기금 운영

2. 문부과학성

□ 개요

문부과학성에서는 교육, 과학기술/학술, 스포츠 분야의 국제교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유학생 교류, 교원 해외파견 등 다양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 연합대학에 대한 협력을 하는 등 국제기관을 통한 교류와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관련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제4장 해외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 문화청

문화청에서는 문화예술진흥 기본법과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에 따라 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국제화의 진전과 함께 국제적인 문화 교류를 통하여 일본의 매력적인 문화를 해외에 발산하여 국제사회에서 일본과 일본인의 존재감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문화청은 예술가/예술 단체에 의한 국제교류나 해외 문화유산 보존/복원에 협력을 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다양한 분야의 저명 문화인과 예술가가 일본에 모여 강연과 토론을 하는 ‘문화청 국제문화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일본의 문화인과 예술가를 해외에 파견하여 일본 문화에 대한 강연을 하고, 일본에 오는 외국의 저명한 예술가가 학교를 방문하는 ‘문화청 문화교류사’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3. 국제교류기금

□ 개요

국제교류기금은 외무성 문화교류부가 정한 문화외교정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민간에서 문화교류사업을 실시하는 각종 단체와 개인에 대해 외교상 필요성이 높은 국제교류를 다양한 각도에서 추진하여 일본의 조화로운 대외관계 유지/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국제교류기금은 도쿄 본부 외에 교토에 지부, 로마와 쾰른, 파리에 일본문화회관, 서울, 베이징, 방콕, 쿠알라룸푸르, 시드니, 토론토, 상파울로, 자카르타에 일본문화센터(8개), 런던, 로스앤젤레스, 뉴욕, 마닐라, 뉴델리, 멕시코, 부다페스트, 카이로에 주재원 사무소(8개)를 두고 있다.

교토 지부는 간사이 지역에 사는 초빙 외국인에 대한 편의 제공과 연설회, 영화회, 세미나 실시, 도서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해외 사무소의 주요 업무는 피초빙자 전형, 파견 전문가에 대한 편의 제공, 조성기관과의 연락, 일본어 강좌, 강연회, 영화회 개최와 공연/전시사업 알선, 도서관 운영, 현재의 문화/교육사정, 대일감정 등에 관한 보고 등이다.

제4장 해외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 추진체계

외무성, 문부과학성, 국제교류기금은 일본의 공식 및 비공식 문화교류활동을 추진 하는데 있어 중요한 보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문화 교류사업의 내용 측면에서 보면 외무성과 국제교류기금이 해외에 일본의 문화를 소개하고 일본어를 보급하는 등의 이른바 ‘발신형’ 교류를 중심으로 한 활동을 하고 있고, 문부과학성이 유학생을 받아들이고 교원을 파견하는 등의 ‘수신형’ 교류 사업을 하고 있다.

외무성은 국제교류기금의 감독관청으로서 기금업무 전반에 관한 관리 운영상의 책임을 지며 국제교류기금에 대한 정부 출자금, 국고보조금 교부 및 국제교류기금의 연간 예산 국회인가 등도 모두 외무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일본 정부 차원의 활동 기본방침은 외무성에서 정하고 있으며, 국제교류기금은 그 기본 방침에 따라 연간사업 계획을 책정하고 그것을 실시하는 것이 표면상의 원칙이지만, 일상 업무 운영에서는 국제교류기금의 자주성이 인정되고 있다.

□ 사업 내용

- 개요

국제교류기금은 미술, 무대예술, 영상, 문예 등 예술분야의 교류사업이나 공동제작, 사람과 생활에 관계된 다양한 분야의 문화교류사업 실시와 더불어 새로운 문화창조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국제교류기금의 공연 및 전시 사업은 일본의 전통 예능, 현대음악, 미술 공예작품 등을 해외에 소개하고, 이 같은 예술 매체를 통해서 해외 각국의 일본 이해를 심화시키고 상호 이해 증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연 사업에는 ‘기금 주최 사업’ 과 ‘기금 원조 사업’ 의 두 종류가 있으며, 전자는 국제교류기금 자체 내에서 기획하고 소요 경비 전액을 기금이 부담하는 것이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연 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이 부류에 속한다. 후자는 일본 공연 단체의 해외 공연에 대해서 국제교류기금이 부분적으로 원조를 하는 것으로 선진국에 대한 공연 사업은 이 부류가 많다.

전시 사업은 ‘국제전 참가’ 와 ‘해외 순회전’ 으로 이루어지며 전자는 베니스 비엔날레, 상 파울로 비엔날레, 파리 청년 비엔날레 및 인도 트리엔날레의 4대 국제전을 중심으로 기타 해외에서 정평이 난 국제전에 참가하여 예술품전을 개최하는 것이며, 후자는 일본의 전통 예술, 민족 예술, 현대 예술 또는 현대 사회를 소개하는 순회전을

제4장 해외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해외 각지에 파견하는 것이다.

문화 자료 작성 및 배포 사업은 외국에 일본의 문화, 사회 상황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도서나 인쇄물 기타 자료를 작성 및 배포하는 사업이다.

－ 인물 교류에 의한 일본문화 소개

- 장기파견: 일본에서 연구나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연구자를 보내, 그 연구 성과를 이용하여 일본인의 외국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 지역 연구자 파견 등
- 단기 파견: 소수의 그룹이 여러 나라를 순회하며 공연 등을 통해 일본의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소개 순회 파견. 혹은 각종 국제회의나 심포지엄에 학자, 문화인을 파견
- 장기 초빙: 외국의 일본 연구자, 예술가 등에게 4개월에서 1년 간 일본에서 연구할 기회를 제공하는 연구자 펠로우십, 외국 대학원생이 일본에 관한 테마로 박사 논문을 쓸 경우, 충분한 현장 조사나 자료 수집이 가능하도록 4개월에서 14개월의 기간 동안 일본에 초빙하는 박사논문 펠로우십, 해외각국 특히 일본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해 외국 전문가를 4개월 이상 12개월 동안 초빙하여 연구 기관 등에서 조언이나 지도, 또는 공동 연구를 담당케 하는 특정 지역 전문가 초빙 계획 등
- 단기 초빙: 국제적인 일류 문화인을 일본에 초빙하여 일본인, 일본 사회 체험을 통해 국제 친선과 상호 이해 촉진을 목적으로 한 특별 객원문화인 초빙, 주로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원을 그룹으로 초빙하여 일본의 교육과 문화를 시찰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고등학교 교원 초빙 계획

－ 해외 문화에 대한 협력 : 주로 개발도상국의 요청에 따라 문화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반대로 세계 각국에서 일본으로 초청하는 등 쌍방향 교류를 통해 인재육성에 협력한다. 또한 문화유산과 문화재보존 분야에서도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공동연구/대화를 하는 등 세계인과 함께 문화를 보존·육성하고자 한다.

－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 조형미술, 무대예술, 영상미디어 교육

제4장 해외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 일본연구·지적교류 (펠로우십 및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업)
- 특이사항
 - 대중국 특별사업: 중국에서의 일본연구자 육성과 일본과의 교류에 관계된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중국교육부와의 합의에 따라 대학원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북경 일본학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4. 시사점 및 기회점 도출

일본은 영국과 프랑스의 문화 국제 교류 분야에 있어서의 장점을 가져와서 자국에 맞게 수정하여 정책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우리나라의 특색에 맞추어서 해외의 정책을 어느 정도 변형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지방 공공단체나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문화 국제 교류가 활발한 편이다. 그래서 반드시 외교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각 민간단체가 외교부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민간단체들이 국제 교류에 관한 정보를 준다거나, 문화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직접 행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많은 민간단체가 문화 국제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지만, 정부 기관과는 긴밀한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정부가 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등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상기한 부분을 재정비하여, 정부는 민간단체와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부서를 새로 편성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내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일본에서는 유학생에 관한 애프터 케어 시스템(after care system)이 잘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유학 프로그램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 이들이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의 애프터 케어 시스템은 잘 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청년층을 양성한다는 목적도 좋지만, 이들이 유학을 갔다 와서 보고 배우고 또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즉, 유학을 보내주는 대신에, 유학 후에 이들의 경험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 나라에서 배울 점, 단점,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이와 관련된 독특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고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굳이 문화 사절단 같은 것을 파견해서 그 나라에서 배우고

제4장 해외의 국제 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 분석

오게 하지 않아도, 청년 유학생으로 일석 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일본문화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청 국제 포럼도 좋은 페스티벌 중의 하나이다. 일본의 예술가들을 해외로 보내서, 해외의 예술 문화를 배워오게 하거나, 일본의 예술을 전파하는 것도 좋지만, 해외의 예술가들을 일본으로 초청해서 그들로부터 직접 그들 나라의 좋은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듣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또한, 그 예술가들 눈으로 일본의 예술을 직접 보고, 평가하고, 그들이 귀국하여 일본의 예술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면 일본의 예술을 외국에 전파하는 효과도 동시에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의 예술가들을 일본에 초청 했을 때, 일본의 예술가들이 이들 외국 예술가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고 나아가 공동 작업을 하게 된다면, 일본 예술가들의 능력도 향상될 뿐만 아니라, 시야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고려해 볼 만한 프로그램이다.

네번째, 유명 예술인들의 학교 방문이다. 고등 예술학교로 외국의 유명 예술인들을 초청하여 각국의 예술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하게 하는 활동을 만들어서 미래 예술가들이 외국의 예술 문화를 직접 접해보고, 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일본 국제교류기금이 실시하고 있는 ‘문화교류사’ 사업의 경우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것을 우리나라에 적용해서, 우리의 예술 문화 등을 해외 고등 예술 학교에서 접할 수 있는 것도 좋을 것이다. 외국의 예술을 배우는 것만큼 우리나라의 특이한 예술을 전파하는 것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예술은 특이한 만큼, 해외 예술 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는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체험활동을 만들어 나간다면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예술을 외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

다섯번째로,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나라와 문화적 유사점 및 역사적으로 공유하는 부분들이 많으므로, 양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역적으로 특화된 부서를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와 교류가 많았던 지역들인 만큼, 예술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도 많고, 배울 점이 많은 나라들일 수 있다. 예컨대, 일본의 ‘대중국 프로젝트’ 처럼 우리나라도 대일본, 대중국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여 볼 필요가 있다.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제1절 : 예술위 국제지원 사업의 실증 분석

제2절 : 새로운 예술위 역할과 국제교류사업 강화 전략 수립

제3절 : 전략적 제안 프로그램

제4절 : 사업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제1절 문화예술위원회 국제지원 사업의 실증 분석

1. 국제교류 및 국내지원의 실증 분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부문 사업은 국제교류 사업이라는 항목에 주로 분류되어 있으나 다른 영역에도 국제적인 성격의 사업이 숨어 있어 정확하게 국제화 비중을 파악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이전 장들에서 2008-2009년도의 국제부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차적 자료를 분석한 데에 이어서 본 장에서는 2005-2009년의 5개년의 자료를 바탕으로 포괄적인 심층적인 분석을 하였다. 예술위 제공 데이터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있지 않고 오류 부분들이 있어서 분석을 위하여 전반적인 재수정이 필요하였다. 전체적인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았다. 영역별 평균지원액수를 보면 문화일반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지원사업을 포기한 숫자는 장르별로 다음과 같다. 전체 사업규모에 비해서는 극히 미미하나 절대건수로 보면 시각예술(33건)과 전통예술(23건)의 경우에 절대적인 건수가 타장르보다 많다.

〈표 5-1〉 장르별 사업포기 건수

영역	사업포기	총계
기금심의	1	1
다원예술	5	5
무용	11	11
문학	7	7
문화일반	15	15
시각예술	33	33
연극	16	16
음악	15	15
전통예술	23	23
총계	126	126

2005년~2009년 사이의 사업을 포기한 경우를 제외한 지원영역별 지원횟수는 다음과 같다. 전체 지원건수 대비 포기건수의 상대적 측면에서도 시각예술 분야의 경우 전체 지원 1728건 대비 포기 33건으로 1.91%의 포기율을 보여 가장 높은 포기율을 기록하였고, 이어 전통예술(1.56%), 연극(1.55%), 그리고 무용(1.50%)이 높은 포기율을 보였다. 반면 문학의 경우, 가장 낮은 포기율(0.475)을 보였고 문화일반의 포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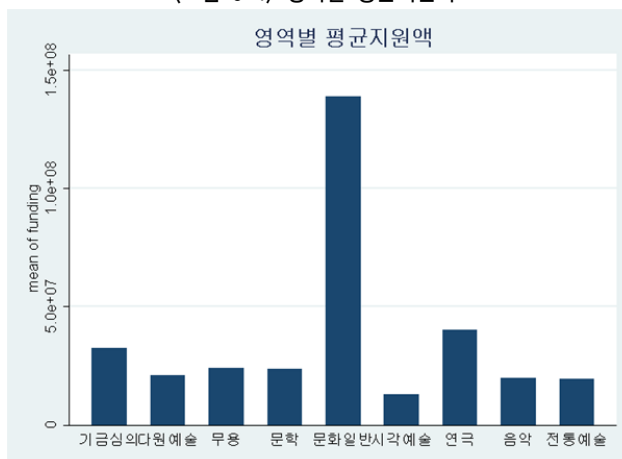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0.81%)도 낮은 편이었다. 전체적인 포기율이 심각할 정도로 높은 수준은 아니다. 전체적인 균형을 살펴보면, 숫자상으로는 상당히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영역별 평균지원액수를 그래프로 만들어 보았다. 문화일반의 경우, 평균지원액수가 크고 연극을 제외한 나머지 장르들은 비슷한 규모를 보인다. 시각예술은 작은 액수를 다수에게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5-2〉 장르별 지원건수 및 전체에서의 비중

장르	건수	Percent
기금심의	149	1.48
다원예술	400	3.99
무용	732	7.29
문학	1,500	14.95
문화일반	1,842	18.36
시각예술	1,728	17.22
연극	1,032	10.28
음악	1,175	11.71
전통예술	1,477	14.72
Total	10,035	100

〈그림 5-1〉 영역별 평균지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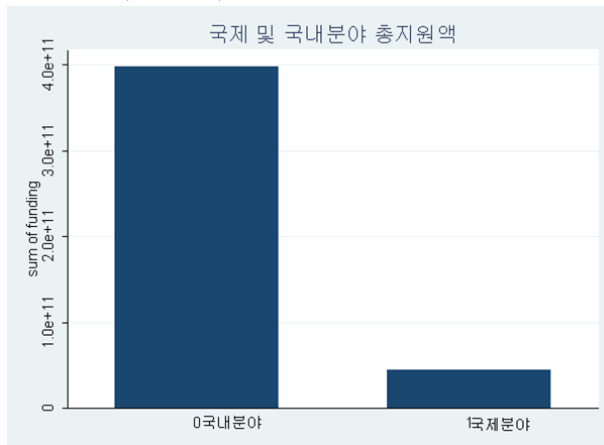


기금심의의 경우 그 안에 기존의 예술 장르로 재분류할 수 있어 8개 분야로 재구성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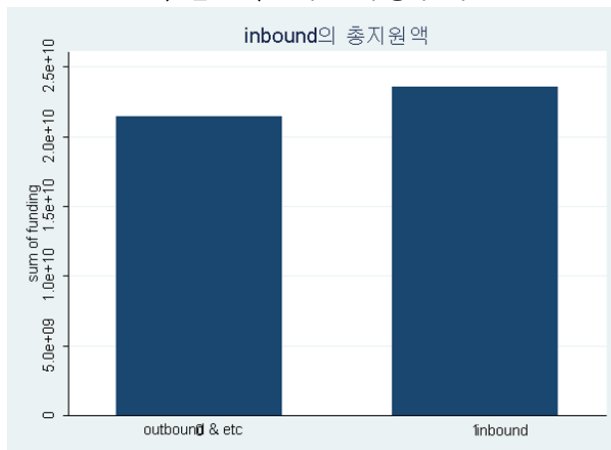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국제와 국내분야의 총지원액을 비교하면 국제분야의 지원액수는 절대적으로 작다. 이는 분야별 형평성,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감안하면 아주 비합리적인 수준은 아니다. 한편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비교해 본 결과 국제분야에 있어서의 인바운드의 금액이 아웃바운드보다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원금액이 큰 문화일반을 제외하면 순수예술분야에서는 인바운드 사업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각예술분야는 아웃바운드지원의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림 5-2〉 국제 및 국내 분야 총지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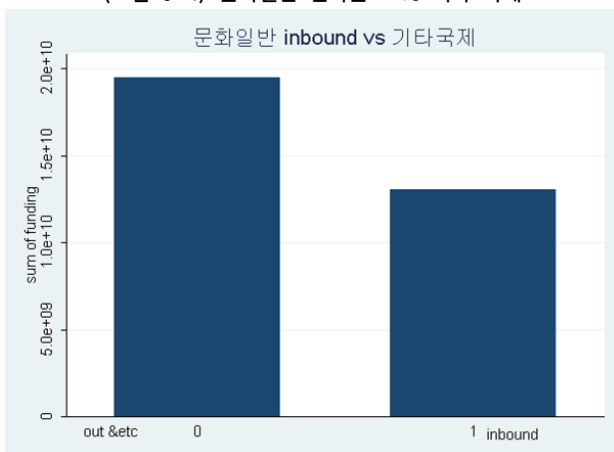


〈그림 5-3〉 인바운드의 총지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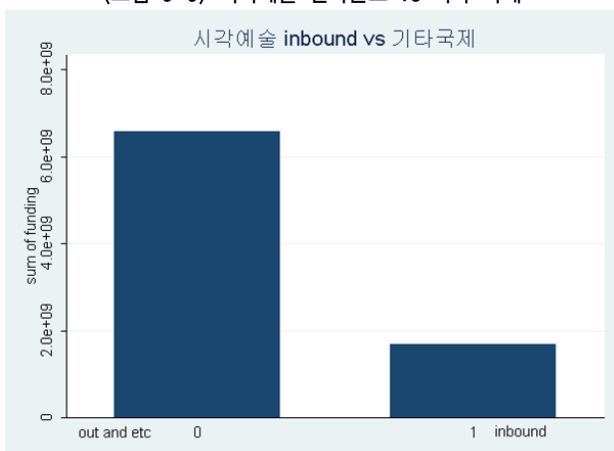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그림 5-4〉 문화일반 인바운드 vs 기타 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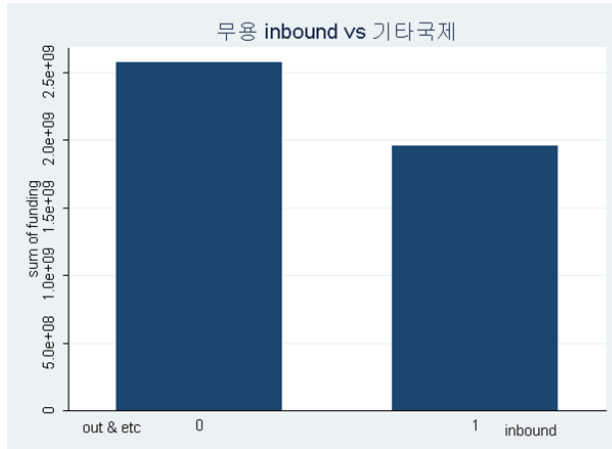


〈그림 5-5〉 시각예술 인바운드 vs 기타 국제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그림 5-6〉 무용 인바운드 vs 기타 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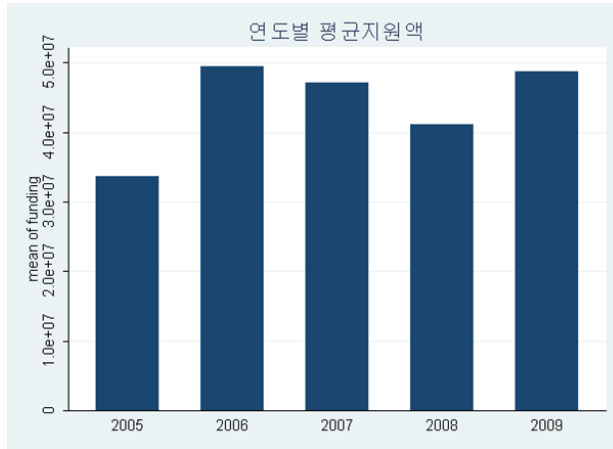
연도별 · 장르별 지원횟수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지원 건수측면에서 2005년 2,3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8년에 2,107건으로 반등한 후 2009년에는 1,422건으로 지원 건수가 대폭 감소하였다. 주의할 점은 지원 건수가 많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원의 선택과 집중은 문화 예술의 지원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표 5-3〉 연도별 장르별 지원횟수

genre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총계
다원예술	50	91	95	98	66	400
무용	125	179	160	170	107	741
문학	507	288	251	260	205	1,511
문화일반	594	358	323	337	268	1,880
시각예술	330	386	375	401	272	1,764
연극	228	227	222	223	154	1,054
음악	198	235	276	277	209	1,195
전통예술	272	391	345	341	141	1,490
총계	2,304	2,155	2,047	2,107	1,422	10,035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그림 5-7〉 연도별 평균지원액



장르별로 사업자의 우편번호로 알아본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소재지로 보면, 서울의 비중이 압도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수한 예술가 및 예술 기관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오히려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 역지로 지원을 지역별로 분산시키는 것은 역차별의 소지가 클 수 있다.

〈표 5-4〉장르별 지원받은 개인/단체의 우편번호 소재지

소재지	장르								
	다원예술	무용	문학	문화일반	시각예술	연극	음악	전통예술	총계
강원	14	10	65	63	15	78	14	33	292
경기	61	80	213	341	358	77	129	151	1,410
경남	2	14	49	79	11	18	4	60	237
경북	1	3	25	29	15	17	3	21	114
광주	6	2	37	39	23	11	24	26	168
대구	9	9	34	65	19	12	37	40	225
대전	3	4	27	43	24	18	11	15	145
부산	12	21	89	86	27	36	44	37	352
서울	263	564	649	829	1,089	705	854	904	5,857
울산	0	2	11	29	4	2	1	7	56
인천	4	4	29	50	30	13	2	31	163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전남	1	1	47	51	7	8	1	30	146
전북	2	7	72	51	33	18	38	58	279
제주	5	1	18	34	12	14	10	21	115
충남	4	3	23	39	13	5	5	16	108
충북	6	8	40	47	15	17	9	26	168
해외	4	5	22	4	57	2	6	11	111
Total	397	738	1,450	1,879	1,752	1,051	1,192	1,487	9,946

장르별 지원사업이 실제 일어난 장소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서울은 전체 10,011건 중 4,916건을 차지하여 해외(1,168건)와 경기(763건)와 큰 차이를 보이는데, 서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해외를 제외할 경우, 전체 8,843건 중 4,916건을 차지하여 전체의 절반이상(55.6%)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5-5〉장르별 지원사업이 실제 일어난 장소의 분포

소재지	장르								
	다원예술	무용	문학	문화일반	시각예술	연극	음악	전통예술	총계
강원	15	8	72	59	12	55	28	41	290
경기	27	37	105	324	75	44	74	77	763
경남	4	17	53	75	9	25	14	62	259
경북	0	8	26	42	12	19	12	28	147
광주	6	0	31	39	15	9	11	24	135
대구	9	6	27	53	12	7	42	22	178
대전	3	2	25	31	12	12	14	13	112
부산	10	17	75	83	28	22	45	23	303
서울	261	405	642	569	1,039	567	662	771	4,916
울산	1	1	12	28	2	3	1	7	55
인천	4	3	16	44	16	15	4	17	119
전국	11	32	135	190	80	85	90	86	709
전남	1	4	56	56	8	15	17	37	194
전북	4	5	54	50	23	17	35	46	234
제주	5	3	17	37	12	13	10	20	117
충남	5	3	25	61	8	15	15	16	148
충북	6	4	37	52	12	17	11	25	164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해외	26	181	103	85	387	113	106	167	1,168
Total	398	736	1,511	1,878	1,762	1,053	1,191	1,482	10,011

장르별로 국내사업과 국제사업의 상대적 비율은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전체 사업중 국제사업의 비중이 16.1%, 국내 사업이 83.9%로서 국내사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 무용의 경우, 국제사업의 비중이 33.3%로서 타 장르에 비하여 국제사업의 비중이 높았고, 시각예술의 경우에도 국제사업의 비중이 25.3%로서 국제사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반면, 문학의 경우, 국제사업의 비중이 10%에도 못미쳤고, 다원예술의 경우에도, 국제사업의 비중이 11%에 머물렀다.

〈표 5-6〉 장르별 국내사업과 국제사업의 비중

장르	국내사업	국제사업	총계
다원예술	356	44	400
무용	494	247	741
문학	1,390	121	1,511
문화일반	1,652	228	1,880
시각예술	1,317	446	1,763
연극	893	161	1,054
음악	1,025	170	1,195
전통예술	1,290	200	1,490
총계	8,417	1,617	10,034

2. 국제교류 지원의 실증적 분석(인바운드 vs 아웃바운드)

예술위의 국제부문 지원에 있어서의 불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문화일반의 경우 인바운드(inbound)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단체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며, 그 차이는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문화일반의 국제화 사업은 아래의 표에 정리되어 있다. 시각,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등의 순수예술 분야에 있어서 아웃바운드(outbound)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훨씬 크다. 개인과 단체를 비교하여 보면, 단체의 인바운드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개인 차원의 인바운드는 거의 없다. 외국예술가들을 한국에 오게 만드는 다양한 방식의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되었고 이와 관련된 대책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표 5-7〉 문화일반의 국제화 분포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총계
개인	0	15	15
단체	155	76	231
총계	155	91	246

Pearson $\chi^2(1) = 27.2$ Pr = 0.000

〈표 5-8〉 시각, 공연예술, 전통예술 등의 국제화 분포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총계
개인	20	584	604
단체	349	630	979
총계	369	1,214	1,583

Pearson $\chi^2(1) = 218.5$ Pr = 0.000

장르별로 예술 국제사업을 아웃바운드(Outbound)와 인바운드(inbound)로 나누어 분리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In)도 아니고 아웃(out)도 아닌 국제사업은 전체에서 인/아웃의 합을 제하면 된다. 전체적으로 아웃바운드의 비중(76.7%)이 인바운드(23.3%)의 비중에 비하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장르별로는 시각예술의 경우, 아웃바운드(outbound)의 비중이 전체 497건중 394건으로 79.3%를 차지하여 불균형이 가장 심하였고, 전통예술도 전체 222건중 173건이 아웃바운드로서 인바운드와의 불균형이 심한 편이었다. 반면, 다원예술이나 음악의 경우에는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간에 상대적으로 균형이 잡힌 편이었다. 다원예술의 경우, 비록 건수는 적지만, 전체 46건중 25건이 아웃바운드로서 그 비중이 54.3%였고 인바운드의 비중은 45.7%였다. 음악의 경우에는 전체 198건중 110건이 아웃바운드(outbound)로서 전체의 55.6%, 그리고 인바운드(inbound)가 88건으로서 전체의 44.4%를 차지하였다. 전체건수에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시각예술 분야에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간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표 5-9〉 장르별 국제사업중 인바운드(inbound)와 아웃바운드(outbound)의 비중

장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총계
다원예술	19	25	46
무용	69	182	261
문학	23	104	136
시각예술	80	394	497
연극	54	113	180
음악	75	110	198
전통예술	36	173	222

〈표 5-10〉 문화일반 outbound 수혜단체(총 76건 중 2회 이상 수혜자)

단체명	건수	percent
통합문화연구소	4	5.26
국제박물관협의회한국위원회	3	3.95
아힘나운동본부	3	3.95
연극놀이터해마루	3	3.95
품청소년문화공동체	3	3.95
(사)동아시아문화교류협회	2	2.63
(사)민예총충북지회	2	2.63
ACC(프랑스한국문화협회)한국지부	2	2.63
남북폰트디자인교류연구회	2	2.63
서울프린지네트워크	2	2.63
신나는문화학교 교사협회	2	2.63
어린이와도서관	2	2.63
중국문학과예술지	2	2.63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2	2.63

〈표 5-11〉 문화일반 인바운드 수혜단체(총 157건 중 2회 이상 수혜자)*

단체명	건수	percent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28	17.83
(사)제천국제음악영화제집행위원회	11	7.01
(사)동아시아문화교류협회	9	5.73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8	5.1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운영위원회	5	3.18
(사)예총강릉지부	4	2.55
부산국제광고제 조직위원회	4	2.55
타악프로젝트그룹HATA	4	2.55
(사)민예총충북지회	3	1.91
(사)왕산	3	1.91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3	1.91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	3	1.91
(사)민예총안산지부	2	1.27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 페스티벌	2	1.27
(사)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2	1.27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2	1.27
(재)부천만화정보센터	2	1.27
(재)서울국제공연예술제	2	1.27
APPAN한국본부	2	1.27
가네샤프로덕션	2	1.27
가야세계문화축전 집행위원회	2	1.27
강원대학교 일본연구센터	2	1.27
거창국제연극제 사랑티켓 추진위원회	2	1.27
사단법인 웃는돌	2	1.27
의정부음악극축제집행위원회	2	1.27

*: 조건부 기부금 지원 포함

아래의 표는 문화일반이 아닌 순수예술의 제반 장르에서 아웃바운드(outbound)와 인바운드(inbound)부문의 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수혜단체의 명단을 정리한 것이다. 아웃바운드의 경우, 예술위의 중점 사업의 지원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특정단체가 지속적으로 다른 단체의 지원기회를 가져가게 되므로, 검토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무조건적으로 횡수 제한을 할 필요는 없지만 지원의 근거와 그 효과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제시가 보다 엄격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 인바운드를 살펴보면, 무용분야의 경우, 소수 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국제화 분야의 연구만을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대상으로 하기에 제외했지만 일반 사업의 경우 특정 단체의 독식 현상이 상당히 나타나는데도 명기해 둔다.

또한 무용, 음악 등은 인바운드(inbound)의 비중이 어느 정도 높지만 시각예술의 경우 한국 예술가 개인의 외국 체험에 높은 비중을 두고 예산이 지원되는 경향이 있다. 미술분야의 아웃바운드(outbound)가 비중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여 앞으로의 지원방향을 잡을 필요는 있다. 다른 분야의 아웃바운드를 더 지원하거나 미술분야의 인바운드를 강조하는 것이 국제화 사업의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표 5-12〉 아웃바운드 지원 받은 장르예술 단체 (3회 이상 수혜단체 명단)

단체명	건수	Percent
(사)세종솔로이스츠	12	1.9
라익스아카데미	8	1.27
국제현대음악협회(ISCM)한국위원회	6	0.95
(사)TMF앙상블	5	0.79
(사)문협미주지회	5	0.79
창악회	5	0.79
한국연극평론가협회	5	0.79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한국본부	4	0.63
(사)국제펜클럽한국본부	4	0.63
(사)민족미학연구소	4	0.63
(사)민족음악원	4	0.63
(사)서울바로크합주단	4	0.63
(사)한국문인협회	4	0.63
6.15민족문학인남측협회	4	0.63
극단골목길	4	0.63
극단노들	4	0.63
김학철문학연구회	4	0.63
도라지잡지사(길림)	4	0.63
원	4	0.63
사다리움직임연구소	4	0.63
아시아금교류회	4	0.63
장유경무용단	4	0.63
조남규송정은무용단	4	0.63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쿤스트독	4	0.63
포즈댄스씨어터	4	0.63
한국미술평론가협회	4	0.63
한국전통문화예술단소리나루	4	0.63
한국전통음악학회	4	0.63
(사)벤티쿠버한국전통예술원	3	0.48
(사)서울무형문화재기능보존회	3	0.48
(사)작곡가협회에이씨엘코리아	3	0.48
(사)한국건축가협회	3	0.48
(사)한국국악협회	3	0.48
(사)한국수필가협회	3	0.48
(사)해동	3	0.48
공연창작집단뛰다	3	0.48
극단Art-3Theatre	3	0.48
극단북새통	3	0.48
극단창파	3	0.48
극단초인	3	0.48
김용철설무용단	3	0.48
노름마치	3	0.48
박재희새암무용단	3	0.48
베세토연극제한국위원회	3	0.48
서울기타콰르텟	3	0.48
아시아음악학회	3	0.48
아지드현대무용단	3	0.48
인도를생각하는예술인모임	3	0.48
제이엠코리아(청음)	3	0.48
포스트에고무용단	3	0.48
풍물굿패소리결	3	0.48
한국창극원	3	0.48
현대음악앙상블에클라	3	0.48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표 5-13〉 인바운드 지원 받은 장르예술 단체 (3회 이상 수혜단체 명단)

단체명	건수	percent
국제무용협회한국본부	8	2.21
(사)한국현대무용협회	7	1.93
(재)서울국제공연예술제	7	1.93
(사)대한무용학회	6	1.66
(사)작곡가협회에이씨엘코리아	6	1.66
(사)한국현대무용진흥회	6	1.66
국제문화커뮤니케이션즈	6	1.66
한국연극연출가협회	6	1.66
(사)춘천마임축제	5	1.38
(사)한국작가회의	5	1.38
(재)통영국제음악제	5	1.38
한국전자음악협회	5	1.38
한일연극교류협의회	5	1.38
동북아음악연구소	4	1.1
범음악제	4	1.1
한일댄스페스티벌추진위원회	4	1.1
(사)뉴서울오페라단	3	0.83
(사)민족미술인협회	3	0.83
(사)베누스토 음악인연합회	3	0.83
(사)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	3	0.83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3	0.83
(사)한국발레협회	3	0.83
21세기악회	3	0.83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IPAP)	3	0.83
극단노뜰	3	0.83
사단법인웃는돌	3	0.83
서울국제문화교류회	3	0.83
세계무용연맹 한국본부	3	0.83
영남작곡가협회	3	0.83
예인음악연구회	3	0.83
한양대음악연구소	3	0.83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국제사업의 경우, 코드별 장르별 지원횟수의 분포는 <표5-14>와 같다.

<표 5-14> 국제사업의 코드별 장르별 지원횟수의 분포

code_sub2	장르								총계
	다원 예술	무용	문학	문화 일반	시각 예술	연극	음악	전통 예술	
(북권)문화소외지역대1	0	0	0	1	0	0	0	0	1
국제레지던스프로그램1	9	7	7	0	50	4	0	0	70
남북및재외동포예술교1	5	8	8	8	70	3	5	20	56
다원예술지원	8	0	0	0	0	0	0	0	8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	0	36	17	18	101	39	34	45	290
문화예술사회공헌활동1	10	0	0	22	3	3	8	2	52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	0	0	0	0	2	0	0	0	2
사회적인식 제고	0	4	0	18	4	0	8	3	37
수요자맞춤형지원사업	3	11	0	2	16	5	8	0	45
신진예술 지원	3	14	6	0	3	0	0	0	26
신진예술가지원	0	1	0	0	4	0	1	0	6
예술보존조사연구지원	0	1	0	0	0	1	0	0	1
예술창작및표현활동지	1	0	0	0	3	0	0	1	6
예술창조역량강화특화	0	0	0	0	5	0	0	0	5
전국연극제및무용제지	3	0	0	0	0	3	0	0	6
함께누리	0	0	0	0	1	0	0	0	1
해외문화기관교류및해	0	4	4	0	3	0	0	4	13
Total	18	95	42	71	202	58	64	75	625

Codeadmin과 장르별 지원횟수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국제사업의 경우)

<표 5-15> 국제사업의 장르별 지원횟수의 분포*

code_admin	장르								총계
	다원 예술	무용	문학	문화 일반	시각 예술	연극	음악	전통 예술	
(북권)공연전시나눔	0	0	0	1	0	0	0	0	1
(북권)기초예술과함께	0	0	0	0	0	0	0	1	1
(북권)소외지역-다문화	0	0	0	1	0	0	0	0	1
(북권)소외지역을찾아1	0	0	0	0	0	0	0	1	1
(북권)소외지역을찾아2	0	0	0	2	1	0	0	4	4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세출)조건부기부금	0	0	0	41	0	0	0	0	41
(수요자)청년인턴채용1	0	0	0	2	0	0	0	2	2
AIR 국제스튜디오 프로	0	0	0	0	1	0	0	0	1
AIR 한국작가 파견사업	0	0	0	0	1	0	0	0	1
계기성기획사업지원	8	16	9	5	40	14	13	15	120
공연예술창작전문단체1	0	0	0	0	0	0	1	1	1
국내레지던스프로그램1	1	1	0	0	0	0	0	3	3
국제교류공동사업지원	0	0	4	2	3	0	0	4	13
국제교류행사지원	0	13	8	10	33	13	14	19	110
국제기구가입단체활동1	0	0	0	4	0	0	0	5	5
국제레지던스프로그램2	0	0	0	2	5	0	0	8	8
국제예술기구활동지원	0	1	1	3	1	2	3	1	12
기부금사업	0	4	0	20	3	1	13	3	44
남북및재외동포예술교1	3	3	6	6	2	3	9	30	30
남북및재외동포예술교2	4	4	8	7	5	5	18	50	50
남북및재외동포예술교3	1	1	0	1	2	0	2	6	6
다원예술지원	4	0	0	0	0	0	0	0	4
다원예술지원(일반)	8	0	0	0	0	0	0	0	8
다원적예술활동지원(공모)	1	0	0	0	0	0	0	0	1
문화활동지원	0	0	1	0	0	0	0	0	1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2	0	35	15	21	104	37	32	37	281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1	0	51	19	35	86	48	33	47	319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3	0	6	0	0	17	7	6	7	43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4	0	0	0	0	0	0	0	1	1
문화예술체험지원(공모)	0	1	0	0	0	0	0	0	1
민족문화교류지원(공모)	0	3	11	7	6	3	5	20	55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1	0	0	0	0	2	0	0	0	2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2	0	0	0	0	4	0	0	4	4
베타니엔스튜디오작가1	0	0	0	0	2	0	0	0	2
베타니엔스튜디오참가1	0	0	0	0	2	0	0	0	2
베타니엔한국작가파견1	0	0	0	0	1	0	0	0	1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1	1	0	0	0	0	0	0	0	1
수요자맞춤형지원사업	3	11	0	0	16	5	8	0	43
시각예술기획사업발굴1	0	0	0	0	2	0	0	2	1
시각예술특성화-인사미	0	0	0	0	5	0	0	0	1
신진예술가 뉴스타트 1	1	12	4	0	0	0	0	5	55
신진예술가뉴스타트 2	3	14	6	0	2	0	0	0	2
신진예술가시각대위지원1	0	0	0	0	1	0	0	1	4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신진예술가지원(공모)	0	10	0	0	4	2	2	1	22
신진예술가프로그램2	2	16	10	0	2	5	0	37	
아르코 영 아트 프론티	0	1	0	0	4	0	1	0	6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	1	0	1	2	1	0	1	1	7
예술보존조사연구지원1	0	1	0	0	0	0	0	0	1
예술보존조사연구지원2	0	0	1	2	0	0	1	0	4
예술자료정보화및보급1	0	0	0	0	0	0	0	1	1
예술창작 및 표현활동2	0	0	0	0	0	0	1	2	2
예술창작및표현활동지1	1	1	0	0	1	0	1	6	6
예술창작지원(공모)	0	0	1	1	2	0	0	1	5
장애인문화접근성확대1	0	0	2	0	0	0	0	2	2
전국규모예술행사육성	1	1	0	0	1	2	0	0	5
전국무용제 지원	0	2	0	0	0	0	0	0	2
전국무용제개최	0	3	0	0	0	0	0	0	3
전국연극제개최	0	0	0	0	0	4	0	0	4
전국연극제지원	0	0	0	0	0	2	0	0	2
전통예술발표및전승보1	0	0	0	0	0	0	2	2	2
전통예술활성화지원	0	0	0	0	0	0	0	1	1
조건부기부금사업지원1	4	6	1	10	6	0	9	1	37
조건부기부금사업지원2	4	14	0	40	3	16	5	5	89
지방사랑티켓운영지원	0	0	0	3	0	0	0	0	3
창작프로그램지원(공모)	3	0	0	0	0	0	0	0	3
탈북자 문화예술 프로1	0	0	0	0	0	0	0	1	1
탈북자 문화예술프로2	0	0	0	0	0	0	1	1	1
함께누리-장애인 활동	0	0	0	0	1	0	0	0	1
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	0	2	3	0	8	1	0	0	14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1	0	1	4	0	1	0	0	23	23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2	0	5	4	0	1	0	0	22	22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3	0	4	0	0	1	0	0	20	20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4	0	3	3	0	0	0	0	17	17
해외문화학원기초조사	0	0	1	0	0	0	0	0	1
해외민간문화단체교류1	0	1	0	0	0	0	0	1	1
총계	44	247	121	228	446	161	170	200	1,617

*: 조건부 기부금 사업 지원 포함

국제사업에서, 장르별 사업기간별 지원횟수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전체 지원 중 1개월 이내의 초단기지원의 비중이 타 장르에 비하여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르들은 음악(66.7%), 전통예술(65.7%), 문화일반(64.1%)이다. 반면, 시각예술 분야의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경우, 초단기지원의 비중이 전체 366건 중 89건으로 전체의 24.3%에 불과하였다. 물론, 장르간의 특성의 차이상 어느 정도 불균형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장르간 균형이 보다 더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5-16〉 장르별 사업기간별 지원횟수의 분포

장르									
사업기간	다원예술	무용	문학	문화일반	시각예술	연극	음악	전통예술	총계
1개월이내	20	119	43	125	89	94	106	119	715
1~3개월	2	25	3	28	29	21	25	32	165
3~6개월	2	9	9	5	109	20	15	8	177
6~9개월	4	20	8	3	54	6	3	7	105
9~12개월	1	16	13	10	28	0	4	3	75
1년이상	6	27	19	24	57	11	6	12	162
총계	35	216	95	195	366	152	159	181	1,399

국제사업 전체의 인바운드(Inbound)와 아웃바운드(Outbound) 지원횟수를 비교하면 아웃바운드의 지원횟수가 압도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4 배 이상으로 외국에서 하는 사업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장르별로 조사를 해 보면 문화일반을 제외하고는 모든 장르에서 아웃바운드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표 5-17〉 국제사업 전체의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지원횟수

	Not	outbound	총계
Not	192	1,128	1,320
inbound	270	27	297
총계	462	1,155	1,617

〈표 5-18〉 다원예술의 인바운드 대 아웃바운드 지원횟수(국제사업)

	Not	outbound	총계
Not	10	25	35
inbound	9	0	9
총계	19	25	44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표 5-19〉 무용의 Inbound versus Outbound 지원횟수(국제사업)

	Not	outbound	총계
Not	25	179	204
Inbound	43	0	43
총계	68	179	247

〈표 5-20〉 문학의 인바운드 대 아웃바운드 지원횟수(국제사업)

	Not	outbound	총계
Not	8	102	110
Inbound	11	0	11
총계	19	102	121

〈표 5-21〉 문화일반의 인바운드 대 아웃바운드 지원횟수(국제사업)

	Not	outbound	총계
Not	61	85	146
inbound	82	0	82
총계	143	85	228

〈표 5-22〉 시각예술의 인바운드 대 아웃바운드 지원횟수(국제사업)

	Not	outbound	총계
Not	27	368	395
inbound	35	16	51
총계	62	384	446

〈표 5-23〉 연극의 인바운드 대 아웃바운드 지원횟수(국제사업)

	Not	outbound	총계
Not	17	111	128
Inbound	31	2	33
총계	48	113	161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표 5-24〉 음악의 인바운드 대 아웃바운드 지원횟수(국제사업)

	Not	outbound	총계
Not	24	102	126
Inbound	40	4	44
총계	64	106	170

3. 국제교류지원의 지원액 분석

국내지원과 국제지원의 평균지원 액수를 비교하면 〈표5-25〉와 같다.

전체지원분야에서 국내사업이 국제사업보다 평균지원액수가 2배 가까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지만 시각예술분야에서는 국제 부분이 국내 보다 평균 300만원 이상 큰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공연예술의 경우에는 국내 사업이 국제 사업보다 1000만원 더 평균 지원 액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5-25〉 국내지원과 국제지원의 평균지원액수

(단위: 만원)

Group	전체지원분야		시각예술		공연예술	
	건수	평균	건수	평균	건수	평균
국내사업	8416	4750	1317	1270	2412	3010
국제사업	1617	2500	446	1560	578	2000
	$t = 3.2194$		$t = -1.9735$		$t = 2.8840$	
	$\Pr(T > t) = 0.0006$		$\Pr(T < t) = 0.0243$		$\Pr(T > t) = 0.0020$	

장르별 지원액수를 살펴보면, 국내 사업이 국제 사업보다 평균 지원액수가 더 큰 분야는 무용, 연극이다. 반면, 다원예술과 시각예술은 국제사업의 평균 지원액이 더 많았다. 문학과 음악은 국제과 국내 부분에 격차가 유의한 정도로 나타나지 않았다. 특기할 만한 것은 문화일반의 지원 액수가 타 분야보다 월등하게 커서, 국내사업의 평균 액수는 1억 5000만원 정도이나 국제사업은 5000만원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표 5-26〉 장르별 지원액수

(단위: 만원)

	장르													
	다원예술		무용		문학		문화일반		시각예술		연극		음악	
Group	Obs	Mean	Obs	Mean	Obs	Mean	Obs	Mean	Obs	Mean	Obs	Mean	Obs	Mean
국내사업	356	2010	494	2800	1390	2370	1652	15000	1317	1270	893	4340	1025	1950
국제사업	44	2880	247	1540	121	2500	228	5090	446	1560	161	2570	170	2130
T값	-1.56		5.23		-0.07		2.57		-1.97		1.72		-0.808	
	Pr(T < t) = 0.0588		Pr(T > t) = 0.0000		Pr(T < t) = 0.4696		Pr(T > t) = 0.0051		Pr(T < t) = 0.0243		Pr(T > t) = 0.0426		Pr(T < t) = 0.2094	

연도별 공연예술과 시각예술의 평균 지원액수를 비교하여 보았다. 2005년과 2009년에는 공연예술의 평균 지원액이 시각예술보다 크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2006년, 2007년, 그리고 2008년에는 공연예술과 시각예술간의 지원액수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고, 특히 2007년에는 시각예술에의 지원금액이 더 컸다.

〈표 5-27〉 연도별 공연예술과 시각예술의 평균지원액수

(단위: 만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Group	Obs	Mean	Obs	Mean	Obs	Mean	Obs	Mean	Obs	Mean
공연예술	104	1500	129	2200	128	1680	119	2140	98	2540
시각예술	76	1060	79	2080	89	1780	80	1600	122	1350
T값	1.73		0.14		-0.38		1.04		2.02	
	Pr(T)t=0.0425		Pr(T)t=0.4415		Pr(T)t=0.3503		Pr(T)t=0.1489		Pr(T)t=0.0221	

국제사업의 경우, 서울과 지방의 평균지원액수를 비교해보았다.

연도별로 서울과 지방의 지원 액수는 유의한 정도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서울과 지방에 대한 평균지원액수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07년의 경우,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서울보다는 지방에의 지원의 평균액수가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더 컸다. 2008년의 경우, 서울에의 지원이 지방에의 지원액보다 컸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2009년에는 지방으로의 지원이 서울에의 지원보다 컸고, 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5-28〉 서울과 지방의 평균지원액수 (국제사업)

	2005~2009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Group	건수	평균	건수	평균	건수	평균	건수	평균	건수	평균	건수	평균
서울	1008	2480	183	1860	218	3640	224	2100	191	2660	192	2030
지방	609	2540	128	1790	119	3480	120	2130	118	2180	124	3150
T값	-0.11		0.19		0.078		-0.078		0.77		-1.701	
	Pr(T < t) = 0.4539		Pr(T > t) = 0.4236		Pr(T) > t) = 0.4686		Pr(T < t) = 0.4689		Pr(T) > t) = 0.2180		Pr(T < t) = 0.0450	

국제사업 중 아웃바운드(Outbound) 사업의 경우 서울과 지방의 평균지원 액수를 비교하여 보았다. 2005년부터 2007년 까지 서울과 지방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2005년의 경우에는,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지방에 대한 평균지원액수가 서울에 대한 평균지원액수보다 컸다. 2008년의 경우에는 서울에 대한 평균지원액수가 지방보다 현저하게 더 컸으나, 2009년에는 역으로, 지방에 대한 평균지원액수가 서울에 대한 지원액수보다 현저하게 더 컸다.

〈표 5-29〉 아웃바운드 사업의 경우 서울과 지방의 평균지원 액수

	2005~2009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Group	건수	평균	건수	평균	건수	평균	건수	평균	건수	평균	건수	평균
서울	725	1820	130	1400	162	3240	154	1410	138	1610	141	1250
지방	430	1660	80	1440	90	2900	92	1220	85	1090	83	1620
T값	0.2682		-0.1166		0.1245		0.9999		1.9729		-1.2284	
	Pr(T > t) = 0.3943		Pr(T < t) = 0.4536		Pr(T)t)= 0.4505		Pr(T)t) = 0.1592		Pr(T)t) = 0.0249		Pr(T < t) = 0.1103	

인바운드(Inbound) 사업에 대한 서울과 지방의 평균지원 액수를 비교해보았다. 아웃바운드분야와는 달리, 인바운드분야의 경우에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간에 걸쳐 평균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년에는 서울의 평균지원액수가 더 컸고, 반대로 2007년과 2008년에는 지방의 평균지원액수가 압도적으로 더 컸다. 2009년에는 다시 서울의 평균지원액수가 더 컸다. 서울과 지방간의 지원의 상대적 비중이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거의 매년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표 5-30〉 인바운드 사업의 경우 서울과 지방의 평균지원 액수

	2005~2009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Group	건수	평균	건수	평균	건수	평균	건수	평균	건수	평균	건수	평균
서울	180	3590	47	3160	51	4640	45	3630	4	1630	33	2780
지방	117	3390	47	2400	31	4940	17	5960	2	2650	20	1180
T값	0.2413		0.9328		-0.1238		-1.1008		-0.6768		1.0433	
	$\Pr(T > t) = 0.4047$		$\Pr(T > t) = 0.1767$		$\Pr(T < t) = 0.4509$		$\Pr(T < t) = 0.1377$		$\Pr(T < t) = 0.2678$		$\Pr(T > t) = 0.1509$	

시각예술에서 국제사업의 연도별 서울과 지방의 평균지원 액수를 비교해보았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서울에 대한 평균지원액수가 더 큰 편 이었다. 그러나 2009년에는 지방에 대한 지원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표 5-31〉 시각예술에서 국제사업의 연도별 서울과 지방의 평균지원 액수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Group	건수	평균	건수	평균	건수	평균	건수	평균	건수	평균
서울	43	1000	49	2660	59	2010	44	1990	67	1060
지방	33	1140	30	1130	30	1330	36	1120	55	1710
T값	-1.1137		1.8448		1.1909		1.3049		-1.2713	
	$\Pr(T < t) = 0.1345$		$\Pr(T > t) = 0.0345$		$\Pr(T > t) = 0.1185$		$\Pr(T > t) = 0.0979$		$\Pr(T < t) = 0.1030$	

공연예술 분야에서 국제사업의 연도별 서울과 지방의 평균지원 액수를 비교해보았다. 전체적으로 서울에 대한 평균지원액수가 압도적으로 큰 흐름이 계속되었다. 2006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년과 2007년의 경우, 서울과 지방간의 격차가 컸으나 그 차이는 서울에 대한 지원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다. 동 기간에는 지방에 대한 지원도 절대액면에서 증가하였던 시기이다. 2008년의 경우, 지방에 대한 지원이 크게 감소하였고, 2009년에는 지방에 대한 지원액 자체는 변화가 없었으나, 서울에 대한 지원이 크게 감소하여 서울과 지방간의 평균지원액수의 상대적 격차가 감소하였다.

〈표 5-32〉 공연예술 분야에서 국제사업의 연도별 서울과 지방의 평균지원 액수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Group	건수	평균	건수	평균	건수	평균	건수	평균	건수	평균
서울	70	1570	93	2570	87	1650	89	2450	68	2190
지방	34	1330	36	1230	41	1740	30	1220	30	3350
T값	0.5405		1.0557		-0.3283		1.4753		-0.9329	
	Pr(T< t)=0.2950		Pr(T< t)=0.1465		Pr(T< t)=0.3716		Pr(T< t)=0.0714		Pr(T< t)=0.1766	

예술위의 데이터에서 사업주체의 분류는 2008-2009년만 명시되어 있어 이 기간에 한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제사업은 건당 평균 1600만원이 지원되어, 국내사업 보다 더 큰 액수가 지원 되고 있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국내사업과 국제 사업의 지원액 격차는 거의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의 사업 건 당 평균지원 액수는 문화일반이나 다른 분야보다 작게 나왔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문화일반이나 다른 분야에 더 큰 액수가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더 큰 액수가 지원되고 있다. 요약하면 미술, 음악, 연극, 무용의 국제사업은 같은 장르 내 국내사업보다는 더 큰 액수가 지원되고 있지만 타 분야 보다는 전체적으로 적은 액수가 지원되고 있다.

〈표 5-33〉 사업주체별 장르별 회귀분석 결과

	(1)	(2)	(3)
변수	Funding	funding	Funding
art_visual		-40267118.1*** (8606426.530)	-47286639.2*** (10014811.570)
art_perform		-40038083.9***	-47092226.0***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7349593.684)	(8208502.487)
kukje_dum	16,426,780.6 (13142215.365)	18,435,406.2 (13080038.759)	-3,724,588.7 (16593443.685)
kukje_visual			33,097,294.1* (19678586.860)
kukje_perform			36,572,102.6** (18385973.527)
Constant	12,000,000.0 (78486144.143)	12,000,000.0 (78086342.641)	12,000,000.0 (78056080.653)
Observations	3,529	3,529	3,529
R-squared	0.10	0.11	0.11
Adj. R-squared	0.09	0.10	0.10

()는 표준 오차
*** p<0.01, ** p<0.05, * p<0.1

〈표 5-34〉 국제 변수에 따른 회귀 분석 결과

변수	(1) funding	(2) funding	(3) funding	(4) funding
art_visual	-56305437.5*** (14262586.019)	-66931562.7*** (16547463.702)	-11811204.4*** (3287642.324)	-10196301.2*** (3861605.149)
art_perform	-59854482.5*** (11561858.329)	-72495928.2*** (12866421.419)	-14148224.9*** (3118566.307)	-13292080.3*** (3521387.054)
kukje_dum	10,620,303.1 (21030931.578)	-30553087.0 (27284418.218)	28,143,352.2*** (5101065.780)	31,000,998.9*** (6281762.423)
kukje_visual		53,902,765.0 (32764170.135)		-6,203,873.3 (7330051.534)
kukje_perform		65,890,778.6** (28856973.680)		-4,183,533.2 (7704144.988)
Constant	11,250,000.0 (1.097e+08)	11,250,000.0 (1.096e+08)	15,000,000.0 (42253628.927)	15,000,000.0 (42271925.591)
Observations	2,073	2,073	1,456	1,456
R-squared	0.12	0.13	0.62	0.62
Adj. R-squared	0.11	0.11	0.62	0.62

()는 표준 오차
*** p<0.01, ** p<0.05, * p<0.1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2008-2009년에 지방에 대한 지원 액수에 차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확정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다른 분야에 비하여 시각이나 공연예술에 있어서 지방으로 지원이 더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지방에서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으나 절대적으로 질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검토할 문제이다.

〈표 5-35〉 지방 변수가 들어간 회귀분석 결과

VARIABLES	(1) funding	(2) funding	(3) funding	(4) funding
art_visual		-74576288.4*** (14071261,358)		-6,934,023.8 (6565024,989)
art_perform		-70931080.7*** (10877024,104)		-3,318,094.2 (5927317,891)
Jibang	-42489527.8*** (7623851,557)	-71569364.8*** (10437976,681)	1,378,344.1 (3964844,790)	3,409,325.8 (6687233,332)
jibang_visual		56,418,483.1*** (21099288,413)		-2,955,323.2 (9654355,162)
jibang_perform		45,773,540.0*** (17522079,882)		-2,923,501.0 (9833027,084)
Constant	20,497,905.6 (86028915,491)	26,313,873.0 (85285956,280)	10,000,000.0 (49391439,685)	16,934,023.8 (49869933,841)
Observations	2,861	2,861	668	668
R-squared	0.10	0.12	0.18	0.19
Adj. R-squared	0.10	0.11	0.17	0.16

()는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4. 국제교류 지원의 지역별/국가별 분석

예술위가 지원하는 사업들은 대상지역이 다양한데, 그 지역별 분포를 정리하면 <표 5-37>과 같다. 전체 지원사업중 국내 사업에 대한 지원이 88%로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아웃바운드(Outbound)는 12%에 불과하며, 아웃바운드 국가들 중에서는 유럽의 비중이 매우 높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의 비중도 높다. 반면, 아웃바운드 국가들중에서 남미, 아프리카, 대양주는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5-36> 문화예술위원회 지원의 지역별 분포

국내 및 해외지역	건수	Percent
국내	8,856	88.25
아시아	388	3.87
유럽	515	5.13
북미	214	2.13
남미	26	0.26
아프리카	14	0.14
대양주	22	0.22
Total	10,035	100.00

아웃바운드에 해당하는 국가들에 대하여, 국가별로 분포를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웃바운드의 경우, 예술위의 지원은 5-6개 정도의 대상국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영국, 이태리, 독일에, 아시아의 경우에는 중국과 일본에, 그리고 북미의 경우에는 미국에 그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예술장르별 지역분포를 조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비중이 큰 시각예술분야의 경우, 해외 특히 유럽지역이 전체 497건중 194건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무용의 경우에도 유럽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문학의 경우에는 아시아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문화일반은 국내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해외지역 중에서는 아시아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표 5-37〉 예술장르별 지역분포

genre	국내 및 해외지역							총계
	국내	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	아프리카	대양주	
다원예술	21	7	13	3	1	0	1	46
무용	80	38	99	35	2	2	5	261
문학	30	53	28	18	1	4	2	136
문화일반	169	52	23	9	0	1	3	257
시각예술	112	93	194	85	9	1	3	497
연극	69	36	50	9	5	4	7	180
음악	90	37	49	20	1	0	1	198
전통예술	51	68	59	35	7	2	0	222
Total	622	384	515	214	26	14	22	1,797

문화예술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북미와 기타 지역을 사업기간으로 비교해 보면 유럽/북미 지역의 사업기간이 더 장기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유럽/북미의 경우, 1개월이내의 초단기 지원이 전체 721건 중 345건으로서 전체의 47.9%였으나, 기타지역의 경우, 1,058건중 716건으로서 전체의 67.7%였다.

〈표 5-38〉 유럽/북미 지역과 기타지역의 기간별 지원 비교

사업기간	선진지역		
	변방	유럽/북미	총계
1개월이내	716	345	1,061
1~3개월	127	157	284
3~6개월	72	68	140
6~9개월	39	57	96
9~12개월	100	77	177
1년이상	4	17	21
총계	1,058	721	1,779

아웃바운드 국가로서 유럽지역에 한정해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특히 시각예술의 유럽편향 현상이 매우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표 5-39〉 유럽지역 지원 국가별 비교

유럽 국가	장르								
	다원예술	무용	문학	문화일반	시각예술	연극	음악	전통예술	총계
독일	5	23	6	4	63	1	14	12	128
프랑스	3	25	5	6	26	6	4	6	81
영국	3	9	5	1	26	7	5	7	63
러시아	0	4	5	5	6	2	3	20	45
이탈리아	0	4	1	3	25	3	3	1	40
네덜란드	0	4	1	1	15	0	1	0	22
오스트리아	1	5	0	1	7	2	1	1	18
체코	0	2	0	0	1	5	2	2	12
터키	0	1	0	0	6	1	0	2	10
유럽	0	6	3	0	0	0	1	0	10
벨기에	0	5	0	0	1	0	2	1	9
스위스	0	3	0	0	3	1	1	0	8
폴란드	0	0	0	0	2	5	1	0	8
덴마크	0	0	0	0	3	0	1	2	6
스페인	0	1	0	0	1	1	2	1	6
핀란드	0	0	0	1	1	2	1	1	6
루마니아	0	0	0	0	0	5	0	0	5
불가리아	0	1	0	1	0	1	1	0	4
헝가리	0	1	0	0	1	1	1	0	4
아일랜드	0	0	0	0	1	3	0	0	4
아이슬란드	1	0	0	0	2	0	0	0	3
리투아니아	0	0	0	0	0	0	2	1	3
슬로베니아	0	0	1	0	2	0	0	0	3
스웨덴	0	0	0	0	1	1	1	0	3
우크라이나	0	3	0	0	0	0	0	0	3
그리스	0	1	0	0	0	1	0	0	2
크로아티아	0	0	1	0	0	0	1	0	2
보스니아	0	0	0	0	0	0	0	1	1
룩셈부르크	0	0	0	0	0	0	1	0	1
모나코	0	0	0	0	0	1	0	0	1
마케도니아	0	0	0	0	0	1	0	0	1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노르웨이	0	0	0	0	0	0	0	1	1
포르투갈	0	1	0	0	0	0	0	0	1
세르비아	0	0	0	0	1	0	0	0	1
총계	13	99	28	23	194	50	49	59	515

아시아 지역의 장르별 아웃바운드 국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중국, 일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장르별로 중국을 선호하는 분야가 있고 일본을 선호하는 분야가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예를 들어, 연극은 일본을 선호하고 음악은 중국진출이 두 배 이상 많다. 문학의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전통예술도 중국 선호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무용은 중국과 일본지역에 대하여 거의 균등한 비율로 진출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표 5-40〉 아시아 지역의 장르별 아웃바운드 국가

아시아 국가	장르								총계
	다원예술	무용	문학	문화일반	시각예술	연극	음악	전통예술	
중국	1	10	22	21	42	9	19	28	152
일본	2	13	8	16	29	19	8	19	114
북한	0	1	4	4	4	1	2	2	18
인도	0	1	4	3	5	0	0	3	16
베트남	0	0	3	4	1	1	1	4	14
싱가포르	1	4	1	0	2	3	0	1	12
몽골	0	0	3	1	3	0	0	2	9
인도네시아	1	1	0	0	2	1	1	1	7
홍콩	2	0	0	1	0	0	3	0	6
대만	0	1	0	1	1	0	2	1	6
우즈베키스탄	0	3	2	1	0	0	0	0	6
카자흐스탄	0	0	2	0	0	0	0	2	4
말레이시아	0	0	0	0	1	0	0	3	4
네팔	0	0	1	3	0	0	0	0	4
태국	0	1	1	0	0	0	2	0	4
이스라엘	0	0	2	0	1	0	0	0	3
캄보디아	0	0	0	0	1	0	0	1	2
파키스탄	0	0	0	0	1	1	0	0	2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필리핀	0	2	0	0	0	0	0	0	2
키르기즈스탄	0	0	0	0	0	0	0	1	1
SNG	0	1	0	0	0	0	0	0	1
아랍에미리트연합	0	0	0	0	0	1	0	0	1
총계	7	38	53	55	93	36	38	68	388

북미지역의 경우 예상한대로 미국을 선택한 예술가나 예술단체가 많은데 음악의 경우 미국과 중국의 숫자가 비슷하다. 연극의 경우에는 북미지역으로의 진출이 미약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는 연극의 경우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더 어려운 장르인 것으로 추정된다. 무용은 미국진출이 타 장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는 무용의 특성상 언어장벽이 크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각예술의 경우 북미진출이 아시아지역과 거의 비슷한 규모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표 5-41〉 북미 지역의 장르별 국가 분포

북미국가	장르								
	다원예술	무용	문학	문화일반	시각예술	연극	음악	전통예술	총계
미국	3	31	15	8	74	4	18	30	183
캐나다	0	2	2	0	6	4	2	4	20
멕시코	0	2	1	1	5	1	0	1	11
총계	3	35	18	9	85	9	20	35	214

남미는 매우 소외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모든 분야를 합쳐야 5년 동안 26건 밖에 되지 않는다. 시각예술, 전통예술, 연극 등이 그나마 남미지역을 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국가별 분포는 브라질이 가장 많고 비교적 콜고루 분포되어 있다.

〈표 5-42〉 남미의 장르별 국가 분포

남미 국가	장르							
	다원예술	무용	문학	시각예술	연극	음악	전통예술	총계
브라질	0	0	0	5	0	0	0	5
남미	0	0	0	0	1	0	4	5
쿠바	1	0	0	0	2	1	0	4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콜롬비아	0	0	1	0	0	0	2	3
아르헨티나	0	0	0	0	2	0	0	2
칠레	0	0	0	2	0	0	0	2
코스타리카	0	0	0	2	0	0	0	2
에콰도르	0	2	0	0	0	0	0	2
페루	0	0	0	0	0	0	1	1
총계	1	2	1	9	5	1	7	26

아프리카 지역은 이집트와 남아공을 제외하면 극히 미미하다고 할 수가 있다. 사하라 사막 남쪽의 저개발 국가로는 케냐, 세네갈, 튀니지정도에 불과한 데 예산과 인력의 한계내에서 이들 지역에 대하여 보다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절실히 요구된다.

〈표 5-43〉 아프리카의 장르별 국가 분포

아프리카 국가	장르						
	무용	문학	문화일반	시각예술	연극	전통예술	총계
이집트	0	0	0	0	3	0	3
남아공	0	0	0	1	1	1	3
아프리카	1	1	0	0	0	0	2
케냐	0	2	0	0	0	0	2
세네갈	1	1	0	0	0	0	2
튀니지	0	0	1	0	0	1	2
총계	2	4	1	1	4	2	14

대양주는 인구규모를 고려할 때 진출이 작다고 하기에는 어렵다. 전체 22건중 20건이 호주여서 호주에의 집중이 심한 것을 알 수 있고, 장르별로 살펴보면 연극과 무용이 보다 활발하다.

〈표 5-44〉 대양주의 장르별 국가 분포

대양주 국가	장르							
	다원예술	무용	문학	문화일반	시각예술	연극	음악	총계
호주	1	5	2	3	3	6	0	20
뉴질랜드	0	0	0	0	0	1	1	2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총계	1	5	2	3	3	7	1	22
----	---	---	---	---	---	---	---	----

장르별 국가 분포를 각 국가별로 시각예술과 공연예술로 나누어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유럽의 경우, 전체적으로 가장 건수가 많았던 3대 국가인 독일 프랑스 영국을 비교하여 보면, 독일의 경우, 공연예술과 시각예술간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 공연예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프랑스의 경우, 공연예술의 비중이 시각예술의 두 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경우에도 공연예술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반대로 시각예술의 비중이 공연예술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 유럽의 경우, 건수가 미미하여 이 지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제교류의 추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5-45〉 유럽의 국가별 분포 (공연예술 시각예술별)

유럽국가			
	공연예술	시각예술	총계
독일	65	63	128
프랑스	55	26	81
영국	37	26	63
러시아	39	6	45
이탈리아	15	25	40
네덜란드	7	15	22
오스트리아	11	7	18
체코	11	1	12
유럽	10	0	10
터키	4	6	10
벨기에	8	1	9
스위스	5	3	8
폴란드	6	2	8
덴마크	3	3	6
스페인	5	1	6
핀란드	5	1	6
루마니아	5	0	5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불가리아	4	0	4
헝가리	3	1	4
아일랜드	3	1	4
이스라엘	2	1	3
아이슬란드	1	2	3
리투아니아	3	0	3
슬로베니아	1	2	3
스웨덴	2	1	3
우크라이나	3	0	3
그리스	2	0	2
크로아티아	2	0	2
보스니아	1	0	1
룩셈부르크	1	0	1
모나코	1	0	1
마케도니아	1	0	1
노르웨이	1	0	1
포르투갈	1	0	1
세르비아	0	1	1
총계	323	195	518

아시아 지역의 국가별 결과를 공연예술과 시각예술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다. 전체적으로 공연예술이 시각예술보다 더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서 집계가능한 385건중 266건을 차지하여 전체의 69.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양국 모두에서 공연예술의 비중이 시각예술보다 큼을 알 수 있다. 기타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가 그 뒤를 잇고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도 모두 공연예술이 더 활발함을 알 수 있다.

〈표 5-46〉 아시아의 국가별 분포 (공연예술 시각예술별)

아시아 국가			
	공연예술	시각예술	총계
중국	110	42	152
일본	85	29	114
인도	11	5	16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베트남	13	1	14
싱가포르	10	2	12
몽골	6	3	9
인도네시아	5	2	7
홍콩	6	0	6
대만	5	1	6
우즈베키스탄	6	0	6
카자흐스탄	4	0	4
말레이시아	3	1	4
네팔	4	0	4
태국	4	0	4
캄보디아	1	1	2
파키스탄	1	1	2
필리핀	2	0	2
키르기스스탄	1	0	1
SNG	1	0	1
아랍에미리트연합	1	0	1
총계	293	92	385

북미지역의 국가별 결과를 공연예술과 시각예술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다. 공연예술이 시각예술보다 더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공연예술이 더 활발하나 캐나다에 비하여는 시각예술도 활발함을 볼 수 있다. 멕시코의 경우, 건수는 크지 않으나 공연예술과 시각예술간의 상대적 비중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표 5-47〉 북미지역의 국가별 분포 (공연예술 시각예술별)

북미 국가			
	공연예술	시각예술	총계
미국	109	74	183
캐나다	14	6	20
멕시코	6	5	11
총계	129	85	214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남미지역의 국가별 결과를 공연예술과 시각예술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다. 전체적으로 공연예술이 더 활발하지만, 브라질의 경우, 시각예술이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표 5-48〉 남미의 국가별 분포 (공연예술 시각예술별)

남미 국가			
	공연예술	시각예술	총계
브라질	0	5	5
남미	5	0	5
쿠바	4	0	4
콜롬비아	3	0	3
아르헨티나	2	0	2
칠레	0	2	2
코스타리카	0	2	2
에콰도르	2	0	2
페루	1	0	1
총계	17	9	26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별 결과를 공연예술과 시각예술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다. 아프리카의 경우에도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공연예술의 비중이 시각예술보다 압도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5-49〉 아프리카의 국가별 분포 (공연예술 시각예술별)

아프리카 국가			
	공연예술	시각예술	총계
이집트	3	0	3
남아공	2	1	3
케냐	2	0	2
세네갈	2	0	2
튀니지	2	0	2
아프리카	2	0	2
총계	13	1	14

대양주 지역의 국가별 결과를 공연예술과 시각예술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다. 대양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주의 경우에도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공연예술의 비중이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표 5-50〉 대양주의 국가별 분포 (공연예술 시각예술별)

대양주 국가			
	공연예술	시각예술	총계
호주	17	3	20
뉴질랜드	2	0	2
총계	19	3	22

이제 국제교류를 전체적인 지원액수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가장 교류가 활발한 유럽국가의 예산 지원 총액은 다음과 같다. 건수로는 독일에 비하여 뒤쳐진 영국의 경우 총 예산지원액이 독일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국의 경우, 평균지원액수면에서 독일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절대적인 건수 자체는 크지 않으나, 예산지원 총액면에서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크게 나타나 건당 평균지원액수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1〉 유럽국가의 예산 지원 총액

유럽 국가	지원총액	빈도	Percent
영국	2,390,000,000	63	12.23
이탈리아	1,870,000,000	40	7.77
독일	1,770,000,000	128	24.85
프랑스	1,130,000,000	81	15.73
러시아	1,050,000,000	45	8.74
네덜란드	358,000,000	22	4.27
오스트리아	222,000,000	18	3.5
체코	200,000,000	12	2.33
덴마크	145,000,000	6	1.17
폴란드	141,000,000	8	3.5
유럽	141,000,000	10	1.55
터키	139,000,000	10	1.94
루마니아	135,000,000	5	0.97
스위스	103,000,000	8	1.46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벨기에	98,000,000	9	1.75
핀란드	96,000,000	6	1.17
스페인	90,000,000	6	1.17
헝가리	65,000,000	4	0.78
아일랜드	63,000,000	4	0.78
그리스	44,000,000	2	0.39
불가리아	41,000,000	4	0.78
마케도니아	40,000,000	1	0.19
슬로베니아	38,000,000	3	0.58
우크라이나	32,000,000	3	0.58
노르웨이	30,000,000	1	0.19
아이슬란드	27,200,000	3	0.58
스웨덴	17,000,000	3	0.58
모나코	14,000,000	1	0.19
세르비아	10,000,000	1	0.78
크로아티아	10,000,000	2	0.78
룩셈부르크	3,000,000	1	0.19
총계		515	100.00

아시아 국가의 예산 지원 총액은 다음과 같다. 중국(39.18%)과 일본(29.38%)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의 경우, 건수는 크지 않으나, 지원금액 총액은 상당하여, 건당 평균지원금액면에서는 일본이나 중국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2〉 아시아 국가의 예산 지원 총액

아시아 국가	지원총액	빈도	Percent
중국	1870000000	152	39.18
일본	1840000000	114	29.38
북한	336000000	18	4.64
베트남	176000000	14	4.12
몽골	152000000	9	2.32
인도	150000000	16	3.61
싱가포르	119000000	12	3.09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카자흐스탄	104000000	4	1.03
인도네시아	85000000	7	1.8
대만	72500000	6	1.03
우즈베키스탄	68000000	6	1.55
네팔	63000000	4	0.26
홍콩	58500000	6	1.55
말레이시아	51000000	4	1.03
태국	43000000	4	1.03
필리핀	35000000	2	0.52
캄보디아	30000000	2	0.52
아랍에미리트연합	28000000	1	0.26
키르기스스탄	11000000	2	0.52
파키스탄	10000000	1	0.26
총계		388	100.00

북미 국가의 예산 지원 총액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비중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고, 그 뒤를 캐나다가 잇고 있다.

〈표 5-53〉 북미 국가의 예산 지원 총액

북미 국가	지원총액	빈도	Percent
미국	2,620,000,000	183	85.51
캐나다	194,000,000	20	9.35
멕시코	126,000,000	11	5.14
Total		214	100

남미 국가의 예산 지원 총액은 다음과 같다. 콜롬비아의 경우, 전체지원금액자체도 가장 크고 건당 평균 지원금액면에서도 타 국가보다 훨씬 큼을 알 수 있다. 지원총액에 있어, 쿠바가 콜롬비아의 뒤를 이었다. 브라질의 경우, 전체건수는 제일 많으나 지원 총액은 콜롬비아나 쿠바보다 적음을 알 수 있다.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표 5-54〉 남미 국가의 예산 지원 총액

남미 국가	지원총액	빈도	Percent
콜롬비아	124,000,000	3	11.54
쿠바	80,000,000	4	15.38
남미	79,000,000	5	19.23
브라질	68,000,000	5	19.23
에콰도르	48,000,000	2	7.69
아르헨티나	33,000,000	2	7.69
칠레	27,000,000	2	7.69
페루	25,000,000	1	3.85
코스타리카	20,000,000	2	7.69
총계		26	100

아프리카 국가와 대양주 국가의 예산 지원 총액은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 국가 중 중동과 문화권을 같이하는 이집트로의 지원 총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양주 국가의 예산 지원 총액 중 오스트레일리아로의 지원이 압도적으로 큼을 알 수 있다.

〈표 5-55〉 아프리카 국가의 예산 지원 총액

아프리카 국가	지원총액	빈도	Percent
이집트	48,000,000	3	21.43
남아공	27,000,000	3	21.43
기타 아프리카	25,000,000	2	42.86
케냐	23,000,000	2	14.29
총계		14	100

〈표 5-56〉 대양주 국가의 예산 지원 총액

대양주 국가	지원총액	빈도	Percent
오스트레일리아	220,000,000	20	9.09
뉴질랜드	23,000,000	2	90.91
총계		22	100

유럽국가의 예산 지원 평균은 다음과 같다. 평균 지원액을 살펴보면, 이탈리아와 영국의 평균 지원액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지원 건수 면에서 가장 비중이 큰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평균지원금액면에서는 러시아나 네덜란드보다도 적었다.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표 5-57〉 유럽국가의 예산 지원 평균

유럽국가	평균지원액	빈도	Percent
이탈리아	45,600,000	40	7.77
영국	33,700,000	63	12.23
덴마크	24,200,000	6	1.17
루마니아	22,500,000	5	0.97
그리스	22,000,000	2	0.39
러시아	21,800,000	45	8.74
마케도니아	20,000,000	1	0.19
포르투갈	17,500,000	1	0.19
핀란드	16,000,000	6	1.17
아일랜드	15,800,000	4	0.78
체코	15,400,000	12	2.33
노르웨이	15,000,000	1	0.19
네덜란드	14,900,000	22	4.27
폴란드	14,100,000	8	1.55
모나코	14,000,000	1	0.19
독일	13,200,000	128	24.85
헝가리	13,000,000	4	0.78
유럽	12,800,000	10	1.94
슬로베니아	12,700,000	3	0.58
터키	12,600,000	10	1.55
프랑스	12,500,000	81	15.73
리투아니아	11,700,000	3	0.58
우크라이나	10,700,000	3	0.58
오스트리아	10,600,000	18	3.5
불가리아	10,300,000	4	0.78
스위스	10,300,000	8	1.94
세르비아	10,000,000	1	0.39
벨기에	9,800,000	9	1.75
스페인	9,000,000	6	0.58
아이슬랜드	6,800,000	3	0.58
스웨덴	5,666,667	3	0.39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룩셈부르크	3,000,000	1	0.19
총계		515	100.00

아시아 국가의 예산 지원 평균은 다음과 같다. 평균지원액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북한이 가장 높고, 건수는 적지만 필리핀, 카자흐스탄등의 경우, 평균지원액이 컸다. 아시아국가중 일반적으로 가장 비중이 큰 일본과 중국을 비교해 보면 중국이 전체 건수는 더 많았지만, 일본의 평균지원액이 중국보다 높았다.

〈표 5-58〉 아시아 국가의 예산 지원 평균

아시아 국가	평균지원액	빈도	Percent
북한	17,700,000	18	4.64
필리핀	17,500,000	2	1.03
카자흐스탄	17,300,000	4	2.32
몽골	16,900,000	9	2.32
네팔	15,800,000	4	1.03
일본	15,200,000	114	29.38
캄보디아	15,000,000	2	0.52
아랍에미리트연합	14,000,000	1	0.26
말레이시아	12,800,000	4	1.03
베트남	12,600,000	14	3.61
인도네시아	12,100,000	7	1.8
중국	11,700,000	152	39.18
우즈베키스탄	11,300,000	6	1.55
태국	10,800,000	4	1.03
대만	10,400,000	6	1.55
키르기스스탄	10,000,000	1	0.26
홍콩	9,750,000	6	1.55
인도	8,813,132	16	4.12
싱가폴	7,955,478	12	3.09
파키스탄	5,500,000	2	0.52
총계		388	100.00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북미 국가의 예산 지원 평균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평균지원금액이 캐나다보다 크나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의 경우, 전체건수는 캐나다에 뒤졌지만 평균지원액에 있어서는 캐나다보다 컸다.

〈표 5-59〉 북미 국가의 예산 지원 평균

북미 국가	평균지원액	빈도	Percent
미국	12,700,000	183	85.51
멕시코	11,500,000	11	5.14
캐나다	8,818,182	20	9.35
총계		214	100.00

남미 국가의 예산 지원 평균액은 다음과 같다. 건수 자체가 크지 않아 큰 의미는 없으나 콜롬비아의 평균지원액이 가장 컸고, 페루와 쿠바가 그 뒤를 이었다.

〈표 5-60〉 남미 국가의 예산 지원 평균액

남미 국가	평균지원액	빈도	Percent
콜롬비아	31,000,000	3	11.54
페루	25,000,000	1	3.85
쿠바	20,000,000	4	15.38
에콰도르	16,000,000	2	7.69
남미	15,800,000	5	19.23
칠레	13,500,000	2	7.69
브라질	11,300,000	5	19.23
아르헨티나	11,000,000	2	7.69
코스타리카	10,000,000	2	7.69
총계		26	100.00

아프리카 국가의 평균 예산 지원액은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의 평균지원액은 전체적으로 타 지역에 비하여 적은 편이다. 중동 문화권인 이집트 지역에 대한 지원이 평균 금액 면에서 가장 높았다.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표 5-61〉 아프리카 국가의 예산 지원 평균

아프리카 국가	평균지원액	빈도	Percent
이집트	16,000,000	3	21.43
아프리카	12,500,000	2	42.86
케냐	11,500,000	2	14.29
남아공	9,000,000	3	21.43
총계		14	100.00

대양주 국가의 평균 예산 지원액은 다음과 같다. 지원 건수 면에서 호주에 뒤지는 뉴질랜드가 평균액수에서는 호주보다 크게 나타났다.

〈표 5-62〉 대양주 국가의 예산 지원 평균

대양주 국가	평균지원액	빈도	Percent
뉴질랜드	11,500,000	2	9.09
호주	11,000,000	20	90.91
총계		22	100.00

아웃바운드 사업의 경우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을 합쳐 유럽/북미와 기타 지역에 대한 지원횟수와 평균지원액수를 비교해보았다. 예술분야 전체에서 중심지역과 기타 지역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전체적으로 유럽/북미 지역에 대한 평균지원액수가 큰 경향이 있다. 2008년에는 기타지역이 더 많은 사례도 볼 수 있다.

〈표 5-63〉 아웃바운드 사업의 유럽/북미와 기타 지역에 대한 지원횟수와 평균지원액수 (시각예술 + 공연예술)

(단위: 만원)

예술분야전체 2005~2009			시각 및 공연예술											
			2005~2009 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건수	평균	건수	평균	건수	평균	건수	평균	건수	평균	건수	평균
Group	건수	평균	건수	평균	건수	평균	건수	평균	건수	평균	건수	평균	건수	평균
변방	461	1890	267	1290	47	1070	50	1110	59	1280	59	1800	52	1090
유럽/ 북미	694	1680	515	1380	87	1120	112	1570	105	1450	95	1200	116	1480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T값	t= 0.3451	t= -0.6221	t= -0.5069	t= -1.4298	t= -0.6317	t= 1.6280	t= -0.9410
	Pr(T)t=0.3650	Pr(T)t= 0.2670	r(T < t) = 0.3065	Pr(T < t) = 0.0774	Pr(T < t) = 0.2642	Pr(T > t) = 0.0528	Pr(T < t) = 0.1740

미국과 유럽의 주요 선진국가들에서의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의 아웃바운드 건수 및 평균 지원 액수를 비교·정리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중심국가들에 대한 평균지원 액수가 큰 편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다.

〈표 5-64〉 선진지역에서의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의 아웃바운드 지원 횟수와 평균 지원 액수
(단위: 만원)

예술분야전체 2005~2009			시각 및 공연예술											
			2005~2009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Group	건수	평균	건수	평균	건수	평균	건수	평균	건수	평균	건수	평균	건수	평균
주변 국가	191	1560	143	1370	24	1300	26	2000	35	1200	27	1060	31	1350
미영 독프	290	2090	224	1600	32	1140	57	1570	45	1750	44	1410	46	1970
T값	-0.7615		-0.9182		0.9926		0.7076		-1.1650		-1.0009		-0.7520	
	Pr(T)t= 0.2234		Pr(T)t= 0.1796		Pr(T)t= 0.1627		Pr(T)t= 0.2406		Pr(T< t)= 0.1238		Pr(T< t)= 0.1602		Pr(T)t= 0.2272	

아시아지역에서의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의 아웃바운드 지원 횟수와 평균 지원 액수를 비교·정리하였다. 전체적으로 큰 경향성이 보이는 것은 아니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원은 전체적으로 작은 편이다.

〈표 5-65〉 아시아지역에서의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의 아웃바운드 지원 횟수와 평균 지원 액수
(단위: 만원)

예술분야전체 2005~2009			시각 및 공연예술											
			2005~2009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Group	건수	평균	건수	평균	건수	평균	건수	평균	건수	평균	건수	평균	건수	평균
기타 지역	806	1680	591	1410	98	1120	138	1500	121	1470	113	1420	121	1470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아시아	349	1960	191	1160	36	1040	24	1010	43	1150	41	1470	47	1080
T값	-0.4577		1.5712		0.8086		1.1700		1.1514		-0.1130		0.9199	
	Pr(T < t) = 0.3236		Pr(T) > t) = 0.0583		Pr(T) > t) = 0.2101		Pr(T > t) = 0.1219		Pr(T) > t) = 0.1256		Pr(T < t) = 0.4551		Pr(T) > t) = 0.1795	

회귀분석의 결과를 정리하면, 지원액수의 지역적인 구조적 편향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일견, 유럽이나 아시아 기타대륙이 격차가 있어 보이나 실제로는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뜻이다.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에 편향되어 있는 것은 시각예술이나 공연예술이 더 심해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시각예술이나 공연예술이 타 분야에 비하여 평균지원액수가 유의하게 작은 것은 개인 차원의 사업이 많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화일반 사업에 쓰이는 예산을 순수예술 장르로 돌린다면 더 생산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표 5-66〉 장르별 회귀분석 결과

변수	(1) funding	(2) funding	(3) funding	(4) funding
art_visual	-43003335.4*** (9041314.795)	-44449155.5*** (9310280.548)	-40161213.1*** (8692861.638)	-40222703.6*** (8626113.752)
art_perform	-40721816.2*** (7494941.031)	-41775150.2*** (7605081.771)	-39971924.5*** (7369652.466)	-39920278.7*** (7358011.775)
center	-26952340.8 (30473504.438)			
center_perform	31,592,498.4 (38547757.960)			
center_visual	44,175,324.4 (36028723.118)			
major		-29908719.6 (23822439.892)		
major_perform		36,600,775.2 (29853555.105)		
major_visual		44,977,057.4 (28655123.798)		
euro_dum			3,935,733.8 (14402582.657)	
north_am_dum			-3,717,523.4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20218707,830)	
south_am_dum			-1,765,834.0 (58792692,131)	-3,886,378.1 (58733516,530)
africa_dum			-15705229.4 (1.012e+08)	-17628320.2 (1.012e+08)
ocean_dum			-6,198,142.7 (56668441,980)	-9,051,791.1 (56558795,432)
asia_dum				-7,563,049.0 (15709402,416)
Constant	12,000,000.0 (78113139,272)	12,000,000.0 (78101758,173)	12,000,000.0 (78151198,841)	12,000,000.0 (78138910,715)
Observations	3,529	3,529	3,529	3,529
R-squared	0.11	0.11	0.11	0.11
Adj. R-squared	0.10	0.10	0.10	0.10

()는 표준 오차

*** p<0.01, ** p<0.05, * p<0.1

지역별 지원을 살펴보면, 북미/유럽의 평균 지원액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북미와 유럽을 비교하여 보면, 북미국가에 대한 평균지원액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현상은 문화예술의 선진국으로 작은 액수의 사업을 많이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보다 많은 예술가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이러한 특징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특정 예술가가 독식하지 않는 차원에서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몇몇 신진 예술가들에게 큰 액수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름뿐인 원로 예술가들에게 가는 지원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5-67〉 지역별 회귀분석 결과 I

변수	(1) funding	(2) funding	(3) funding	(4) funding
art_visual	-11335910.3* (6072016,492)	-13734347.4* (7100862,760)	-6,011,315.7 (5181741,964)	-9,343,198.5* (5068768,086)
art_perform	-4,450,777.9 (5277428,533)	-5,305,134.2 (5743461,046)	-4,143,799.8 (4825351,300)	-5,246,314.9 (4835936,681)
center	-12521782.0 (9283529,734)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center_perform	2,308,731.9 (11994372.643)			
center_visual	14,945,677.0 (11632641.867)			
major	-14482406.8* (7553257.009)			
major_perform	4,834,089.2 (9951742.672)			
major_visual	16,280,814.1 (10463247.575)			
euro_dum	-6,177,428.1 (4738146.959)			
north_am_dum	-11043656.0* (6194506.882)			
south_am_dum	-5,891,531.1 (16773363.463)		-4,953,224.1 (16757089.976)	
africa_dum	-6,665,666.6 (28847792.247)		-4,853,355.0 (28815611.906)	
ocean_dum	-13476640.5 (16058550.363)		-12228991.1 (16018880.818)	
asia_dum			-6,829,986.2 (4661446.635)	
Constant	21,335,910.3 (49681374.708)	23,734,347.4 (49750339.986)	16,011,315.7 (49631589.980)	26,173,184.7 (49932955.692)
Observations	668	668	668	668
R-squared	0.19	0.19	0.19	0.19
Adj. R-squared	0.17	0.17	0.17	0.17

()는 표준 오차
*** p<0.01, ** p<0.05, * p<0.1

그러나 지역더미 전체를 이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이런 지역적 격차 자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 지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격차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이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단지 북미와 유럽에의 편중현상을 아시아를 비롯한 남미, 아프리카에 한국 예술가들이 더 눈을 돌릴 수 있게 하는 전략적 방향 전환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표 5-68〉 지역별 회귀분석 결과 II

변수	(1) funding	(2) funding	(3) funding	(4) funding
art_visual	-40161213.1*** (8692861.638)	-40161213.1*** (8692861.638)	-7,473,457.5 (5629791.993)	-2,214,720.1 (9900086.398)
art_perform	-39971924.5*** (7369652.466)	-39971924.5*** (7369652.466)	-4,490,491.3 (4936133.575)	-2,460,953.1 (10612446.186)
euro_dum	3,935,733.8 (14402582.657)	3,935,733.8 (14402582.657)	-6,846,925.9 (5005431.369)	-4,233,502.7 (9547913.923)
north_am_dum	-3,717,523.4 (20218707.830)	-3,717,523.4 (20218707.830)	-12750844.2** (6337150.832)	-4,902,063.3 (13268664.690)
south_am_dum	-1,765,834.0 (58792692.131)	-1,765,834.0 (58792692.131)	-3,446,366.2 (13862601.158)	
africa_dum	-15705229.4 (1.012e+08)	-15705229.4 (1.012e+08)	-8,429,766.8 (23786757.417)	
ocean_dum	-6,198,142.7 (56668441.980)	-6,198,142.7 (56668441.980)	-23058498.1 (16142392.123)	5,821,853.4 (36738608.545)
Constant	12,000,000.0 (78151198.841)	12,000,000.0 (78151198.841)	14,337,417.2 (40878339.574)	20,363,016.4 (64069252.221)
Observations	3,529	3,529	412	256
R-squared	0.11	0.11	0.20	0.21
Adj. R-squared	0.10	0.10	0.16	0.16

()는 표준 오차
 *** p<0.01, ** p<0.05, * p<0.1

〈표 5-69〉 지역별 회귀분석 결과

변수	(1) funding	(2) funding	(3) funding	(4) funding
art_visual	-40222703.6*** (8626113.752)	-40222703.6*** (8626113.752)	-11242752.5** (5551949.168)	-4,408,333.5 (9588256.157)
art_perform	-39920278.7*** (7358011.775)	-39920278.7*** (7358011.775)	-5,873,695.2 (4976074.514)	-3,239,659.9 (10488474.032)
asia_dum	-7,563,049.0 (15709402.416)	-7,563,049.0 (15709402.416)	-5,230,989.5 (4922898.422)	-8,965,736.1 (9405546.019)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south_am_dum	-3,886,378.1 (58733516.530)	-3,886,378.1 (58733516.530)	-1,897,993.3 (13902783.343)	
africa_dum	-17628320.2 (1.012e+08)	-17628320.2 (1.012e+08)	-5,832,255.2 (23793627.521)	
ocean_dum	-9,051,791.1 (56558795.432)	-9,051,791.1 (56558795.432)	-20382551.1 (16119867.230)	5,004,361.2 (36552123.134)
Constant	12,000,000.0 (78138910.715)	12,000,000.0 (78138910.715)	26,473,742.0 (41235824.926)	12,408,333.5 (62111765.672)
Observations	3,529	3,529	412	256
R-squared	0.11	0.11	0.19	0.21
Adj,R-squared	0.10	0.10	0.15	0.17

()는 표준 오차
*** p<0.01, ** p<0.05, * p<0.1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제2절 새로운 예술위 역할과 국제교류사업 강화 목표 및 전략

1. 목표

제1절에서의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위원회의 국제화를 위해 좀 더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예산 배정에서 국제부문의 비중 자체가 크지 않다는 것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서 미흡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부분의 예산 집행 비효율성은 이 연구의 대상이 아니기에 언급하지 않겠다. 하지만 아웃바운드에서의 사업타당성이 의심되는 부문들, 특히 단체장의 해외 관광 성격의 시찰이나 목적의식이 없는 전국경연대회 시상자의 해외견학 같은 지원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예술위의 지원과 관련된 목표로서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효율성:

효율성의 측면에서 주요한 이슈들은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이 한국예술가의 창작 역량 제고에 정말 도움이 되는가?’, ‘이 액수가 다른 예술가에게 돌아간다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외국예술가에게 지원해서 더 큰 효과를 볼 수도 있는가?’ 이다.

2) 형평성:

문화예술 분야의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고려할 때 효율성이 아닌 형평성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형평성의 측면에서 주요한 질문들은 ‘예술소비자의 수요가 없지만 꼭 필요성이 인정되는 전통예술이나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이 혹시 너무 적은 것은 아닌가? 또는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 ‘민간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필요 이상으로 정부지원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다.

3) 예술 분야의 특수성:

특수성의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질문들은 ‘일반적인 예산행정의 원칙과는 다른 예술분야의 특수성이 있는가?’, ‘필요 이상으로 예술 분야의 예외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닌가?’ 이다.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2. 전략

예술위가 열악한 한국의 예술환경하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지원정책에 개선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른 예산행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년도의 사례를 답습하는 등 행정편의주의로 흐르는 경향도 일부 볼 수 있다. 특정 단체나 개인이 지원의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은 아닌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도 있다. 즉 심사의 공정성과 효율성 그리고 나아가 전문성의 측면에서 추가로 고심해야 할 것이다. 장르별, 지역별로 지원의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여부를 결정할 때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구체적인 지원업무에서 하나의 고려사항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술성에 있어서 현저한 격차가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예술적 역량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 한 작가는 유럽에 지원을 했고 다른 작가는 아프리카에 지원을 하였다면 소외지역에 지원한 작가에게 우선적인 고려를 하여 아프리카 지원 작가를 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르간의 불균형이 심한 경우, 우선순위의 조정도 가능하다고 하겠다. 국제교류부문에 대한 예산배정이 더 이루어져야 하고, 예산배분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현재보다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제안은 ‘인바운드(inbound)전략의 강화’, ‘아시아와 소외지역에 대한 추가적 배려’,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개발’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은 다음 제 3절에 제시되어 있다.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제3절 전략적 제안 프로그램

1. 인/아웃 바운드(IN/OUT BOUND) 체계화 프로그램

가. 파급 효과가 큰 해외 문화예술 인사 초청 프로그램 유치

국내의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을 해외로 내보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의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아웃바운드 활동들은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비용 및 일정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투자 대비 효과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은 지속적 장기적으로 투자가 이어져야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 크다. 반면, 외국의 영향력 있는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을 국내로 초청하는 인바운드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한다면 아웃바운드와 비교하여 파급력도 더 크고 더 효율적일 것이다.

국내의 문화적 이슈 및 관계자들의 수요에 부응하여, 프로그램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해외 문화예술단체의 초청 프로그램이 수립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파급효과가 큰 외국의 문화예술인을 국내로 초청함으로써,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면 국내의 예술가들과의 상호 교류를 통한 창작역량 강화 및 문화교류 활성화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큰 파급 효과를 가진 한 명의 해외 문화예술인이 국내에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일방적이고 소수의 혜택에 국한된 아웃바운드(Outbound) 프로그램보다 더욱 큰 승수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다문화 배려 차원의 해외 예술가 초청 프로그램

‘다문화’와 관련된 용어나 개념들이 학계나 언론, 시민사회 그리고 일반인 사이에 다양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다민족’ (인종) 문화 vs 여러 개의(다양한)문화는 오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보통 다문화라고 하면 해외에서부터 유입된 이주민과 관련된 다민족적 또는 다인종적 측면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사실이다.

서울에 체류중인 외국인만도 2009년 기준으로 255,749명이나 되어서, 글로벌 서울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의 외국인과 이주민 정책은 서울시민 전체뿐 아니라 한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민전체의 문화 다양성 감수성과 문해력(cultural literacy)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수립 집행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 관련기관들중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원 등은 40%이상, 그리고 문화의 집은 약 30%의 시설에서 다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문예회관에서는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시민의 감수성 측면에서 볼 때, 저명 해외 예술가 초청프로그램과 더불어 다문화 배려차원의 해외 예술가 초청 프로그램도 이루어진다면, 후자의 경우, 활발한 유형적 다문화 시설활용방안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이주민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아티스트들의 초청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은 문화예술적으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 정치, 경제적 빅 이슈(Big Issue) 활용의 극대화 (인-아웃 바운드 가능)

국제사회에서의 문화 교류 및 홍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이를 정치적 경제적인 행사 이슈에 활용한다면 보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외의 대부분의 정치·경제적 이슈는 문화적 행사를 동반하게 되므로, 문화는 더 이상 부수적이고 2차원적인 외교수단이 아닌, 21세기 새로운 권력으로서 그 중요성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우 문화를 바탕으로 한 소프트 외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도 좋은 예가 될 것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에서, 정치적 경제적 행사와 수반되는 각종 문화행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능력/경험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에 이루어진 G20정상회의에 즈음하여 이루어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측면의 각종 다양한 부대행사들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국제 행사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연계하여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외국 문화 교류하는 장이 열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술위는 바로 이러한 정치·경제적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문화예술국제교류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 또한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경제적 교류는 문화적 교류에 비해 더욱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역사도 오래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적 교류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문화예술 교류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성장을 꾀할 수 있다.

즉, 예술위는 이러한 수교 기념행사 또는 국제 대회 등의 정치·문화적 교류를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비탕으로 기존의 문화적 수단만으로는 쉽게 협력관계를 맺을 수 없거나, 접근성이 낮았던 지역들에 대한 더욱 다양하고 확장된 국제교류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라. 유학생 및 청소년 활용 프로그램 (인-아웃 바운드 가능)

유학생 및 청소년 활용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지구촌 시대에 함께 사는 것을 가르치고 배워지는 것을 답습할 수 있을 것이다. 유학생 및 청소년 활용 프로그램은 오늘의 세계가 지구화, 정보화,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국제협력과 상호의존의 밀도가 높아지고, 자본과 기술, 노동의 세계적 이동으로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가 새롭게 등장하는 변화의 흐름에 부합될 것이다.

문화적 측면에서 정부의 국제교류협력 지원은 계속되고 있는 바, 대학들 간의 공동 프로그램 및 창작 인력의 선발을 위한 협력 프로세스를 개발하기 위해 대학들을 타겟으로 학생들을 교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우리나라에 기 구축되어있는 ‘국제청소년문화교류센터’의 한·중 아시아 홈스테이 프로그램 및 아시아 위주의 친선 프로그램, ‘세계 청소년 문화교류 협회’의 글로벌 청소년 교류협력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추어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기 보다는 이 비영리 기관들과 정책기관들의 협력을 통하여 유학생 및 청소년 프로그램의 인-아웃 바운드(In-Out Bound)를 시사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재단 대 재단의 청소년 및 유학생 교류프로그램, 도시대 도시, 비영리 기관 대 비영리 기관 등 이러한 청소년 문화교류, 양방향 문화교류 안에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들, 홈스테이는 국제교류가 더욱 효율적으로 양상될 수 있는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

궁극적으로 정책결정과 실행의 양 분야에서 국제적인 수준의 경쟁과 파급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 실질적 프로그램으로 발전될 수 있다.

마. 그림, 사진 등 외국 작가들의 한국 여행 및 작품전 프로그램

장소는 독특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 유산으로 대표되는 ‘나라’는 장소의 대표적 의미일 것이다. 한국은 역사를 지닌 도시이다. 역사문화공간은 이야기가 있으며, 우리 나라의 생애를 알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문화로 상생된 한국의 모습들이 외국의 작가들에 의해 한국의 미술 창작촌 인프라인 내 건너 창작촌/현대우물 창작촌/목리 창작촌/중구미술촌/아르코 미술관/서울시 창작공간(서울시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의 9곳) 등 에서 외국작가들의 작품전 발전 이바지를 도움으로 작품으로 탄생될 때, 그림이나 사진 또는 작품전으로 까지 발전되어 인-아웃 바운드로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로 유입된 작가들을 자연스레 한국을 여행하고 작품을 꾸림에 있어 자연스레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을 것이다.

바. 익스피어리언스 코리아 프로그램 (‘Experience Korea’ program)

‘익스피어리언스 코리아’ 프로그램은 작은 예산으로 실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안이다. 본 프로그램은 “외국의 젊은 신진 예술가들을 한국에 대규모로 불러들이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서울과 도쿄의 차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서울에는 외국인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다고 답한다. 특히 서울에는 나이드 관광객은 많지만 외국의 젊은 예술가들이 서울 거리에서 많이 보이지 않는다. 예술가들은 본질적으로 유목민(nomad)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작은 인센티브에도 한국에 올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홍대 앞 카페에서 영국에서 온 소설가가 맥북을 켜놓고 작업을 하고 가회동 전통찻집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드로잉을 하는 브라질 미술가의 존재는 서울을 창조도시(creative city)의 이미지로 변신시키는 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창조적인 사람이 많은 도시는 경제적으로도 부흥한다는 것은 플로리다(Richard Florida)의 “창조적 계급(creative class)” 이론을 통해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외국 젊은 예술가들의 선발 기준도 창의성을 발휘하여 파워 블로거(power blogger) 또는 트위터(Twitter)의 팔로워(follower)가 많은 사람들을 위주로 선발하고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SNS)를 통해서 한국에서의 일정을 실시간으로 소개한다면 젊은 예술가 눈 물론 젊은 문화적인 여행객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오거나 단기체류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암벽등반에 관심이 있는 일본의 디자이너는 북한산 인수봉에서, 플라이 피싱에 열정적인 캐나다 무용가는 강원도 내린천에서의 한국체험을 통해서 그 예술가의 예술적 성과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예술가들이 한국 예술가들과 교류하고 한국에서의 체험을 향후 작가의 작품에 반영한다면 한국의 홍보효과도 크다고 생각 한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관광공사와 제휴하여 추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관광공사는 그동안 큰 예산을 들여서 “비지트 코리아(Visit Korea)” 광고를 해외에서 하였지만, 그 효율성 측면에서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국가 브랜드위원회와의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협력도 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국가브랜드위원회가 국격을 높이기 위하여 집행하는 예산의 일부만 가져오더라도 매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대만의 Artist in Residence Taipei 프로그램이 자국 예술가보다 외국 예술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아시아 강화 프로그램

가. 아시아 예술가 유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예술위의 ‘ARKO VISION 2015’에 명시된 전략의 하나인 〈Asia Creative Belt(ACB)〉는 상당한 중요성을 가진다. 상기한 아시아 창작 거점 벨트는 장기적인 국제교류의 관점에서 국제교류의 거점확보를 마련하여, 권역확대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아시아 및 국제 사회에 있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 및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예술위원회는 아시아 창작 벨트(ACB)의 사전 작업으로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색 및 사회적 특색을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한국을 아시아의 문화예술 창작의 허브로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역적으로 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국가에서의 해외 이주민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아시아의 문화가 한데 융합되는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문화적 특색과 함께 국내의 여러 지역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각종 창작공간을 교류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전략적으로 정위화함(positioning)으로써 한국을 아시아 문화예술 창작의 허브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나. 아시아 개념에 대한 재해석 및 전략적 프로그램 개발

흔히 ‘아시아’라는 개념은 ‘미주’, ‘유럽’과 반대되는 포괄적인 의미로, ‘동양’이라는 단어로 통용하곤 한다. ‘아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의 중부와 동부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대륙으로서 대부분 미주와 유럽과는 차이점을 보이는 문화를 가진 국가들의 조합이다. 이러한 ‘아시아’ 대륙은 또 다시 6개의 지역-북부, 중앙,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서남, 남부, 동남, 동아시아—으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지역은 그 지형적 특색과 함께 문화적 측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아시아’는 주로 역사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한 한국과 중국, 일본을 연결하는 동북아시아와 주로 한류를 바탕으로 교류가 이루어지는 동남아시아에 치중되어 있다. 하지만 국가간의 문화교류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아시아에 대한 보다 넓고 다양한 의미에서의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예술위는 기존의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제한되어 있는 아시아를 서남아, 남부아시아, 나아가 중동으로까지 확대하여, 각 지역적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한 전략적 접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0~2012년 국제교류계획〉과도 상통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와의 연계 프로그램

아시아 국가들간의 국제교류 사업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이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와 커뮤니티가 공존하고 상생하며, 각 국가들의 문화가 교류·집적되고 연구·교육·창조가 순환되어 국민들이 일상에서 접하고 누릴 수 있는 국제적인 문화공동체도시 형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는 이를 위하여 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상호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 체계성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는 20년이라는 장기 프로그램이므로, 그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MOU 또는 거점확보등의 하드웨어가 구성되지 않은 채, 문화를 소개하는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속성 및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문화예술위원회는 기존의 위원회의 전략적 거점 및 사후 확보되는 지역 거점을 바탕으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와 연계함으로써 두 기관의 아시아 중심 국제교류 업무를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와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을 선점하여 유치함으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로써 예술위원회로서의 예술위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다양한 장르 프로그램

가. 창작 문화예술의 토양이 되는 모태성 문화예술 지원 강화

기초예술분야에 대한 지원 당위성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동안의 문화예술지원은 보다 장기적인 안목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지원에 보다 더 중점이 이루어져 왔고, 그 결과 그러나 모태성이 강조되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였다. 예술위가 성과중심에서 탈피하여 보다 넓은 시각에서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예술생태의 원리를 파악해야 한다. 예술생태의 원리라는 것은 창의력에 신뢰를 보내고 그것에 지원을 강화하는 생태 구조이다. 기초예술은 '21세기 경쟁력의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기초예술분야의 안정적인 육성을 위한 국고보조나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지원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문화예술의 토양이 되는 모태성 문화예술 지원을 경시한다면 예술생태계의 선순환에도 문제가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악순환이 반복되게 될 것이다.

모태성을 강화한 예술의 확장을 이루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초예술-미술, 음악, 문학, 연극, 무용 등 보다 산업적 응용적 측면이 강한 장르들과 연계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나. 예술 창작 활동 이외에도 철학, 인문학 등 관련 예술 이론 병행

예술지원의 효과가 진정한 우리 예술의 진흥과 발전, 경쟁력 확보로 이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예술담론의 부재 및 철학, 인류학, 인문학 등 예술관련 이론이 병행되지 못하고 있음도 지적해야 할 부분이다.

문화예술 관련 정책사업의 규모가 확장되면서 비평담론이 무력화된 측면이 없지 않다. 비평담론이 없어도 지원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고, 시장으로 흡수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담론과 이론이 병행되기 전에 시장이 먼저 형성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예술의 비평 토대도 열악해질 수 밖에 없게 된다. 결국 예술가들에게 내적인 동기부여를 한다거나 자발성을 만들어내는 것과는 무관하게 공적 사업이 확장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쟁력은 담보되지 못하였다.

성과중심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넓고도 깊은 시각에서의 철학/인류/인문학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등 관련된 예술 이론분야에 대하여도 작가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지원이 이루어져, 창작 작가 외에 이론가 및 담론가들을 양성해야 하겠다.

다. 기성 작가 중심에서 젊은 작가에 대한 기회 확대 프로그램 개발

이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성작가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슬로건 아래 신흥작가에 대한 기회 확대를 축소한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아시아 중심권에서 작가들의 퇴보가 일어난 것이 사실이다. 일본의 신진/신예작가 층 발전프로그램과 비교하여 본다면, 우리나라의 젊은 작가들은 예컨대 신춘문예등단만을 바라보며 창작의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의 발전방향 측면에서, 기성작가중심으로부터 신진작가(젊은 작가)에 대한 기회확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예술위에게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지원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 보다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일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예술위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예술위의 활동이 국제적인 기준의 창작 프로세스를 개발하기 위한 전문인력들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제4절 사업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1. 조직의 국제화 수준에 대한 기준

조직의 국제화 수준에 대하여 제 기관이나 학자들이 국제화 세계화에 대한 다양한 정의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아하로니(Y. Aharoni)가 제시한 종합적 기준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위원회의 세계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하로니(Aharoni)는 세계화의 측정에 있어 성과, 구조, 행태의 세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우선, 세계화의 성과측면에서의 기준을 살펴볼 수 있다.

흔히 국제경영분야에서 보는 성과 분야의 세부 기준들은 절대적 기준으로서 해외부문의 매출액, 해외부문의 이익, 해외 투자(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해외에서의 생산 등이 얼마나 되는지를 들 수 있다. 성과의 상대적 기준으로서 총 매출 중 해외에서의 매출액, 총 투자 중 해외투자, 총 이익(영업이익, 경상이익, 순이익)중 해외에서의 이익, 총 생산 중 해외에서의 생산을 들 수 있다.

다음, 세계화의 구조 측면에서의 기준을 살펴보면 경영활동이 일어나는 국가의 수, 최고경영층(Top management team)의 국적의 수, 해외자회사의 수와 분포를 들 수 있다. 해외자회사의 경우, 자회사의 숫자 못지않게 그 분포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자회사의 수가 많더라도 그 자회사들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면, 수는 적더라도 지역적으로 폭넓게 분산된 경우가 더 세계화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화의 행태 부문에서의 세부 기준들을 살펴보면, 조직의 최고경영자 및 최고경영층의 관점이 얼마나 국제적인가를 들 수 있다. 행태(태도)측면의 지표는 정량적인 성과 및 구조 측면의 지표와는 달리 정성적 주관적 측면이 강하다. 예컨대, 조직의 장이나 본부장 혹은 팀장급 이상의 국제화 마인드/경험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주관적인 기준이 조직의 세계화를 측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강조한다.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2. 국제교류 부문에서의 기준

1) 성과 측면에서의 기준

국제교류 부문에서의 성과 측면에서의 기준은 절대적 성과 기준과 상대적 성과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절대적 성과 기준으로는 특정연도의 인바운드(inbound)지원과 아웃바운드(outbound)지원의 금액과 건수를 들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2008년과 2009년을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지원금액과 지원 건수가 모두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장르별로 살펴보면, 2009년의 경우, 시각예술이 지원금액 및 지원건수의 양 측면에서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상대적 기준으로는 국내와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를 모두 합한 전체 지원 중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합한 것의 비중, 국내와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를 모두 합한 전체 지원 중 인바운드의 비중, 상기한 전체지원중 아웃바운드의 비중을 들 수 있다. 또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의 합 중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각각의 지원 비중을 들 수 있다.

또한 연도별 지원의 절대적 상대적 증감률도 측정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특정연도의 인바운드 지원금액의 전년대비 증감률, 특정연도의 아웃바운드 지원금액의 전년대비 증감률을 측정하여 평가해 볼 수 있다. 절대적 측면에서의 증감률만이 아니라 상대적 측면에서의 증감률도 평가할 수 있다. 즉, 특정연도의 전체 지원 중 인바운드 + 아웃바운드지원 비중의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지원 중 인바운드 지원의 비중의 증감률, 전체 지원 중 아웃바운드 지원 비중의 증감률을 살펴 볼 수 있다.

지원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지원 건수와 지원 금액 양 측면을 평가해 볼 수 있다. 지원 건수의 증가는 다양성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지원 건수의 감소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단, 선택과 집중의 경우, 긍정적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평가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전문가들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전체지원금액을 지원 건수로 나눈 지원 건당 평균 지원금액을 살펴볼 수 있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의 경우, 2008년에 비하여 지원건수와 지원금액 모두 증가하였으나 지원건수의 증가율이 지원금액의 증가율보다 크게 나타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났다. 이는 2009년에 지원 건수당 평균 지원금액이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2) 구조측면에서의 기준

구조 측면에서 보자면, 예술의 지원에 있어 중요한 이슈의 하나는 장르 및 작가 측면에서의 다양성과 지속성의 문제이다. 다양성과 지속성은 상반된 측면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지원을 하다 보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속적 지원이 어렵다. 반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속적 지원을 하다 보면, 다양한 지원이 어렵게 된다.

국제교류 지원에 있어서는 지속성과 다양성의 이슈가 더 복잡해진다.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작가, 장르 측면만이 아니라 인바운드 아티스트(inbound artist)의 출신지 및 활동지, 그리고 아웃바운드 테스트네이션(outbound destination)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지속성과 다양성의 이슈는 계속 제기된다. 이 경우에는 문화적/심리적 거리(psychic/cultural distance) 및 지리적 거리에 따른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교류의 경우, 문화적/심리적으로 가까운 지역부터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프랑스의 경우에도, 프랑스가 유럽이외의 지역과 교류함에 있어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여서 프랑스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아프리카와 베트남 등에 보다 집중하는 것은 상기한 측면이 고려된 것이다.

구조적 측면에서 일반적인 조직에서의 해외자회사처럼, 문화예술위원회도 사무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원을 해외의 주요 문화거점에 파견하여 국제교류 업무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콘텐츠 진흥원의 예를 살펴보면, 유럽지역의 경우, 영국 런던(London)에, 북미지역의 경우,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에, 아시아 지역의 경우, 일본의 도쿄(Tokyo)와 중국의 북경(Beijing)에 사무소를 두고 소장을 임명하여 활동하고 있다. 콘텐츠 진흥원 해외사무소 소장의 경우, 소장이 본사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하여야 하는 측면에서, 현지인 임명에서 본사 직원 파견으로 바뀌고 있다. 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유럽의 경우, 영국 런던(London), 프랑스 파리(Paris) 등을 파견지역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콘텐츠 진흥원이나 기타 조직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용언어나 정보 수집의 측면에서 영국의 런던이 최적지로 판단된다. 북미의 경우, 뉴욕(New York)과 로스앤젤레스가 후보지역이 될 수 있다. 뉴욕은 문화예술의 중심지인 반면,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로스앤젤레스는 대중문화의 중심이고 북미 한인들의 최대 집결지라는 특징을 갖는다. 문화예술의 중심지라는 점에서 또한 워싱턴과의 물리적 거리등을 고려하여 볼 때, 뉴욕이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일본의 도쿄와 중국의 북경을 고려하여 볼 수 있다. 두 지역 모두 장기적으로는 직원의 파견이 필요하며, 보다 시급하게 파견이 필요한 지역은 중국의 북경이다. 콘텐츠 진흥원의 경우, 북경 사무소가 한류의 전파나 진흥에 기여한 바가 컸으며, 특히 중국에서는 한국의 공적 기관이 소개하거나 주최하는 경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문화예술 분야의 중국 진출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중국 북경으로의 진출이 보다 시급하게 필요하다.

3) 행태(태도)측면에서의 기준

행태(태도)측면의 지표는 정량적인 성과 및 구조 측면의 지표와는 달리 정성적 주관적 측면이 강하다. 예컨대, 조직의 장이나 본부장 혹은 팀장급 이상의 국제화 마인드/경험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조직의 장이나 최고경영층의 외국 아티스트/문화 행정가등과의 교류 횟수, 관련회의/세미나 워크숍 참여횟수 및 참여도 등도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조직내에서 글로벌 마인드 혹은 폭 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한 구성원이 해외의 총회/워크숍/기관교류등의 사유로 참가하였을 때 그 결과를 조직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시스템의 마련이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프로듀서 랩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예술위 직원들의 글로벌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평가에 있어 외국 아티스트 평론가 행정가들이 내한하여 이루어지는 워크샵(workshop), 세미나(seminar), 학회(academic conference)등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고 이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하여 볼 만하다. 이를 위하여 직원들이 해외의 워크숍이나 총회 학회등에 참여하여 넓게는 한국의 문화예술 전반에 대하여 소개하고 알리며, 보다 좁게는 예술위의 활동을 소개하고 외국과의 교류 가능성을 높이도록 장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참석 후에는 그 경험을 일차적으로는 예술위내에서 공유하고, 이차적으로는 그 결과를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국제교류 발전 전략 방안

외부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콘텐츠 진흥원에서 이미 시행중인 사례로서 문화예술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회/총회 등에 참여하는 아티스트, 학자나 연구원, 행정가들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하여 학회/총회 참석후 주요한 발표 내용들을 공유하는 발표회를 갖게 하고 예술위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들을 학회/총회 현장에 비치하게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른 정성적 지표는 인바운드(inbound)와 아웃바운드(outbound)의 연계이다.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가 연계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는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연계되는 경우, 정성적으로 보다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둘 이상의 장르가 연계되는 경우에도 장르간의 융 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보다 높은 정성적 평가를 할 수 있다.

기존의 정량적 지표의 경우, 정성적 부분에 대한 측정이 어려웠다. 정성적 지표의 경우, 그 측정의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의 공기관/공조직의 평가에 있어 정량적 지표를 선호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 예술 부문에 있어서는 정성적 지표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컨대 아티스트 네트워크에서 단순한 네트워크의 수만이 아닌 네트워크내의 해외 아티스트와의 관계의 깊이등의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상기한 세 가지 기준들을 고려하여 볼 때, 우려되는 부분은 수년내에 예술위가 나주로 이전해야 한다는 점이다. 영국문화원의 예에서 보듯이, 문화원 자체의 본부는 맨체스터에 있지만 예술관련 조직은 런던에 두는 이유는 그만큼 문화예술 관련 조직은 국제교류나 직원들의 글로벌 마인드 강화를 위하여 문화예술의 교류 및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술위 자체가 서울에 남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만 서울 잔류가 어렵다면 국제교류 관련 조직만이라도 서울에 두어야 지속적인 국제교류의 활성화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결론

제6장 결론

이 연구는 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교류사업 강화와 국제화 마인드 제고를 위해 쓰여졌다. 이를 위해 먼저 예술위의 국제교류사업 현황을 분석하였고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관광체육부 문화교류과,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국내 주요 문화예술 국제교류기관들의 사업 및 구조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해외의 벤치마킹 사례로서, 영국의 브리티쉬 카운실(British Council) 등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문화예술국제교류사업 및 기관, 활동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지원사업의 평가에 대해 논의 해보면, 문화예술은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대표적인 분야이고 그 까닭에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분야이다. 하지만 다른 경제 분야와는 달리, 정부가 지원은 하되 그 내용에 대해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산증액 없이 국제화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국내분야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국제교류가 국내분야보다 더 생산적인 지원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경제부처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효과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즉 지원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후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원받았던 예술가의 언론보도, 작품발표기회 등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예술가들은 이런 보고에 대하여 무관심했다고 할 수 있지만 지원 후에 전시횟수, 언론 보도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측정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정량적 분석은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화 전략에 있어서는 이런 정량적 평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술위의 국제화 사업은 지금까지 착실한 발전을 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한정된 지원 인력으로 한국의 예술가들에게 국제적 체험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했지만 미래에는 이 연구에서 제시한 국제화 전략의 가이드라인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제화 전략으로 제시한 “인바운드(inbound)의 중시”와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등의 무관심 지역에 대한 추가적 배려”라는 두 가지 큰 목표에 예술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한다면 향후 예술위원회 국제화 전략은 성공적인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 외국으로 우리 예술가를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외국예술가를 국내로 불러들이는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제6장 결론

효율성, 형평성, 예술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예술위원회의 국제화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예술위 자체의 진지한 고려와 직원들의 국제화 의식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서 국제화에 대한 직원들 간의 정보 공유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해외교류 사업출장을 갔다 온 직원은 그 성과와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할 뿐만 아니라 발표회와 슬라이드 쇼를 통해서 온&오프 라인으로 공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술위의 일차적인 목표는 “한국 예술가들의 창작역량의 강화”이다. 한국의 화가, 음악가, 무용가, 연극인, 소설가, 문화기획자들의 창조성을 제고하고 그들의 예술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한국작가가 외국에 나가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중상주의적인 폐쇄적인 사고방식이다. Inbound 전략의 핵심은 예술위의 지원이 꼭 한국 작가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의식구조가 폐쇄적인 국수주의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보다 개방적으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예술가들을 통해 더 많은 한국 작가들에게 다른 문화권의 예술을 외국에 나가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 영국에 일정기간 거주한 외국작가의 경우, 문화예술 지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외국 예술가들이 그 도시에 많이 온다는 것은 직선적으로 말해서 그 곳이 “놀기에 좋다”는 것이다. 즉 그 장소가 창조적이고 흥미롭다는 것이다. 미국의 뉴욕은 문화적 체험의 다양성에 있어서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다. 서울에서 뉴욕과 같은 문화적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예술정책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다. 독일의 베를린은 20대가 많은 젊은 도시이다. 갤러리도 많지만 클럽도 많은 도시이다.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예술이 나오고 경제가 번창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그런 분위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외국인들에게는 아직도 생소한 곳이다. 서울은 과거와는 달리 많이 흥미로운 도시가 되었지만 외국인들에게는 덜 알려져 있다. 정보의 불완전성과 시장실패가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익스피어리언스 코리아(Experience Korea)” 프로그램은 저예산으로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지원사업을 제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중국이나 인도 같이 인구가 많은 나라도 아니고 영국, 독일 같은 세계 문화에

제6장 결론

술을 선도하는 나라도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국 예술가, 특히 젊은 예술가들이 한국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은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확충과 함께 아주 중요한 것이다. 대만의 경우 타이페이시 차원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고 세계의 많은 도시들은 예술가를 활용한 도시 이미지 제고에 관심이 많다. 예술가에 대한 지원은 작가의 창작 역량 제고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지만 이차적인 사회적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와 유사한 경제발전 단계를 거쳤고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해있는 대만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台北藝術進駐計畫」(Arts-in-Residence Taipei)라고 불리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참신하고 균형잡힌 방식으로 한국의 예술지원사업의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Artist-in-Residence Taipei (AIR Taipei)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의 예술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장르에 걸친 협력의 장(platform for diverse cultural collaboration)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만의 예술가와 외국의 예술가 사이의 교류를 활성화하며 초빙된 예술가와 그 지역의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촉진하는 것도 중요 목표의 하나이다. 2001년 타이페이 시정부에 의해 처음으로 台北國際藝術村(Taipei Artist Village)이 세워졌고 오래된 정부 청사 건물을 이용해서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전시회를 열고 있다. 2008년에는 타이페이 시 외곽의 양명산이라는 생태자연환경을 이용하여 草山國際藝術村(Grass Mountain Arts Village)을 설립했다. 장개석 총통의 측근들이 쓰던 시설을 예술가들을 위해 개방한 것이다. 한국으로 치자면 대통령 별장이나 휴양시설을 예술가들을 위해 내놓은 것이다. 자연 속에서 명상적 분위기의 레지던스는 도시와는 다른 환경을 제공한다.

세번째로 2010년에 설립된 寶藏巖國際藝術村(Treasure Hill Artist Village)는 타이페이 시의 낮은 산에 위치하는데, 서울의 판자촌을 생각하면 된다. 무허가로 그곳에 정착한 주민들의 공간을 활용하여 만들어졌는데 평화로운 개발방식이 눈길을 끈다. 강제로 원주민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은 사람은 계속해서 살수도 있고 지원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할 수도 있다. 14개의 레지던스 스튜디오가 있고 낮에만 쓸 수 있는 작업실 형태의 공간도 있다. 지역주민과 적대적이지 않은 우호적 분위기

제6장 결론

하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에 그들의 생활에서 작품의 소재를 찾고 작품재료를 구하기도 한다고 그 곳의 예술가들은 말한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위해 다시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역사적인 공간을 보존하는 그런 모습이 흥미로웠다.

그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외국 예술가들을 타이페이에 불러들여 대만 예술가들에게 자극을 주어 그들의 창작역량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예술가를 선발하는데 대만 국적과 외국 국적 예술가 모두에게 동시에 참여자격이 주어지고 외국자매도시프로그램 (Sister Cities Artists Program)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09년 12월 기준으로, 14개국에서 온 227 명의 외국 국적의 예술가들이 타이페이의 레지던스 프로그램 (residence in AIR Taipei)을 활용했고, 94 명의 대만 예술가들이 전세계의 28 개 도시의 예술가 교환프로그램(Artists Exchange Program)에 참여했다고 한다. 자국의 예술가를 해외에 보낸 숫자 보다 더 많이 외국 예술가를 초대한다는 것이 한국의 시각에서는 놀랍다. 더구나 유럽도 아니고 같은 아시아 국가, 그것도 우리 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국가에서 말이다. 그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예술가를 초청해서 새로운 이민자 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해외의 우수 기관들을 이용한 교류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이야기는 한국의 예술가들을 외국에 보내는 것만이 예술지원 프로그램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외국의 예술가들을 초빙하는 데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국수적인 시각을 벗어나 국제적인 균형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 지금 한국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며 개도국에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했다. 한류로 대표되는 대중 예술에 있어서는 아시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화수출국이 되었지만 순수예술에 있어서는 아직 아시아를 주도할 만한 역량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외국예술가들을 “퍼주기”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국내 예술가의 지원을 줄여서라도 외국예술가들을 초빙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때가 되었다.

추가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문화적 국수주의의 극복과 함께 문화적 사대주의 내지는 편향성의 극복이다. 예술교류 아웃바운드 국가들의 분포를 보면, 그 분포가 심하게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문화적 선진국으로

제6장 결론

가려는 예술가들의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예술위의 국제화 전략의 중요 원칙의 하나는 형평성이다. 아프리카, 남미로 가려는 작가는 아주 드물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시아에 대한 인식, 아시아 문화예술에 대한 새로운 의식이 필요하다. 최근 예술위의 주도로 시작된 몽골 초원에서 우리 예술가들이 가서 체험하는 지원 사업은 매우 흥미로운 사업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화예술의 연대가 향후 화두가 될 것이다.

외국 예술가들을 한국으로 유인하는 인바운드(inbound)흐름의 강조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 편향된 한국예술가들과 예술행정의 전략방향을 아시아와 더불어 남미, 아프리카의 무관심 지역으로 바꾸어 보는 것이 예술위의 새로운 국제화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예술계의 현황을 보면 유럽과 미국의 문화적 유행을 따라가는 작업들이 매우 많다고 할 수 있다. 정말 창조적인 예술적 역량을 보이는 작업은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대중문화에서 드라마, 가요를 중심으로 새로운 콘텐츠가 생산되어 한류를 형성하여 간 바가 있다. 한류에 있어서는 우리의 대중문화를 외국 현지와 상호 교감할 수 있는 소통형 문화를 적극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적 교류의 범위를 넓히고 질을 높여야 한다. 기존의 대중문화 중심의 해외 교류에서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로의 확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본질적 전통문화에 대한 문화콘텐츠 개발 접근과 국악, 무용, 공연 등 우리의 고유한 고급 문화예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한국 문화예술의 국제화와 이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의 관점에서 우리의 현황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예술위의 국제화 방안에 대하여 제안을 하였다. 본 연구에 제시된 방안 이외에도 더욱 다양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술위의 가장 큰 임무는 지원에 있어서의 심사와 평가기능이다. 예술위의 지원 데이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지원업무가 더 효율적이고 더 창의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보다 정량적인 지표를 개발하고 지원의 비용 편익분석도 미래 과제로 제안하고 싶다. 국내의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국제화를 고려해야 하는 카테고리의 하나로 놓고 항상 평가해 보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국제화를 통해

제6장 결론

서 예술위 자체의 역량이 제고되고 직원들의 창조적 상상력이 예술가들만큼 발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술위는 지금까지 한국 예술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 예술가들의 창작역량을 높이는 데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전세계 예술가들을 지원대상으로 보고 지원정책을 수립해 보는 글로벌한 예술위원회가 가까운 미래에 탄생하는 것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1. 공규현(2004), 공연예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내 아트마켓 육성방안연구, 석사학위논문, 추계예술대학교
2. 김지연(2009), 국내 공연 아트마켓의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3. 김필국(2007),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발전방안 :〈2006 동아시아주간〉행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4. 문화체육관광부(2009), 『2008년 문화산업통계보고서』.
5. 목수정(2006), 「프랑스의 예술인 사회보장제도-프랑스 공연예술비정규직(Intermittents du Spectacle)사례를 중심으로-」.
6. 박영정·공혜영(2008),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정책2008-2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7. 안태호(2004), 「문화외교적 측면에서 본 레지던스 프로그램 개발-해외주재 한국문화원의 매개활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 경영대학원
8.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10년도 국제교류 사업 설명회 자료집
9.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09 펍스이스 공모 설명회 자료집
10. 예술정책포럼(2007),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포럼』, 2007년 12월.
11. 오성희(2002), 「아트스튜디오 개념, 유형, 실태, 전문가양성, 제도 정립, 특성화, 지역산업, 사회와 연계, 재원」, 「아트스튜디오 조성을 위한 지원정책 연구」, 석사학위논문, 추계예술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12. 오세인(2009), 재외문화원을 통한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13. 외교통상부(2010), 문화외교 매뉴얼
14. 이규석(2007),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2007예술정책연구보고서, 예술경영지원센터
15. 이정희(2009), 글로벌시대 국제문화교류정책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원 운영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예술종합학교
16. 정갑영·조현성·김영범·신효진(2003),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17. 최관호(2006), 「한국미술창작스튜디오의 현장성과 활성화」, 석사학위논문, 홍익대 미술대학원
18. 최원정(2007), 공연예술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19. 최진옥(2007), 「한국영화산업 실업급여제도 개선 방안」,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포럼』 자료집, 예술정책포럼
20. 한국국제교류재단, 2006 문화예술교류 사업
21. 한국국제교류재단, 2007 문화예술교류 사업
22. 한국국제교류재단, 2008 문화예술교류 사업
23. 한국국제교류재단, 2009 문화예술교류 사업
24.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6), 『문화예술인실태조사』.
25.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창립학술대회 및 창립총회 (2008.05), 《통합, 융합의 코드로 본 21세기 문화예술경영의 새로운 지평》, 서울역사박물관
26.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07), 「유럽의 주요 문화예술 활동 기초조사 및 교류기반 구축방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연구보고서」

참고문헌

27.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06),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단기 전략계획 : 예술로 아름다운세상 (ARKO-비전-2010)
28. 한-아세안센터(2009), Annual report 2009
29. 황준욱·안주엽·이상민·김도학·김은경(2006), 『문화산업 전문인력 형성구조와 정책지원』, 한국노동연구원.
30. 허 권(2006), 「유네스코 예술가 지위에 관한 권고의 배경과 시사점」, 『법학논문집』, 제30집 제2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31. 허운선(2006), 국내 미술창작스튜디오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32. European Union(2006), The Status of Artists in Europe.
33. Hellmark, Ann-Britt(2003), Report highlights artists' social security problems,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각 부처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www.arko.or.kr

예술경영지원센터 www.gokams.or.kr

한국국제교류재단 www.kf.or.kr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www.unescoapceiu.org

한-아세안센터 www.aseankorea.org